육아정책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제13권 제2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 아 정 책 연 구

제13권 제2호 2019. 9.

차 례

일반 논문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 강성익·김아름·이주림 ····· 3

한국아동패널 논문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 김연하 ····· 2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성정혜·김춘경 ····· 47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 김수정 ····· 7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 한혜림·이지민 ····· 95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인과구조에 관한 연구
/ 염혜경·김재신·임은의 ····· 121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최지은·김현경 ····· 145

일반 논문

|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 3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3~26 https://doi.org/10.5718/kcep.2019.13.2.3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강성익[1] 김아름[2] 이주림[3]

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육아환경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둘째, 최근의 서울시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25개 자치구의 육아환경 수준을 평가한다. 셋째, 자치구별로 과거의 육아환경 점수와 최근의 점수를 비교하고, 출산율 변화를 고려하여 육아환경 변화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육아환경이 개선된 지역은 중구, 강동구, 강북구 등이며, 육아환경이 하락한 곳은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등이다. 출산율 감소폭이 적고 육아환경 하락폭이 큰 자치구는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등으로, 해당 자치구는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육아환경, 평가지표, 출산율, Natural Breaks Method

Ⅰ.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택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반시설 확충, 신도시 건설 등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특징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고령화는 사망률과 인구구조를 분석하면 변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연구원
2)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3)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육아환경의 질을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육아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어 있을까?

우선 육아환경이라 함은 기존 전통적인 가정과 부모의 양육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지역적이고 사회·자연환경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뜻한다(권미량·김성원, 2012). 과거 국내 육아관련 지표 연구는 정부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에 기반하여 영유아 보육, 복지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으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보육시설 환경 평가에 취중한 한계가 있었다(장명림·박수연·이재연 외, 2009). 반면에 최근 육아환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림·구자훈, 2013), 육아환경의 개선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육아환경 관련 지표는 육아·보육지표, 육아환경 지표, 육아친화 지표, 아동친화 지표, 가족친화 지표, 육아지원 지표로 분류되어 개발되고 있다(강은진·유해미·윤지연, 2016). 대분류별 세부지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육아환경의 세부지표로는 사회문화환경, 가정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 자연환경, 의료환경, 복합상업환경 등을 다루고 있다(권미량·김성원, 2012; 이주림·구자훈, 2013; 2015). 육아친화와 관련된 지표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양육친화, 자아실현, 안전성, 지역환경을 논하고 있다(천현숙·정희남·김혜승 외, 2013). 아동친화 지표는 주거환경, 옥외놀이환경, 근린환경, 지역사회와의 유대, 안전환경, 개인생활이 고려되고 있다(정경숙, 2008; 홍승애·이재연, 2011; 2014). 가족친화와 관련된 지표는 편의서비스 인프라, 돌봄시설, 문화시설, 사회자본 등이 연구되고 있다(유재언·진미정, 2013). 육아지원과 관련된 지표는 보육시설, 여가 시설, 문화시설, 안전시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혜금, 2012).

기존 육아환경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횡단면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이 주로 연구되었다. 평가지표는 보육환경, 지원 서비스, 문화상업 환경, 보건의료, 안전환경 분야 등으로 세분되어 개발되어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양육환경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육아환경은 행정의 노력과 영유아 수의 증감에 따

라 지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종단면적인 특성 분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육아환경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환경의 개선 여부와 수준 증감 정도를 출산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이주림과 구자훈(2013)의 연구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자치구간 상대적 비교에 중점을 둔 연구인 반면에 본 연구는 해당 자치구의 5년간 육아환경 수준 증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준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시계열적 자료를 가지고 해당 행정구역의 육아환경 수준 변화를 파악하고 수준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므로 기존 연구들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권의 물리적 육아환경 현황과 5년간의 육아환경 수준 변화를 분석하여 자치구 차원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했다. 본 분석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2012년과 2016년 육아환경 시설 자료를 통해 육아환경 수준 증감을 파악하고 출산율 변화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2차원 격자망 기법을 활용했다. 격자망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룹별로 정책 제언과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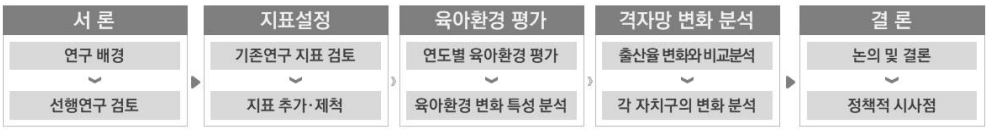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육아환경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평가한 이주림과 구자훈(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1]. 해당 시점에서 데이터의 한계로 활용하지 못했던 설명변수를 추가하거나 현시점에서 데이터 구득이 불가능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등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육아환경을 평가했다. 육아환경 평가는 최신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2016년을 기준으로 5년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했으며, 전후를 평가점수 변화를 비교하여 자치구

1) 본 연구는 서울시 육아환경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이주림과 구자훈(2013)의 2차 연구로 1차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열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이다. 1차 연구는 한 해(2012년)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 육아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년간의 육아환경 데이터를 구득하고 육아환경 변화와 변화 특징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별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육아환경 변화와 영유아 수 변화 및 출산율 변화와의 격자망 변화를 분석했다. 격자망 상에서 두 해 연간 변화를 분석하여 육아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살펴보고 각 그룹에 있는 자치구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2. 분석의 방법

분석은 Jenk의 내추럴 브레이크 기법(Natural Breaks Method)과 격자망 분석을 활용했다. 내추럴 브레이크 기법은 평균과 편차를 이용하여 변수를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데 활용했다. 해당 기법은 지리정보시스템(ArcGIS ver10.3)을 활용하였고, GIS의 단계 구분 기법인 등간격, 분위수, 표준편자 보다 통계적 논리구조가 우수하고 활용도가 가장 높다.

육아환경 변화를 합계출산율 변화와 비교 분석하는데 격자망 분석을 활용했다. 격자망 분석은 그룹에 따라 우선 시정 노력이 필요한 곳, 지속유지가 필요한 곳 등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육아환경과 출산율의 변화 및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격자망 분석을 변형하여 활용했다. 2012년 격자망과 2016년 격자망을 하나의 격자망에 표시하여 자치구의 이동성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했다. 격자망 변화 분석을 통해 육아환경 점수 증감, 출산율 증감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하고 우선 시정이 필요한 자치구를 도출했다.

Ⅲ. 연구결과

1. 평가항목 설정

육아환경 평가지표는 이주림과 구자훈(2013, 2015)의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변화특성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변수는 제외하고 해당 연구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

던 변수를 추가하여 최종 도출했다. 육아환경지표 선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지표를 도출한 이주림과 구자훈 연구의 지표를 차용했다. 특히 타 연구에서 미미하게 다루었지만, 실제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자연환경 요소와 상업환경 요소를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지표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지표를 재정립했다. 이에 따른 육아환경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표 1).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존연구의 평가지표 항목은 육아환경지표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논의되는 지표와 분류들을 통해 1차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육아정책 전문가[2]의 심층면접 조사를 거쳐 적합도 3점(보통) 이상과 일표본 t-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되었다. 보육시설 환경은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포함했고 기존 육아환경지료에서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했던 유치원 교원 1명당 원아수, 종사자수, 교실수를 본 연구에서는 추가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양육지원 환경에서는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영유아 플라자를 장난감 도서관으로 대치했다.

공원·녹지 환경은 자치구의 공원, 어린이공원,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생활권 단위의 공원인 도시공원을 포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수적 또는 면적 데이터를 보완했다.

문화환경에서는 어린이 또는 학부모들의 이용이 활발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수를 새로이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보완했다. 기본적인 문화시설로 어린이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포함했다.

복합상업 환경은 기존연구를 준수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를 포함하되 면적 자료를 통해 데이터의 정밀성을 보완했으며, 상업시설 총수와 식음료 및 생활용품 구매가 용이한 기타 대규모 점포 개수 및 면적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했다.

의료시설 환경은 종합병원, 병·의원수를 준수하였고,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미분류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또한, 보건소는 자치구 여건과 무관하게 자치구에 균일하게 설치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제외했으며, 보건분소와 보건지소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

2) 심층면접조사는 육아정책 분야의 연구원 1인, 도시계획 전공 교수 2인 등을 실시함.

〈표 1〉 최종 평가항목

1차 평가항목		설명	항목 산출
대분류	세분류		
보육 시설 환경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준 측정	영유아* 천 인당 어린이집수
	국공립어린이집	신뢰성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식	영유아* 천 인당 국공립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종사자(추가)		영유아* 천 인당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수·종사자 수
	유치원수	만3~5세 영유아 보육 가능시설	유치원아** 천 인당 유치원 수
	유치원 학급수(추가)		유치원아** 천 인당 유치원 학급수
	유치원 교원1인당 원아수 (추가)		유치원 아동수/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원수(추가)		유치원아** 천 인당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학급수(추가)		유치원아** 천 인당 유치원 학급수
양육 지원 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관련 공간 및 정보 제공	영유아* 만 인당 보육정보센터 인력
	장난감 도서관	무료 장난감 대여	영유아* 만 인당 장난감 도서관 수
공원·녹지 환경	공원면적	자연, 숲 체험 및 휴식 공간	인구***당 공원면적
	공원수(추가)		인구*** 만 인당 공원수
	어린이공원 면적	어린이를 위한 외부 오픈공간	영유아* 천인당 어린이공원 면적
	어린이공원 수(추가)		영유아** 만인당 어린이공원수
	도시공원 수(추가)	도심 인구의 휴식과 삶의 질 개선의 공간	인구***당 공원면적
	도시공원 면적(추가)		인구*** 만인당 공원수
	녹지면적	자연, 대기환경을 질을 결정	인구***당 녹지 면적
문화 환경	공공도서관(추가)	도서 대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만 인당 공공도서관 수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만 인당 공공어린이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	영유아* 만 인당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 수
복합 상업 환경	백화점	문화센터 등 상업적 성격의 영유아 부모의 생활편의시설	인구*** 백만 인당 백화점 수
	백화점 면적(추가)		인구*** 백만 인당 백화점 면적
	할인점	상업 성격의 어린이 공간 등 영유아 부모의 생활편의시설	인구***백만 인당 할인점 수
	할인점 면적(추가)		인구*** 백만 인당 할인점 면적
	기타대규모점포 수와 면적(추가)	전통시장 등 부모들의 생활편의시설	인구*** 백만 인당 점포·면적 수
의료 환경	종합병원	의료 서비스 수준	인구*** 십만 인당 종합병원 수
	병·의원수		인구*** 천 인당 병·의원 수
	소아청소년과(제외)	영유아를 대상 의료 서비스	영유아* 천 인당 병원수

1차 평가항목		설명	항목 산출
대분류	세분류		
	보건분소(추가)	공공의료 수준	인구***당 보건분소 수
	보건지소(추가)		인구***당 보건지소 수
	보건소(제외)		인구***당 보건소 수
	보건소 인력(추가)		인구***당 보건소 인력 수

* 영유아 : 영유아 기준인 만0~5세 인구.
** 유치원아 : 유치원 원아 기준인 만3~5세 인구.
*** 인구 : 인구는 자치구의 주민등록인구.

2.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 및 육아환경 특성 분석

가. 합계출산율 및 인구특성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 0.93명으로 1명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관악구로 합계출산율이 0.77명에 그친다. 그나마 출산이 높은 지역은 구로구(1.07), 노원구(1.06), 강서구(1.05)로 1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영유아(0~5세) 수의 서울시 평균은 18,138명이며 송파구가 32,806명으로 가장 많다. 반면에, 종로구와 중구는 5천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편차가 크다. 영유아 밀도는 강서구(0.053), 송파구(0.050), 노원구(0.044) 순으로 높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가임여성 수는 104,868명이며, 송파구가 182,465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순으로 가임 여성수가 많다. 가임여성 밀도는 강남구(0.29), 마포구(0.28), 서초구(0.28)로 자치구 평균인 0.25를 상회한다.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과 영유아 관련 인구(2016년 기준)

단위: 수, %

자치구	합계 출산율		주민등록 인구	0~5세 인구		5세 이하 인구밀도	가임여성 수	가임여성 밀도	65세 이상인구	65세 이상밀도
	율	변화		수	변화					
강남구	0.802	-9.5	567,115	24,694	-3.6	0.044	167,738	0.296	61,822	0.109
강동구	0.938	-14.8	444,168	20,395	-19.6	0.046	113,673	0.256	53,121	0.120
강북구	0.878	-16.5	327,195	12,743	-19.1	0.039	79,041	0.242	53,964	0.165
강서구	1.059	-8.0	595,485	31,809	4.9	0.053	159,778	0.268	70,889	0.119
관악구	0.777	-12.8	506,851	19,627	-16.0	0.039	137,801	0.272	66,659	0.132

자치구	합계 출산율		주민등록 인구	0~5세 인구		5세 이하 인구밀도	가임여성 수	가임여성 밀도	65세 이상인구	65세 이상밀도
	율	변화		수	변화					
광진구	0.867	-9.4	357,215	15,162	-10.6	0.042	100,855	0.282	41,292	0.116
구로구	1.070	-14.9	417,551	22,548	-13.0	0.054	106,638	0.255	55,159	0.132
금천구	0.944	-14.5	235,386	9,891	-9.7	0.042	57,357	0.244	31,976	0.136
노원구	1.068	-8.1	567,581	25,224	-14.0	0.044	149,835	0.264	70,819	0.125
도봉구	0.947	-16.7	348,220	14,705	-12.8	0.042	86,009	0.247	50,466	0.145
동대문구	0.889	-10.9	355,069	15,044	-9.7	0.042	88,900	0.250	53,301	0.150
동작구	0.912	-10.3	400,997	18,825	-8.3	0.047	107,442	0.268	55,052	0.137
마포구	0.945	-4.6	379,892	18,497	-9.1	0.049	109,105	0.287	48,060	0.127
서대문구	0.934	-3.4	314,194	13,600	-3.5	0.043	82,130	0.261	47,303	0.151
서초구	0.928	-15.3	447,192	23,469	2.0	0.052	127,143	0.284	50,906	0.114
성동구	1.013	-5.9	299,259	14,817	-1.9	0.050	79,002	0.264	39,140	0.131
성북구	0.909	-12.9	450,355	20,369	-18.5	0.045	117,156	0.260	63,878	0.142
송파구	0.958	-12.8	657,831	32,806	-6.7	0.050	182,465	0.277	70,918	0.108
양천구	1.008	-4.5	477,739	21,013	-8.6	0.044	127,451	0.267	51,957	0.109
영등포구	1.011	-11.5	370,613	17,901	-13.0	0.048	96,704	0.261	51,186	0.138
용산구	0.907	-17.4	230,241	9,965	-15.6	0.043	60,217	0.262	35,547	0.154
은평구	0.943	-17.2	491,476	22,077	-15.2	0.045	126,511	0.257	71,304	0.145
종로구	0.784	-11.9	152,737	5,133	-14.0	0.034	24,950	0.163	38,972	0.255
중구	0.974	-13.1	125,249	5,085	-16.3	0.041	31,029	0.248	20,388	0.163
중랑구	0.995	-8.0	411,005	18,040	-5.8	0.044	102,766	0.250	55,842	0.136
평균	0.938	-11.4	397,225	18,138	-10.3	0.045	104,868	0.259	52,397	0.138

* 변화 : 2013년 대비 증감율으로 단위는 %임.

자료: 행정안전부(2016); 통계청(2016).

나. 육아관련 시설 현황

육아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은 보육시설 공원·녹지 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시설로 구분하여 구축했다. 기준연도는 2016년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육아관련 주요시설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환경 항목에는 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수, 유치원 교원당 어린이 수, 유치원 학급수, 유치원 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실수 자료를 활용했다. 보육시설 환경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자치구는 강

서구, 노원구, 송파구로 강서구, 노원구는 3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상위권에 속하고 송파구는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

육아지원 환경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와 장난감도서관 수 자료를 구축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는 성동구가 6개소로 가장 많고 강남구가 4개소로 그 뒤를 잇는다. 장난감도서관 수는 강남구, 동작구가 4개로 가장 많고 강동구, 구로구 등이 2개소로 두 번째로 많다.

공원·녹지 환경은 공원 수와 면적, 어린이공원 수·면적, 도시공원 수, 도시공원 면적, 녹지면적을 수집했다. 공원 수는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순으로 개소가 많고, 도시공원 수는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개소가 많다. 어린이 공원수는 강서구가 123개소로 가장 많으며,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순이다.

문화시설 항목은 공공도서관 수, 어린이도서관 수, 문화예술회관 수, 구민회관 수, 종합복지회관, 구민 체육시설 수, 청소년수련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공공도서관 수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가 10개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도서관은 도봉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이 2개소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문화예술 회관은 노원구, 성동구, 종로구가 2개소로 가장 많고, 종합복지회관은 강서구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영등포구(6개), 도봉구(5개)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강북구, 마포구가 4개소로 뒤를 이었다.

의료환경 항목은 병원수, 종합병원 수, 병의원 수, 보건분소 수, 보건지소 수, 보건소 인력수 자료를 수집했다. 병원수는 강남구(2,531개), 서초구(1,216개), 송파구(1,048개) 순으로 많았고, 종합병원 수는 영등포구(7개), 동대문구(5개), 강남구(4개), 종로구(4개) 순이다. 보건분소 수는 서대문구, 성동구가 2개소로 가장 많고, 보건소 인력은 노원구(136개), 중랑구(131개), 강동구(128개), 서초구(128개), 중구(128개) 순이다.

복합상업 환경의 자료는 상업시설 수, 대형마트 수, 대형마트 면적, 백화점 수, 백화점 면적, 대규모점포 수, 대규모점포 면적을 구축했다. 상업시설 수는 중구(53개), 강남구(32개) 순이며, 대형마트 수는 송파구(5개), 영등포구(5개), 강서구(4개), 구로구(4개) 순이다. 백화점은 강남구가 6개, 중구가 3개로 많은 편에 속하고, 대규모점포는 중구(38개), 강남구(21개), 서초구(19개) 순이다.

〈표 3〉 자치구별 육아관련 주요시설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명, 개소, ㎡

자치구	보육시설 환경									육아지원 환경		공원·녹지 환경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수	유치원 학급수	유치원 교원당 원아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실수	육아종합지원센터수	장난감 도서관수	공원수	도시공원수	어린이공원수
강남구	243	53	612	246	41	192	12.4	347	156	4	4	158	145	64
강동구	289	46	390	151	35	202	15.2	295	186	3	2	124	115	62
강북구	182	35	255	85	24	102	12.3	171	99	1	2	83	63	44
강서구	438	64	477	173	52	293	12.5	468	290	1	1	167	155	123
관악구	281	51	444	158	36	209	13.5	324	194	3	1	110	98	71
광진구	217	29	258	86	36	135	12.9	247	136	1	1	55	41	35
구로구	356	50	403	158	36	161	13.5	258	144	1	2	92	50	24
금천구	174	42	325	110	17	88	13.2	126	82	2	2	54	46	41
노원구	494	47	436	185	67	355	13.6	535	368	3	1	181	130	94
도봉구	265	32	245	98	30	153	12.7	238	163	3	2	79	51	40
동대문구	231	48	355	132	32	163	12.9	262	161	2	2	97	81	42
동작구	235	44	424	129	34	184	12.1	304	179	1	4	83	67	33
마포구	228	49	431	180	28	144	13.3	232	116	1	2	143	99	57
서대문구	159	37	299	137	27	128	12.5	220	112	1	1	119	80	47
서초구	201	48	475	160	27	131	14.0	217	116	2	1	147	120	79
성동구	189	64	529	190	31	117	13.1	198	118	6	1	82	61	32
성북구	310	54	487	159	52	244	12.9	407	222	1	2	130	77	41
송파구	421	46	427	157	54	271	12.8	473	282	1	1	162	148	89
양천구	342	56	467	205	49	253	12.4	416	230	3	1	120	102	73
영등포구	266	41	343	144	42	180	12.3	327	163	1	1	128	92	34
용산구	125	22	210	63	17	79	12.9	138	79	1	1	101	65	23
은평구	314	32	251	108	48	238	13.1	350	249	2	1	136	99	47
종로구	81	28	248	103	17	65	12.9	103	63	3	2	108	69	27
중구	67	19	250	82	13	70	12.1	97	55	2	2	70	59	16
중랑구	260	34	369	140	34	162	12.5	270	151	2	2	104	67	46
평균	255	43	376	142	35	173	12.9	281	165	2	2	113	87	51

자치구	문화 환경						의료 환경				복합상업 환경			
	공공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문화 예술 회관	구민 회관	종합 복지 회관	청소년 수련 시설	병원수	종합 병원수	보건 분소	보건소 인력 합계	상업 시설 합계	대형 마트	백화점	그밖의 대규모 점포
강남구	11	-	-	1	6	4	2,531	4	1	117	32	1	6	21
강동구	7	-	1	1	2	1	758	3	1	128	16	3	1	12
강북구	6	-	1	1	5	4	438	1	1	105	13	1	1	9
강서구	9	2	-	1	10	3	739	3	1	125	18	4	1	11
관악구	5	-	1	1	5	2	666	2	1	111	21	1	1	15
광진구	4	-	1	1	3	1	539	2	-	114	19	2	1	16
구로구	10	2	1	1	3	2	566	2	-	104	24	4	2	17
금천구	4	-	1	1	2	1	336	1	1	99	15	3	-	6
노원구	6	1	2	1	8	2	712	3	-	136	14	3	2	9
도봉구	7	4	-	1	3	5	363	1	-	113	9	3	-	6
동대문구	4	1	-	1	2	1	599	5	1	115	23	2	2	16
동작구	5	2	-	1	6	4	559	2	1	102	6	-	1	5
마포구	4	-	1	1	2	4	702	-	1	102	15	3	-	11
서대문구	4	1	1	1	3	2	431	3	2	110	9	-	1	8
서초구	2	-	-	1	4	2	1,216	1	-	128	27	3	2	19
성동구	6	-	2	1	3	2	394	1	2	101	14	2	-	10
성북구	8	2	-	1	5	1	527	1	-	114	18	3	1	13
송파구	11	2	-	1	6	3	1,048	2	-	108	23	5	2	11
양천구	6	-	-	1	5	3	613	2	1	108	14	2	2	9
영등포구	5	-	1	1	2	6	724	7	1	112	27	5	2	14
용산구	3	-	1	-	2	2	298	1	1	114	15	2	1	4
은평구	6	-	1	1	3	2	622	1	1	112	19	2	-	12
종로구	6	1	2	1	1	-	485	4	1	90	12	-	-	10
중구	5	1	1	1	3	4	540	3	1	128	53	2	3	38
중랑구	3	1	-	1	4	2	490	2	1	131	14	6	-	7
평균	5.9	0.8	0.7	1.0	3.9	2.5	676	2.3	0.8	113	19	2	1	12

자료: 서울특별시(2016).

3. 육아환경 변화특성 분석

가. 서울시 자치구의 육아환경 평가

육아환경 점수는 영유아 수 대비 육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수 및 면적을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영유아 수의 많고 적음, 영유아 관련 시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된다. 육아환경은 육아관련 시설의 넓고 좁음에 따라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이용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육아환경은 영유아 수 대비 육아 관련 시설 수 및 면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 육아환경 평가는 2012년과 2016년의 현황을 4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정규분포를 이루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변수들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편차가 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추럴 브레이크 기법[3]을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개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부터 순차적으로 0.25점, 0.5점, 0.75점, 1.0점을 부여했다. 대분류별 세부지표들의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평균값으로 6개의 대분류 항목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 서울시 자치구별 육아환경 점수는 중구(0.83)가 1위이며 상위권에 종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속해있다. 중구는 보육시설, 양육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환경이 상위권이다. 종로구 또한 복합상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상위권에 속해있다. 반면에 은평구(0.40)가 최하위이며, 송파구, 중랑구, 구로구, 관악구가 하위권이다. 은평구는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시설 환경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구로구는 3개 항목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며, 중랑구는 모든 항목이 평균점수 이하이다.

3) 본 기법은 수치 간의 동질적 성격과 군집적 성격을 반영하여 통계적으로 등급화하는 방법이다(Smith, 1986; North, 2009). 이 방법은 등급 내 분산은 극소화하고 등급 간 분산을 극대화한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평균 편차를 극소화하고 등급의 편차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Jenks, 1967; McMaster, 1997).

〈표 4〉 육아환경 평가점수 및 순위(2012년 기준)

자치구	보육시설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중구	0.78	2	1.00	1	0.79	3	0.93	1	0.83	1	0.68	3	0.83	1
종로구	0.86	1	0.88	2	0.96	1	0.86	2	0.75	2	0.39	21	0.78	2
금천구	0.56	13	0.88	2	0.50	9	0.50	7	0.50	6	0.61	4	0.59	3
동대문구	0.64	6	0.75	5	0.54	8	0.43	16	0.50	6	0.61	4	0.58	4
성동구	0.67	4	0.75	5	0.43	17	0.54	6	0.46	10	0.54	9	0.56	5
- 중간 생략 -														
관악구	0.64	6	0.38	17	0.50	9	0.43	16	0.38	15	0.36	24	0.45	21
구로구	0.39	24	0.38	17	0.32	23	0.46	12	0.29	23	0.82	1	0.44	22
중랑구	0.53	15	0.38	17	0.43	17	0.43	16	0.38	15	0.43	17	0.43	23
송파구	0.42	21	0.38	17	0.43	17	0.39	21	0.38	15	0.57	7	0.43	24
은평구	0.53	15	0.38	17	0.46	14	0.32	23	0.29	23	0.39	21	0.40	25
평균	0.57		0.57		0.52		0.50		0.45		0.51		0.52	

* 1~3순위는 (■)음영 표시

2016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별로는 중구(0.92)가 육아환경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다. 중구는 2012년과 동일하게 모든 항목이 상위권에 속했고, 종로구 또한 복합상업 시설환경을 제외한 항목이 상위권에 속했다. 그다음 순위로는 종로구(0.81), 금천구(0.60), 강남구(0.58), 동대문구(0.56)로 성동구가 상위권 밖으로 나가고 강남구가 새롭게 위치했다. 반면에 강서구(0.42)가 최하위로 공원녹지 시설, 복합상업 환경을 제외한 항목들이 낮게 평가되었다. 송파구(0.42), 동작구(0.43), 은평구(0.44), 구로구(0.45)가 하위권에 속하며 관악구 대신 동작구가 새롭게 하위권에 속했다.

〈표 5〉 육아환경 평가점수 및 순위(2016년 기준)

자치구	보육시설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중구	0.83	2	1.00	1	0.79	3	0.96	1	0.96	1	1.00	1	0.92	1
종로구	0.92	1	1.00	1	0.93	1	0.82	2	0.75	2	0.46	14	0.81	2
금천구	0.69	7	0.75	3	0.46	15	0.57	6	0.46	8	0.64	4	0.60	3
강남구	0.44	21	0.75	3	0.61	7	0.50	9	0.58	3	0.57	7	0.58	4
동대문구	0.72	6	0.63	5	0.46	15	0.46	15	0.46	8	0.64	4	0.56	5

자치구	보육시설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중간 생략 -														
구로구	0.44	21	0.38	15	0.32	23	0.54	8	0.29	24	0.71	3	0.45	21
은평구	0.58	14	0.38	15	0.46	15	0.43	21	0.38	13	0.39	19	0.44	22
동작구	0.56	16	0.50	10	0.32	23	0.57	6	0.33	20	0.29	25	0.43	23
송파구	0.44	21	0.25	22	0.46	15	0.39	23	0.38	13	0.57	7	0.42	24
강서구	0.44	21	0.25	22	0.57	8	0.43	21	0.33	20	0.46	14	0.42	25
평균	0.61		0.51		0.54		0.53		0.45		0.52		0.53	

* 1~3순위는 (■)음영 표시

나.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항목별 평가점수 변화(2012년~2016년)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환경에서는 성북구(0.17), 영등포구(0.14), 금천구(0.14), 강동구(0.11), 서초구(0.11) 순으로 상승했다. 반대로 용산구(-0.06), 광진구(-0.03), 마포구(-0.03), 중랑구(-0.03) 순으로 보육시설환경 점수가 하락했다. 양육지원환경 분야에서는 양천구, 강북구, 관악구, 종로구, 중랑구가 0.13점으로 향상되었고, 광진구, 마포구, 도봉구, 서초구가 -0.25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공원·녹지환경 점수는 강동구(0.14)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서 강남구(0.11), 강북구(0.07), 영등포구(0.07), 서대문구(0.07)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서구(-0.07), 동대문구(-0.04), 금천구(-0.04), 종로구(-0.04) 순으로 하락했다. 문화시설환경에서는 마포구(0.14), 은평구(0.11), 용산구(0.07), 구로구(0.07), 성동구(0.07) 등이 증가했지만, 강서구(-0.07), 서대무구(-0.07), 종로구(-0.04), 강동구(-0.04) 순서로 하락했다. 의료시설 분야에서는 중구(0.13), 은평구(0.08), 서초구(0.08) 순으로 상승했고, 동작구, 성북구, 마포구가 -0.08점,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등이 -0.04점 감소했다. 복합상업환경의 점수는 중구(0.32), 영등포구(0.14), 종로구(0.07) 순으로 증가한 반면, 구로구(-0.11), 양천구(-0.07), 노원구(-0.07) 등이 하락했다.

종합점수 변화는 중구(순위 유지)가 0.09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강동구(16위→11위)가 0.06점, 강북구(15위→10위)가 0.05점, 영등포구(14위→7위)가 0.04점, 은평구(24위→22위)가 0.04점 증가했다. 반면에 강서구가 -0.07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광진구(-0.05), 마포구(-0.04), 도봉구(-0.04) 순으로 하락했다.

〈표 6〉 육아환경 평가점수 변화(2012-2016년 기준)

자치구	보육시설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종합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순위
강남구	0.03	-	0.11	-	-0.04	0.07	0.03	11
강동구	0.11	-	0.14	-0.04	0.04	0.07	0.06	2
강북구	0.08	0.13	0.07	0.04	-0.04	0.04	0.05	3
강서구	-0.11	-0.13	-0.07	-0.07	-	-0.04	-0.07	25
관악구	0.06	0.13	-	0.04	-	-	0.04	7
광진구	-0.03	-0.25	-	-	-0.04	0.04	-0.05	24
구로구	0.06	-	-	0.07	-	-0.11	0.00	13
금천구	0.14	-0.13	-0.04	0.07	-0.04	0.04	0.01	12
노원구	0.03	-0.13	-	0.04	0.04	-0.07	-0.02	19
도봉구	0.03	-0.25	0.04	-	0.04	-0.07	-0.04	22
동대문구	0.08	-0.13	-0.07	0.04	-0.04	0.04	-0.01	18
동작구	0.03	-0.13	-	0.07	-0.08	-0.04	-0.02	21
마포구	-0.03	-0.25	-	0.14	-0.08	-	-0.04	23
서대문구	0.03	-0.13	0.07	-0.07	0.04	-	-0.01	14
서초구	0.11	-0.25	-	0.07	0.08	-0.07	-0.01	15
성동구	0.03	-0.13	-	0.07	-0.04	-0.04	-0.02	20
성북구	0.17	-	0.04	0.04	-0.08	0.07	0.04	6
송파구	0.03	-0.13	0.04	-	-	-	-0.01	17
양천구	0.08	0.13	0.04	-	0.04	-0.07	0.04	8
영등포구	0.14	-0.13	0.07	0.04	-	0.14	0.04	4
용산구	-0.06	-	0.04	0.07	-0.04	-0.07	-0.01	16
은평구	0.06	-	-	0.11	0.08	-	0.04	5
종로구	0.06	0.13	-0.04	-0.04	-	0.07	0.03	10
중구	0.06	-	-	0.04	0.13	0.32	0.09	1
중랑구	-0.03	0.13	0.04	0.04	-	0.04	0.03	9
평균	0.05	-0.06	0.02	0.03	-0.00	0.01	0.01	

4. 출산율 변화를 고려한 육아환경 변화 평가

가. 육아환경과 출산율의 격자망 변화 분석

자치구 간 육아환경 수준 변화와 출산율 변화를 함께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해당 변수들을 X, Y 격자망에 나타내어 변화 특징을 분석했다. 육아환경은 출산율을 고려한 자치구의 절대적인 평가와 자치구간 상대적인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자치구의 육아환경 절대치의 변화를 통해 수준의 증감을 파악하고 타 자치구 수준의 증감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출산율, 육아환경의 절대평가·상대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차원 격자망 분석을 실시했다. 육아환경 변화를 X축으로 출산율 변화를 Y축으로 설정하고 각 변수의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2012년과 2016년의 육아환경과 출산율 변화 형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육아환경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와 같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기운 자치구도 있으며 반대로 왼쪽으로 기운 자치구도 있어 자치구에 따라 육아환경 평가점수가 증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화살표가 아래로 기울었다는 것은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로 모든 자치구가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출산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환경 정(+)·음(-)의 변화와 출산율 하락의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을 분리했다.[5]

아울러 본 격자망 그래프는 자치구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화살표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도 중요하다. 육아환경이 현재 낮지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면 육아환경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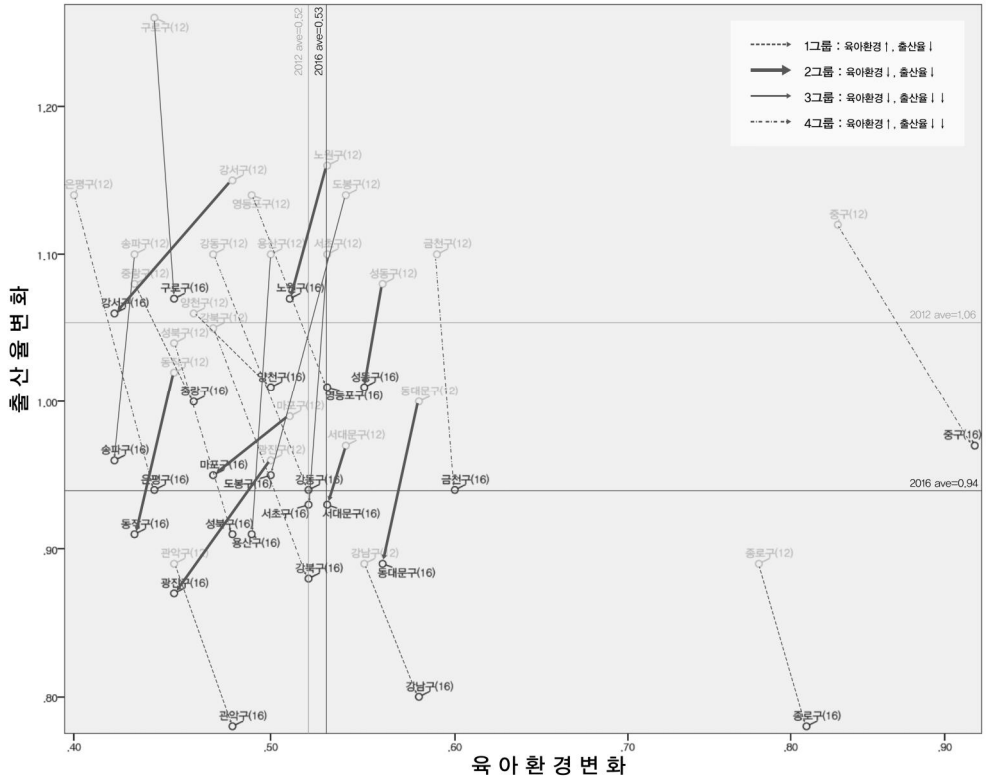
그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출산율은 국내 저출산의 큰 흐름 속에 2012년 대비 모든 자치구가 하락했다.[6] 따라서, 출산율 평균 하락(-0.12)보다 높은 1, 2그룹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지역이며, 평균보다 낮은 3, 4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

4) 유념하여 해석해야 할 점으로 육아환경 평가점수 변화는 영유아 인구수의 증감, 관련 시설의 증감, 상대 자치구의 평가점수 증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육아환경 평가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영유아 수가 증가하거나 타 자치구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며, 해당 자치구의 시설이 급감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5) 1그룹은 점선, 2그룹은 굵은 선, 3그룹은 가는 선, 4그룹은 일점쇄선으로 표시함.

6) 출산율 화살표가 모두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1·2그룹 자치구보다 3·4그룹의 자치구 출산율 하락이 가파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육아환경과 출산율 변화 격자망(2012-2016년 기준)

하락한 지역이다. 1그룹에 속한 자치구는 양천구, 강남구, 중랑구, 종로구, 관악구로 육아환경 평가점수가 향상됨과 동시에 출산율 하락이 덜 일어난 지역이다. 해당 자치구는 타 그룹과 비교하면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의 출산율은 여전히 하위권이며, 강남구,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육아환경 점수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작지만, 해당 지자체는 자치구의 육아환경의 수준은 양호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2그룹에 속하는 자치구는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동대문구로 출산율이 덜 하락한 것에 반해 육아환경 서비스 수준이 낮아진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영유아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감소 속도가 더디어 육아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이 덜 줄어드는 자치구이지만 육아환경의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지역으로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는 출산율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육아환경 평가점수가 하락한 지역이며, 그 정도는 강서구가 가장 심하다. 또한, 모든 자치구의 육아환경 점

수가 낮아졌고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의 육아환경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육아 관련 환경개선 검토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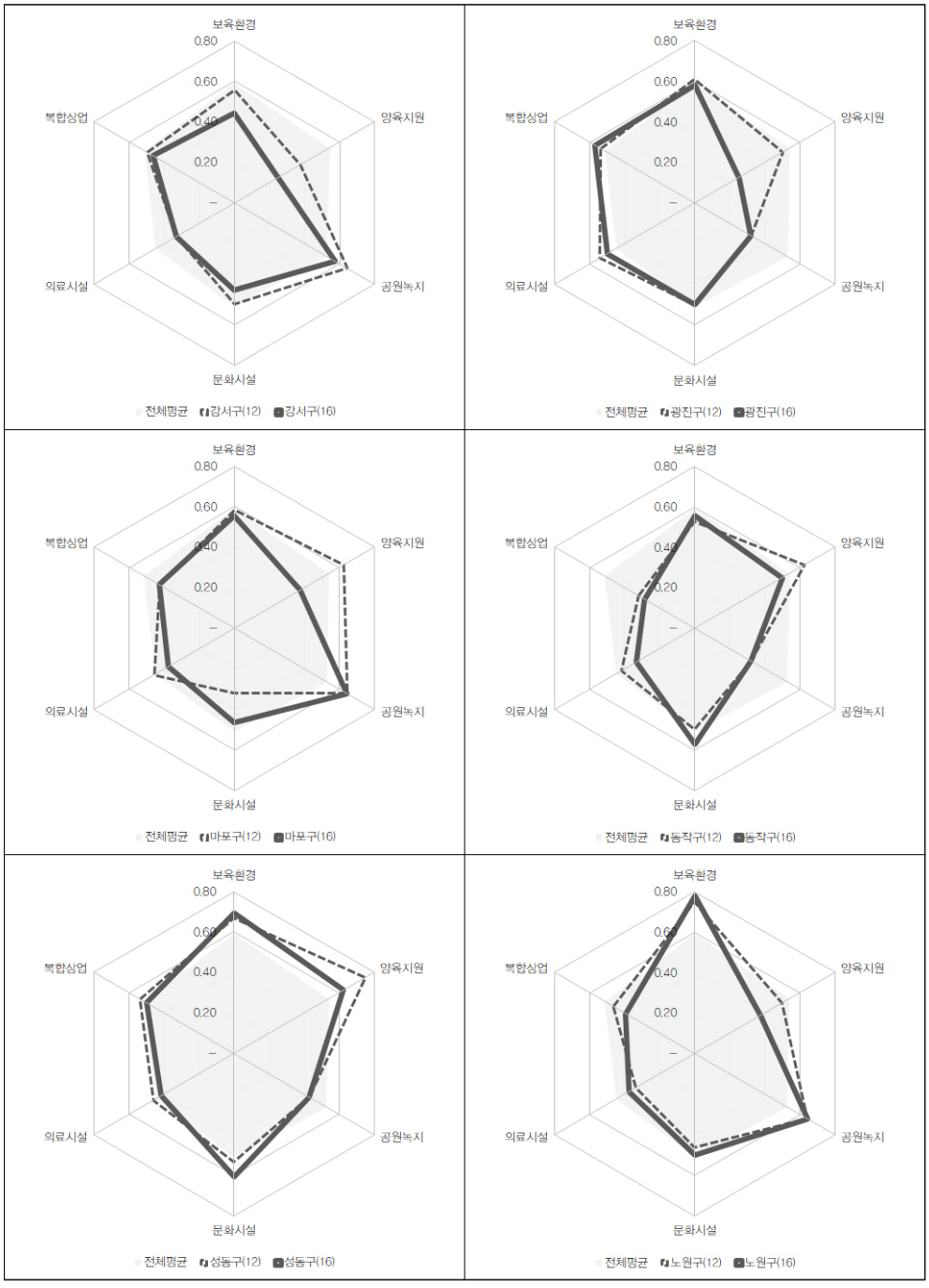
3그룹에 위치한 자치구는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구로구, 도봉구로 출산율과 육아환경 수준이 동반 하락한 지역이다. 2그룹에 비해 그 정도는 덜하지만 모든 지역의 육아환경 점수가 떨어졌으며, 출산율 급감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구로구는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높았으나 상위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용산구는 평균 이상에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추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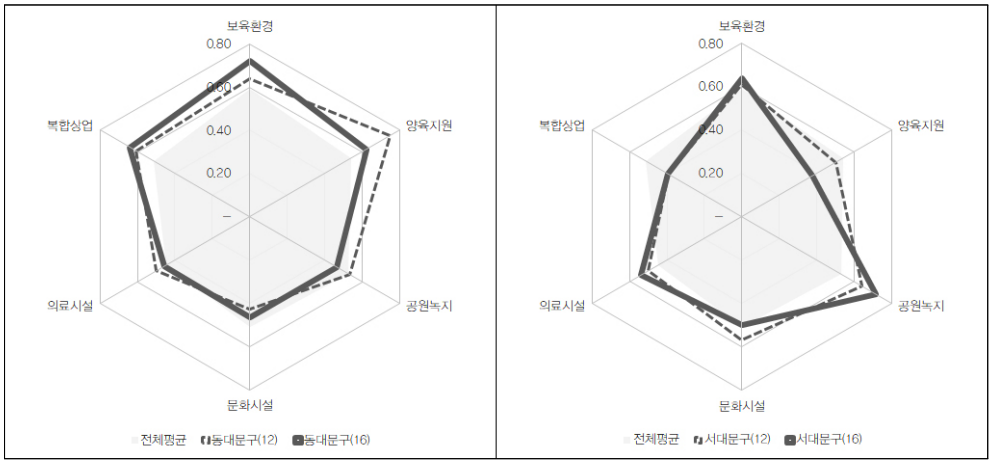
4그룹에 속하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성북구,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 중구, 은평구로 육아환경 수준이 높아졌지만,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지역이다. 모든 자치구의 육아환경이 향상되었으나,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 그룹이다. 은평구는 출산율이 가장 하락한 지역이며, 금천구, 강동구의 출산율은 평균 이상에서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그룹은 향상된 육아환경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나. 주요 자치구의 육아환경 변화 분석

육아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2그룹의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동작구를 중심으로 분야별 육아환경 평가점수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그룹은 모든 지역의 2012년 대비 2016년의 육아환경 점수가 하락한 지역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의 평가점수가 하락했는지 들여다봤다.

우선 육아환경 점수가 가장 하락한 강서구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육지원환경과 보육환경이 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락이 심한 광진구의 경우 양육지원환경, 보육환경, 의료시설환경 점수가 낮아졌으며 양육지원환경이 급격하게 떨어진 편이다. 다음으로는 평가점수가 하락한 지역은 마포구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육지원환경 점수가 낮아졌고 의료시설환경, 보육환경도 하락했다. 동작구는 양육지원환경과 의료환경이 하락했지만, 보육환경과 문화시설환경이 다소 증가했다. 성동구는 양육지원환경, 의료시설환경, 복합상업환경이 전체적으로 소량 감소했다. 노원구는 양육지원환경과 복합상업환경이 하락했고, 동대문구는 양육지원환경과 공원·녹지환경, 의료시설환경이 낮아졌다. 서대문구는 육아환경 점수 하락폭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양육지원시설과 문화시설환경 점수가 하락했지만, 보육환경, 공원·녹지환경, 의료시설환경이 다소 증가했다. 2그룹 안에서도 강서구의 육아환경 점수하락이 가장 심하고, 모든 지역의 양육지원환경 저하가 두드러졌다.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강서구(12)
강서구(16)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광진구(12)
광진구(16)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마포구(12)
마포구(16)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동작구(12)
동작구(16)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성동구(12)
성동구(16)
보육환경
0.80
0.60
0.40
0.20
양육지원
공원녹지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합상업
전체평균
노원구(12)
노원구(16)



〔그림 3〕 2그룹의 육아환경 변화 분석도(2012-2016년 기준)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크게 육아환경 평가지표 도출,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출산율과의 격자망 변화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 관련해서는 이주림과 구자훈(2013)이 제시한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원아수 대비 교원수, 유치원 학급수, 어린이집 종사자 수를 보완했다. 또한, 개소 수만 반영된 몇 개의 관련시설 지표는 면적이 포함되어 양적인 보완이 이뤄졌다. 공원·녹지환경분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추가하여 정확성을 높였고, 양육시설환경 분야에서는 시설의 운영 시스템 변화를 반영했다.

2012년 대비 2016년의 육아환경 평가점수 변화는 중구가 0.090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0.055점, 강북구가 0.052점, 영등포구가 0.044점, 은평구가 0.041점 순이며, 중구는 순위 유지, 강북구와 강동구의 순위는 6계단 상승했다. 반면에 강서구가 -0.069점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가 -0.047점, 마포구가 -0.036점, 도봉구가 -0.036점 순으로 감소했다. 순위 또한 강서구가 10계단 하락, 광진구와 마포구가 7계단, 도봉구가 6계단 하락했다.

향후 육아서비스 대상 인구 변화와 육아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출산율 변화와 육아환경 변화 관계를 분석했다. 육아환경 평균점수 증감, 출산율 감소폭 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분석을 진행했다. 1그룹은 육아환경이 향상되고 출산율이 덜 감소한 지역으로 양천구, 강남구, 중랑구, 종로구, 관악구가 여기에 속한다. 2그룹은 육아

환경 점수가 하락하고 출산율이 덜 감소한 지역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동대문구가 속한다. 3그룹은 육아환경 점수가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가 큰 지역으로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구로구, 도봉구가 해당한다. 4그룹은 육아환경 점수가 향상되고 출산율 감소폭이 큰 지역으로 영등포구, 성북구,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 중구, 은평구가 해당한다. 2그룹에 속하는 지역구는 육아환경 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출산율 감소폭이 적은 지역으로 관련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이주림과 구자훈(2013)의 연구에서는 동대문구(3위), 노원구(4위), 서대문구(6위)의 육아환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5년간의 육아환경 수준 변화와 영유아 인구 증감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위 3개는 구가 육아환경이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크며 영유아 인구 감소가 타 자치구보다 덜 줄어드는 추세로 육아환경 서비스 개선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육아환경은 해당 시점에서의 순위만이 중요한 요소이기보다는 변화 추세와 서비스 대상 인구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육아환경의 수준 변화의 추세와 영유아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육아환경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환경개선이 우선으로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육아환경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육아환경 관련 선행연구와 평가지표 선정과정에서 기술하였듯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환경, 문화환경, 상업환경 등 복합적인 생활인프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18년 조사결과[7] 국민의 93%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주거 안정 및 생활·일의 균형과 같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육관련 시설 및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육아환경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육아환경 증진 정책이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10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연합뉴스 2018. 12. 05).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육아환경 개선 여부가 출산율과 관련성이 낮다는 점은 지금 현실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적색 신호가 될만하다. 본 연구의 육아환경 변화와 출산율 변화의 그룹별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육아환경이 향상되어도 출산율 감소폭은 별개로 작동했다. 따라서 육아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 및 감소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고민과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로 육아환경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즉, 육아환경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 증감하고, 평가 대상들의 수준에 따라 증감되어 진다. 육아시설이 나쁘다는 것의 의미는 시설이 낙후되었다기보다는 이용자 수보다 시설이 부족하거나 타 자치구에 시설이 더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에 가까운 의미로 육아환경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이용자 수요와 타 지자체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반면 육아환경 수준의 모니터링은 상대적인 평가 이전에 절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육아환경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육아환경을 종단면적으로 변화를 파악하여 자치구별로 육아환경 수준의 증감을 분석했다는 데 있다. 본 연구결과의 예를 들면 강북구, 강동구의 2016년 육아환경 점수는 중위권에 속하지만 육아환경 점수는 상승하는 지역으로 긍정적이지만 도봉구는 같은 중위권으로 육아환경 수준이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순위만큼 왜 변화 특징 주목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육아환경을 상대적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로서 육아환경의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육아환경에서 시설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미시적 차원의 육아환경 평가 연구는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권미량·김성원(2012).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4), 141-161.

김혜금(20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지역사회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5-24.

서울특별시(2016).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연합뉴스(2018. 12. 5). 성인 93% "저출산정책, 출산장려→삶의질 제고 전환해야". https://yna.co.kr/view/AKR20181205120800017에서 2019년 4월 28일 인출함.

유재언·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5(3), 97-127.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이주림·구자훈(2015). AHP를 이용한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6(1), 137-147.

장명림·박수연·이재연·김영옥·안동현(2009).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정경숙(2008).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천현숙·정희남·김혜승·하수정·오민준(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I) -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0), 1-222.

통계청(2016),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행정안전부(2016),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홍승애·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홍승애·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Jenks, G. F. J. I. y. o. c(1967). The Data Model Concept in Statistical Mapping. 7, 186-190.

McMaster, R. J. C., & Systems, G. I(1997). In Memoriam: George F. Jenks(1916-1996). 24(1), 56-59.

North, M. A. (2009). A Method for Implemen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umber of Data Classes in the Jenks Algorithm. Paper presented at the 2009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and Knowledge Discovery.

Smith, R. M. (1986). Comparing Traditional Methods for Selecting Clas Intervals on Choropleth Map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8(1), 62-67.

• 논문접수 4월 5일 / 수정본 접수 5월 21일 / 게재 승인 8월 13일

• 교신저자: 이주림,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leejoolim@gmail.com

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Physical Environ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in Seoul Districts

Sungik Kang, Ah-leum Kim, and Joo-lim Le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sources for improvement of child care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physical environment in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or this purpose, firstl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related to child care environment were analyzed and evaluated in order to derive an evaluation index that can objectively compare changes in child care environment in the districts. Second, levels of child care environment of 25 districts were evaluated with the latest statistics data of Seoul. Third, this paper compared the past child care environment score with the recent score for each district,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environment changes considering the total fertility rate change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autonomous child care environment were presented.

It was found that child care environment improved in Jung-gu, Gangdong-gu, and Gangbuk-gu whereas child care environment worsened in Gangseo-gu, Gwangjin-gu and Mapo-gu. There were small declines in fertility rate and large declines of child care environment levels in Gangseo-gu, Gwangjin-gu, Mapo-gu, Dongjak-gu, Seongdong-gu, Nowon-gu, etc, which require more attention to improvement of child care environment.

Key words : child care environment, evaluation index, total fertility rate

한국아동패널 논문

|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 29

|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47

|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 73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 95

|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인과구조에 관한 연구 ····· 121

|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145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29~46 https://doi.org/10.5718/kcep.2019.13.2.29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김연하[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패널에 참여한 1,553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증상 궤적은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고, 어머니의 우울궤적에 따른 자녀의 정서통제 곤란 차이는 공변량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우울증상은 낮음(42.21%), 보통(47.71%), 높음(11.08%)의 세 궤적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들의 우울증상 궤적에 따른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통 또는 높음 집단 어머니들의 자녀는 낮음 집단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서통제 곤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만성적인 우울증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가정내 위험요인이며, 이를 예방하고, 위험군을 선별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편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머니 우울증상, 정서통제, 궤적, 초등 1학년

Ⅰ. 서론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가족 관계, 사회적 적응, 학업 성취, 직업 성취, 건강 유지 등 개인의 삶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최근 두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정서통제에 관여하는 두뇌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서통제는 전두엽이 관장하는 실행기능과 관련된 고차원적인 기능이다. 정서통제에 관여하는 두뇌의 기능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양상을 보이며(McRae et al., 2012), 여타 영역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Averill, 2015). 즉, 정

1)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서의 통제와 조절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정신 과정으로, 아동이 정서통제를 위한 성공적인 내적 메커니즘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최적의 조건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불 수 있다.

최근에는 정서의 조절 및 통제 곤란이 정신병리나 정신문제의 주요 증상 또는 핵심 기제로 밝혀지면서, 정신건강에 있어서 정서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인이 정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거나 표현하려면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Gross(1998)는 정서 조절의 과정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인간은 감정을 유발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면(situation selection),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상황을 변경시키거나(situation modification),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attentional deployment), 생각을 바꾸거나(cognitive change), 스스로의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을 조절(response modulation)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절된 정서는 그 강도, 지속시간, 빈도 및 유형이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성공적으로 부합해야 한다(Gross & Jazaieri, 2014). 정서나 행동의 표출을 자제하지 못한다거나(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오랜 동안 지속된다거나(예: 주요 우울증), 짜증, 화, 울분 같은 정서가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거나(예: 간헐적 폭발장애), 망상이나 환각과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정서가 표출되는 것(예: 조현병) 등은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부합하는 정서가 아닐 뿐 아니라 모두 정신 병리의 주요 진단기준에 해당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어린 시절 성공적으로 정서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발달시키는 것은 평생 동안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살펴보면, 우선 정서조절, 정서지능, 정서이해, 정서통제 등이 각자 조금씩 다른 개념적 정의 아래 연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정서와 다른 발달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거나, 아동의 정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최지경과 한유진(2013)은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차이를 연구하였는데, 학대아동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정서인식, 표현, 공감,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지연과 곽금주(2010)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은 아동의 언어 및 자조능력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영유아기 양육 태도 중 무관심, 애정, 통제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수진과 안진흥(2012)는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조절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이룬 학생들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며, 이 관계를 정서조절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동의 정서조절은 다른 발달영역의 능력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성격발달 및 사회적응에 꼭 필요하며, 그 예측 요인으로 생

애 초기 경험,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아동의 정서통제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 조명하고자 한다.

우울은 매우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울은 개인에 따라 그 증상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매우 다양한 질병이다. 불유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가벼운 기분저하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수주, 수년간 지속된다면 정신 장애의 범주에 해당한다.

우울,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이유는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울감은 기분저하 이외에도, 식욕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수면장애등의 인지적 신체적 증상도 동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거나,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실제로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하거나 아동의 행동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제영·이경숙·정유경·신의진, 2011; Esposito Manian, Truzzi, & Bornstein, 2017). 우울한 어머니-아동 간 손상된 상호작용이 생애 초기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건전한 모-자녀 애착의 형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 발달의 여러 영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우울은 또한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정신건강 문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정서행동문제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자녀의 정서표현이나 정서통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Bariola, Gullone & Hughes, 2011).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하여 청소년기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다섯 배 가까이 높으며(Murray et al., 2011), 여러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다(Goodman et al., 2011). 즉,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손상된 양육을 경험할 위험 뿐 아니라 정서행동 문제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기질적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ilk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발달양상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많은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탐색된 것이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외현화 또는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연하, 2018; 이소현, 2018). 그렇다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내적 기재인 정서통제는 어머니의 우울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앞서 밝혔듯이 성공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강도, 지속시간, 빈도 및 유형이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서가 외부로 표현되고, 이는 타인에 의해 아동이 외현적 또는 내현적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판단되기 쉽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 기저에는 정서 통제의 손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 충동성이 현재 문제행동 수준과 향후의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존재한다(Eisenberg et al., 2005).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 통제의 곤란은 향후 사회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예측하는 주요 전조 증상이다(Kim & Cicchetti, 2010). 만약 우울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아동기에 정서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영유아기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향후 우울을 비롯한 여러 정신 병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한 아동의 여러 문제적 행동을 규명하기 이전에,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정서 조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졌어야 한다. 최근 한 외국의 관찰연구에서 우울한 어머니의 영아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영아에 비하여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Granat Gadassi, Gilboa-Schechtman & Feldman,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아동의 정서조절을 주요하게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정서 조절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였거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그대로 내면화 하였거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불안감에 상시 노출 되었을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생애 초기 우울은 아동의 정서 통제능력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연하(2018) 연구의 후속으로서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이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서통제 곤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우울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우울증상은 앞서 밝히 바와 같이 그 심각도와 지속기간이 매우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아동의 발달을 모두 측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 우울증상의 만성성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영할 수 없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만성적이었는가에 따라 아동의 정서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을 심각성과 만성성에 따라 종단적으로 궤적화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을 떠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는 아동의 일생에서 중대한 전이시기로, 성공적인 유-초 전이는 향후 자존감 발달,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서의 통제는 아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맞이하여, 스트레스와 긴장을 극복하고,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과제를 완수해야한다. 이 시기야 말로 아동의 실행기능, 그 중에서도 정서 통제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영유아기와 학동기를 구분하는 시작점이고, 영유아기 동안 발달시켜온 정서통제 능력을 새로운 환경에서 실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점이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출산후 6년간 우울증상의 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들의 출산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Korean Study of Panel Children)에 참여한 1,553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 및 발달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 다단계표본 추출법을 통해 선발된, 2,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인 2014년도는 7차 조사가 이루어진 해로서 표본 유지율은 74.1% 이다. 본 연구는 2014년도에 유지된 표본들 중에서 어머니에 의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정서통제가 평정된 사례인 총 1,553명의 어머니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선별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8년 출산 당시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1.24세 이며,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비율이 약 70%였다. 2008년 당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약 314만원이었다. 출산 당시 아동의 평균체중은 3.254kg, 남아의 비율은 51%였다. 약 14%의 신생아가 출생 후 입원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n=1,553)

특성	궤적 유형			전체
	낮음	보통	높음	
	M(SD) 또는 %			
어머니 연령	31.18(3.611)	31.37(3.688)	30.87(3.991)	31.24(3.691)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28.4	28.5	41.5	29.9
2년제 대졸	29.0	31.7	30.5	30.5
4년제 대졸	37.1	34.2	24.4	34.3
대학원 이상	5.5	5.6	3.7	5.3
아동 성별(남)	51.9	49.5	54.1	51.0
출생시 체중(kg)	3.257(.406)	3.254(.431)	3.241(.376)	3.254(.415)
출생시 입원 또는 집중치료	14.1	14.6	10.4	14.0
가정 월수입	326.401 (143.840)	311.205 (143.495)	285.290 (119.834)	314.610 (141.685)
어머니 우울증상(초1)	8.731 (3.134)	11.861 (3.848)	16.169 (4.936)	11.048 (4.384)

2. 연구방법

가. 어머니의 우울증상

Kessler의 우울척도(Kessler et al., 2003)는 일반인들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다. Kessler의 척도는 “불안하셨습니까?”, “무기력하셨습니까?”,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의 총 6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혀 안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6문항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총 30점 만점이며, 13점 이하는 정상, 14점 이상이면 경도(moderate), 19점 이상이면 중도(severe) 우울증상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은 한글로 번안된 Kessler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고 있다.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출산 한 해에는 세 번 (출산 직후 병원조사, 출산 1개월 후 전화조사, 출산 4개월 후 이후부터 설문조사), 이후부터는 매해 한번 씩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산 한 해 세 번 포함 아동이 만 6세가 될 때까지 총 9번의 어머니의 우울증상 점수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심각도와 만성도에 따라 궤적으로 유형화 하였다. Kessler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차례 모두 .8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예: 출산 당시 .816, 아동 만 6세 당시 .918).

나.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실행기능 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현주(2014)의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를 성인보고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질문지는 총 4가지 하위요인(계획, 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정서통제에 해당하는 8문항으로 측정된 아동의 정서통제에 관한 정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등이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 (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정서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통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Fergusson, Lynskey & Horwood, 1993),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할 당시의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통제 곤란 8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는 .892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Mplus를 활용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통해 첫 출산 후 6년간 총 9번에 걸쳐 측정된 어머니의 우울증상의 궤적을 유형화 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우울증상 궤적에 따라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서 통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SPSS 21.0을 이용하여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증상 또는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과 관련이 추정되는 연구대상자 특성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출산 당시 어머니의 연령, 교육 수준(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졸이상=4) 및 가족의 월수입과 아동의 성별, 출산 당시 체중, 입원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여부,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 통제를 측정할 당시의 우울증상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출산후 6년간 우울궤적

어머니들을 출산 후 6년간의 우울증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총 9차에 걸쳐 측정된 우울증상 점수를 활용하여 3에서 5개의 1차형(linear) 혹은 2차형(quadratic) 궤적으로 모형화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판단을 위한 지표로는 Entropy(1에 가까울수록),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BIC)(작을수록), probabilities of group membership (최소한 .70이상)을 근거로 하였다(Jung & Wickrama, 2008). 또한 분류된 궤적이 얼마나 상호 독립적이며 설명력이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각 분석에서 도출된 추정평균과 집단평균의 그래프도 활용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궤적 모형의 Entropy가 4개 혹은 5개 궤적 모형의 Entropy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하였다. 3개 궤적 모형 중에서 1차형의 BIC보다 2차형의 BIC가 더 작았고, 그래프 확인 결과 3개 궤적의 형태가 모두 독립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2차형 궤적으로 어머니들의 우울증상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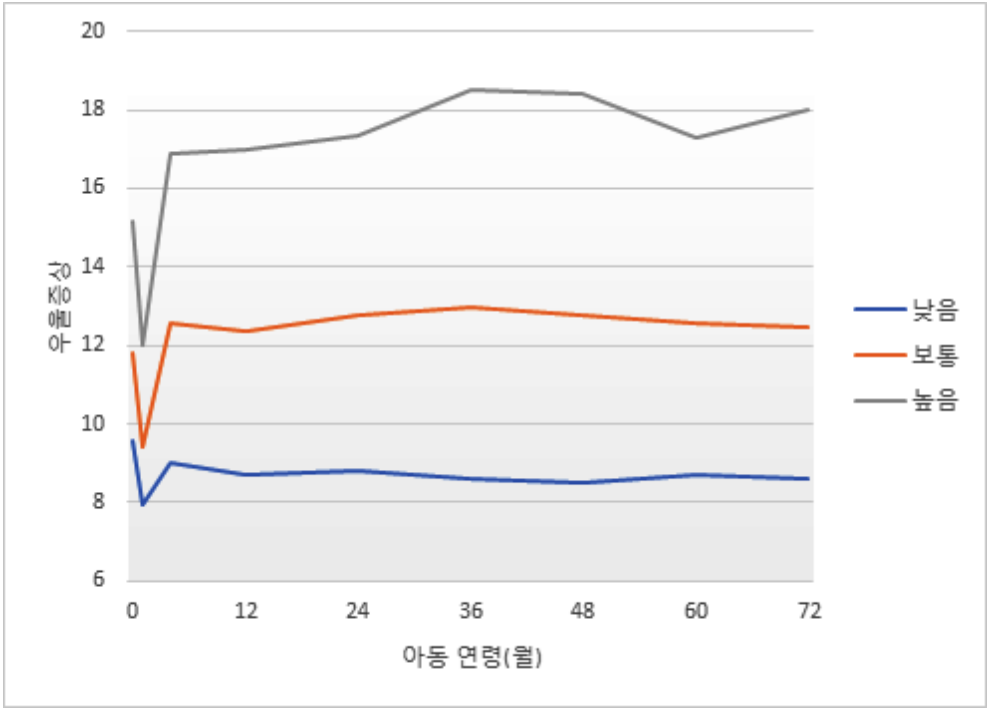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출산 후 6년간의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도에 따라 낮음, 보통, 높음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낮음 집단에 해당하는 어머니는 전체의 약 40%로서, 약 8점 점도의 낮은 우울증상을 6년간 일관성 있게 보고하였다. 보통 집단에 해당하는 어머니는 약 48%로 경도 우울의 기준이 되는 14점에 근접하는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높음 집단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전체의 약 11%이며, 경도 우울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중도 우울의 기준이 되는 19점에 근접하는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표 2〉 어머니 우울궤적을 분석을 위한 분석 지표

궤적의 수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BIC)	Entropy	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 of group membership range
3	1차형	70412.635	.806	.900 - . 933
	2차형	70280.978	.809	.908 - . 921
4	1차형	70211.205	.753	.835 - .921
	2차형	70075.857	.759	.840 - .929
5	1차형	70087.929	.754	.727 - .912
	2차형	69962.493	.761	.750 - .903

〈표 3〉 3개의 궤적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의 출산후 6년간 우울증상: 집단 (추정) 평균

아동연령 (월)	낮은 증상 N=640, 41.21%	보통 N=741, 47.71%	높음 N=172, 11.08%
0	9.579(8.968)	11.821(11.416)	15.155(14.847)
1	7.937(8.953)	9.42179(11.490)	11.996(14.999)
4	9.003(8.909)	12.55337(11.701)	16.8816(15.434)
12	8.697(8.807)	12.35040(12.185)	16.993(16.453)
24	8.7927(8.690)	12.79622(12.702)	17.362(17.589)
36	8.560(8.617)	12.96942(12.966)	18.511(18.255)
48	8.520(8.587)	12.76921(12.979)	18.409 (18.452)
60	8.708(8.601)	12.56522(12.740)	17.307 (18.180)
72	8.610(8.658)	12.45199(12.249)	18.011(17.438)



〔그림 1〕 어머니의 출산후 6년간 우울궤적

2.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궤적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어머니의 우울 궤적에 따른 아동의 정서통제를 살펴보기 위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의 정서통제에 대한 어머니 우울증상 궤적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1377) = 5.086$, $p = .01$; $\eta p2 = .007$, $p = .01$). 즉, 모든 통제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더라도, 어머니의 우울증상 궤적에 따른 아동의 정서통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을 통해 평균차를 비교하였을 때〈표 5〉, 낮음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하여, 보통이나 높음 집단 어머니의 자녀들이 정서통제에 곤란을 더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어머니의 출산후 6년간 우울궤적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변수	정서 통제 곤란	
	Partial $\eta 2$	
어머니 연령	.002	$F(2, 1377)=5.086^{**}$
어머니 교육수준	.002	
아동성별	.006**	
아동 출생 시 체중	.003	
출생 시 입원이나 집중치료여부	.001	
가정 월평균 소득	.000	
정서통제 평정당시(초1) 어머니의 우울증상	.036***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궤적	.007**	

$^{**}p < 0.01$, $^{***}p < 0.001$

〈표 5〉 어머니의 우울궤적 유형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추정평균과 사후검증

정서통제 곤란	우울 궤적			집단차이
	낮음(a)	보통(b)	높음(c)	
M	10.842	11.336	11.763	a<b*, a<c*
SE	0.121	0.139	0.273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궤적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 1,55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증상 궤적은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해 종단적으로 분석하였고, 어머니의 종단적 우울궤적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차이는 공변량 분석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통제된 공변량은 출산당시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아동의 성별, 출생당시 체중, 출생당시 입원치료 및 집중치료 여부,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을 평정할 당시의 우울증상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낮음(42.21%), 보통(47.71%), 높음(11.08%)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낮음 집단의 어머니들은 출산 후 6년간 거의 우울증상이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의 자녀는 영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집단의 어머니들은 경도우울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울증상을 출산 후 6년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영유아기 동안 경증에 근접하는 약한 수준의 어머니의 우울 증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높음 집단의 어머니들은 경도 우울기준을 훨씬 상회하며, 때로는 중도 우울기준에 근접하는 심각한 증상을 출산 후 6년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 어머니들은 가장 우려가 되는 집단으로서, 어머니의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도 영유아기 동안 상당한 수준의 어머니 우울증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류된 우울증상의 세 집단 분류는 같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첫 출산한 어머니들만(n=965)을 추출하여 다섯 집단으로 우울증상 궤적을 분류한 김연하(2018)의 연구나, 역시 같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출산 후 4년 동안의 우울궤적을 다섯 집단으로 분류한 Kim(2017)의 연구(n=1964)와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우울증상 궤적의 양상이나 수는 연구대상의 선별 기준이나 종단 연구의 기간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그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기간이 다양하며,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출산 후 경도이상의 우울증상에 시달리고 있음을 공통적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우리나라 아동들의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선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머니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상은 통념과는 달리 산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산전, 혹은 임신 전부터 그 전조증상이 있기 쉽고, 자녀의 출산과 함께 심해지거나 재발하기도 한다(Koutra et al., 2018). 심각한 우울증상은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정신 병리이지만,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증은 간접 피해자인 어린 아동의 발달에 심오한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선별과 적극적인 예방적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들의 우울 증상의 궤적에 따른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은 차이가 있었다. 보통 또는 높음 집단 어머니들의 자녀는 낮음 집단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해 정서통제 곤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과도하게 문제시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Fergusson et al., 1993)에 의거하여, 자녀의 정서통제 곤란을 평정할 당시 어머니의 우울 증상과 연구 대상자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다만 보통 집단과 높음 집단 어머니들 자녀 간 정서통제 곤란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우울증상을 보인 어머니들의 자녀도 증상이 없는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해 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보였다는 기존의 보고와도 일치한다(Brennan et al., 2000). 즉, 우울한 어머니를 둔 아동을 위한 중재를 계획할 때에는, 어머니들의 우울에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가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도 이상의 어머니 우울증상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중재 및 발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가 예측한 대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하여 정서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만성적 우울증상으로 손상된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에게는 외상적 경험으로 작용하여(Bick & Nelson, 2016), 적절한 실행기능 및 정서통제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한 우울한 어머니로부터 정서통제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또는 이 둘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을 단순한 감정과잉, 일시적인 짜증, 기분변화로 파악하고 이를 일회성 주의, 훈계, 상담 등으로 다루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정서통제 곤란이 아동기에 관찰된다면, 이를 실행기능과 관련된 신경발달학적 이상(Visser Rommelse, Greven & Buitelaar, 2016)이나 정신 병리적 문제의 전조증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Tseng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처치보다는 증거에 기반 한 체계적 중재가 적합한 맥락 안에서 투입되어야 한다(Taylor, Oberle, Durlak, & Weissberg, 2017).

종합하면, 취학 전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또래에 비하여 정서통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 정서통제

는 학교 적응 뿐 아니라 향후 사회관계, 직업적 성취, 건강관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주요 인지적 역량(McClelland & Cameron, 2018)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노출됨으로서 정서통제 곤란을 겪는 아동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위험군에 대한 선별과 중재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아동의 발달적 역량을 동시에 측정한 것에 비하여,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만성성과 심각성에 따라 집단화하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흔히 연관지어온 아동의 문제행동 대신 문제행동의 기저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는 정서통제 곤란을 종속 변인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상존하는 가정 내 아동발달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을 세우는데 근거가 될 법한 실증적 자료를 도출하였다. 단, 주요 변수의 측정이 어머니의 보고에 의존되어 있으며,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에 어머니의 손상된 양육행동과 아동의 생물학적 기질적 원인이 각각 차지하는 변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개변인 혹은 조절변인이 파악된다면, 어머니와 아동을 위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중보건 정책의 하나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상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갱신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은 이러한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흔히 산후 우울증으로 알려진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상은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니며, 그 증상과 원인 역시 출산과 함께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대중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 사실 출산과 관련된 우울은 어머니의 기존의 정신문제, 임신 전, 임신 중 우울증상, 환경적 맥락에 따라 그 발생 가능성과 예후가 다를 뿐 아니라, 중재방법 또한 달라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Gelaye Rondon, Araya & Williams, 2016; Van der Waerden et al, 2015). 실제로 통념과는 달리,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출산 이후에도 수년간

경도 혹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우울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증상을 간과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음으로 인해 치료나 중재의 기회를 잃는 어머니와 자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우리나라 아동들의 가정 내 발달적 위험요인으로 주목하고 이를 선별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성인의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아동 건강의 간접피해에 대한 인식은 매우 확고한 반면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 특히 영유아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음주나 흡연을 줄이고 이로 인한 타인의 간접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아동 발달에 2차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무료로 우울증 검사를 해주고는 있으나, 심각한 우울증상을 겪는 어머니들은 사실 스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제도 아래 영유아 예방접종 및 검진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영유아발달선별검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를 개발하고 이를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모든 영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정기적으로 발달선별검사를 받게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출산 직후, 혹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가 포함된다면,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연하(2018). 어머니의 첫 출산후 6 년간 우울 궤적과만 6 세첫 자녀의 문제행동. Korean J Child Stud, 39(6), 101-111.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121-137.

이소현(2018).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2), 117-127.

이제영·이경숙·정유경·신의진(2011). 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와 6-8 개월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아동학회지, 32(3), 203-220.

이지연·곽금주(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임수진·안진홍(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5.

최지경·한유진(2013).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49-6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Averill, J. R. (2015). Emotion and anxiety: Sociocultural,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In Emotions and Anxiety (PLE: Emotion) (pp. 99-142). Psychology Press.

Bariola, E., Gullone, E., & Hughes, E. K. (2011). Child and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ex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2), 198.

Bick, J., & Nelson, C. A. (2016). Early adverse experiences and the developing brain. Neuropsychopharmacology, 41(1), 177.

Brennan, P. A., Hammen, C., Andersen, M. J., Bor, W., Najman, J. M., & Williams, G. M. (2000). Chronicity, sever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s with child outcomes at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59.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

Esposito, G., Manian, N., Truzzi, A., & Bornstein, M. H. (2017). Response to infant cry in clinically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PLoS ONE, 12(1), e0169066 doi:10.1371/journal.pone.0169066.

Fergusson, D. M., Lynskey, M. T., & Horwood, L. J. (1993).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on maternal rating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3), 245-269.

Gelaye, B., Rondon, M. B., Araya, R., & Williams, M. A. (2016). Epidemiology of maternal depression, risk factors, and child outcomes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The Lancet Psychiatry, 3*(10), 973-982.

Goodman, S. H., Rouse, M. H., Connell, A. M., Broth, M. R., Hall, C. M., & Heyward, D. (2011).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1), 1-27.

Granat, A., Gadassi, R., Gilboa-Schechtman, E., & Feldman, R. (2017).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ynchrony, and infant regula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Emotion, 17*(1), 11-27.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237. doi:10.1037//0022-3514.74.1.224

Gross, J. J., & Jazaieri, H. (2014).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An affective science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4), 387-401.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Kessler, R. C., Barker, P. R., Colpe, L. J., Epstein, J. F., Gfroerer, J. C., Hiripi, E., ... & Zaslavsky, A. M. (2003). Screening for serious mental ill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2), 184-189.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Kim, Y. H. (2017).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at four years of age: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Child Indicators Research, 10(4), 1061-1078. doi: 10.1007/s12187-016-9417-8

Koutra, K., Vassilaki, M., Georgiou, V., Koutis, A., Bitsios, P., Kogevinas, M., & Chatzi, L. (2018). Pregnancy, perinatal and postpartum complications as determinants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Rhea mother–child cohort in Crete, Greece.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7(3), 244-255.

McClelland, M. M., & Cameron, C. E. (2018). Developing together: The role of executive function and motor skills in children's early academic liv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McRae, K., Gross, J. J., Weber, J., Robertson, E. R., Sokol-Hessner, P., Ray, R. D., ... & Ochsner, K. N. (2012).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 fMRI study of cognitive reappraisal i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7(1), 11-22.

Murray, L., Arteche, A., Fearon, P., Halligan, S., Goodyer, I., & Cooper, P. (2011).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offspring up to 16 years of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0(5), 460-470.

Silk, J. S., Shaw, D. S., Skuban, E. M., Oland, A. A., & Kovacs, M. (2006).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offspring of childhood-onset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 69-78.

Taylor, R. D., Oberle, E., Durlak, J. A., & Weissberg, R. P. (2017).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follow-up effects. Child development, 88(4), 1156-1171.

Tseng, W. L., Guyer, A. E., Briggs-Gowan, M. J., Axelson, D., Birmaher, B., Egger, H. L., ... & Leibenluft, E. (2015). Behavior and emotion modulation deficits in preschoolers at risk for bipolar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32(5), 325-334.

Visser, J. C., Rommelse, N. N., Greven, C. U., & Buitelaar, J. K. (2016).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early childhood: a review of unique and shared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65, 229-263.

Van der Waerden, J., Galéra, C., Saurel-Cubizolles, M. J., Sutter-Dallay, A. L., Melchior, M., & EDEN Mother–Child Cohort Study Group. (2015). Predictors of persistent maternal depression trajectories in early childhood: results from the EDEN mother–child cohort study in France. *Psychological Medicine, 45*(9), 1999-2012.

• 논문접수: 7월 22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김연하,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yeonhakim@khu.ac.kr

Abstract

Maternal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from Birth to 6 Years and Children's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at First Grade

Yeon Ha Kim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ajectories of maternal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from childbirth to 6 yearsand to examine differences of children's emotional controlling difficulties at first grade by the trajector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53 mothers and children, which is a subset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were analysed using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emotional controlling difficulties by trajectories were examined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Mothers were classified into Low(42.21%), Moderate(47.71%), and High(11.08%) groups based on their severity and chronicity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from child birth to 6 years.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of children's emotional controlling difficulties at first grade by maternal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Children of mothers in Moderate and High groups displayed more emotional controlling difficulties at first grade than children of mothers in Low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others' chronic depressive symptoms should be understood as an developmental risk factor for young children. For mother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children, relevant prevention, screening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Keyword: maternal depression, emotional control, trajectory, first grade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47~71 https://doi.org/10.5718/kcep.2019.13.2.47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1] 김춘경[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9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지만 여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아에 비해 여아의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며 무한한 경쟁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주제어: 부모의 교육열,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다집단 분석

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관심과 기대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모가

* 본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8.11.23.)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자녀에게 보이는 기대와 관심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과 정서적 측면, 지적발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 확대, 교육수요의 증가 등은 자녀의 가치로운 삶에 대한 부모의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는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교육열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열은 학생 자신이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라기보다 자녀의 성공 혹은 출세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벌을 얻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열망을 의미한다(심미옥, 2017).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높은 학업성적과 성취를 부모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직업, 그리고 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교육에 대한 부모 열망의 증가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정상 수준을 넘어선 학력 및 학벌을 쟁취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연령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강요하게 된다. 통계청(2019)에서 조사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82.5%, 중학교 69.6%, 고등학교 58.5%, 일반고 65.2%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초등학생이 6.5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부모의 교육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입시위주의 교육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자녀의 인성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등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열이 대부분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참여가 수동적임을 보여주었다. 나윤경과 태희원, 장윤자(2007)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계획에 침묵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성적을 점검하는 평가자로만 개입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의 이유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지은과 이주아, 정혜민, 최나야(201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양육에 대한 참여가 아동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아버지의 교육열 또한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기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기에는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희은·문수백, 2011). 이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정신적인 욕구가 강한 발달단계에 있는 과정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통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의 훈련은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측면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중요하다(이순아·임선아, 2019).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되어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태영·심혜숙, 2011). 즉,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정윤·이경아, 2004).

하지만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성을 통제하게 되면 아동은 또래관계 및 학업수행,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Barger, Kim, Kuncel, & Pomerantz, 2019). 이유경(2016)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능력과 학업 및 진학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과잉양육을 하게 되어 아동의 학교적응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윤소정과 김진욱(2016)은 초등학교 이전 시기의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과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의 경험이 자녀의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교육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김종운·최미숙, 2011; 김홍석·심혜숙, 2009; 이수연·황혜정, 2014; 차종천·오병돈, 2012; Anderson & Minke, 2007)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모의 기대를 파악함에 있어 협소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뿐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발달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은진(2015)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이내 자녀를 또래들과 비교하는 행위가 청소년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권지영(2016)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무리한 학업적 요구를 받게 되는 자녀의 경우, 역할 갈등에 빠지게 되어 이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비행이나 공격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재화와 외현화

를 각각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염정원·조한익, 2016). 아동기는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경험을 기초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태상, 2013).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처럼 증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아 쉽게 간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중재가 없으면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을 초래하며(우유라·노충래, 2014),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경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결과변수이자 학교적응의 원인변수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교육열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과잉된 교육열은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수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게 되고, 무기력함과 이탈적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이후 정서적·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혜선(2012)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진경과 김혜연(2013)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와 자신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신의 건강한 발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경남·김정미, 2019).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며, 아동기 이후 학교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유·아동기에는 여아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이는 학습준비능력에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조경진·안선희, 2015).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준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성별에 따른 각 영역별 발달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체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이수현·황혜정, 2014). 이에 부모들은 초등학교에 진학 이후 여아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남아에게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려 하고 높은 교육열 수준을 보이게 된다. 박찬호와 황명환(2019)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준거와 타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게 되는데(Magro, Utesch, Dreiskämper, & Wagner, 2019), 가정이나 학교, 미디어 등에서 여아에게는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최진아·성지현, 2018)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제희선과 이강훈(2019)의 연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동기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김은설(201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이되면서 적응능력이 남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여아의 경우 학교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지영과 양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의 발달 속도가 빨라 학교적응에서 여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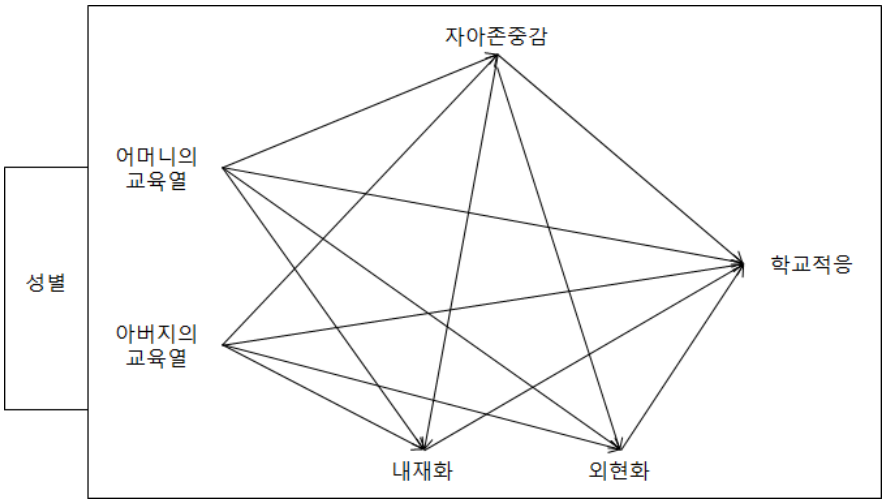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김준호·김은경, 1995).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여학생들의 문제행동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장연심·조아미, 2007), 전체적인 문제행동의 비율에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행동을 정서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비행, 공격성, 일탈 등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여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백승영·이승희, 2014)

종합하자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부모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를 보이며, 여아는 남아보다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각 집단 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평균분석은 관측변수들 간의측정오차를 고려한 잠재변수 간의 평균비교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경로계수의 크기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9차년도(2016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9차(2016)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026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9살)에 재학 중인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남아 533명(51.9%), 여아 493명(48.1%)으로 총 1,0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교육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열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현주와 이재분, 이혜영(2003)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교육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정보수집, 교육 분위기 제공,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보노력,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화(1992)의 교육열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직접적 교육열(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과 간접적 교육열(정보수집, 교육 분위기 제공,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보노력, 건강관리)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계수는 어머니 .752(직접적 교육열: .701, 간접적 교육열: .689), 아버지 .818(직접적 교육열: .795, 간접적 교육열: .746)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RSE(Rosenberg's Self-Esteem Scal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고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Hau와 Marsh(2004)에 따르면 측정문항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에 대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자존감1과 자존감2라는 2개의 꾸러미변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51(자존감1: .714, 자존감2: .703)로 나타났다.

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Goodman(1997)이 개발한 강점/난점(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강점/난점 척도의 하위요인은 내재화(정서증상, 또래문제), 외현화(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은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7번, 11번, 14번, 21번, 25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내재화 .782, 외현화 .852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ki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68(학교생활적응 .957, 학업수행적응 .939, 또래적응 .920, 교사적응 .81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전체값과 하위요인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s α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 값이다(강병서·김계수, 2013).

둘째,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o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 Babin, Anderson(2006)이 추천한 TLI와 C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셋째, 아동의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검증하고, 주요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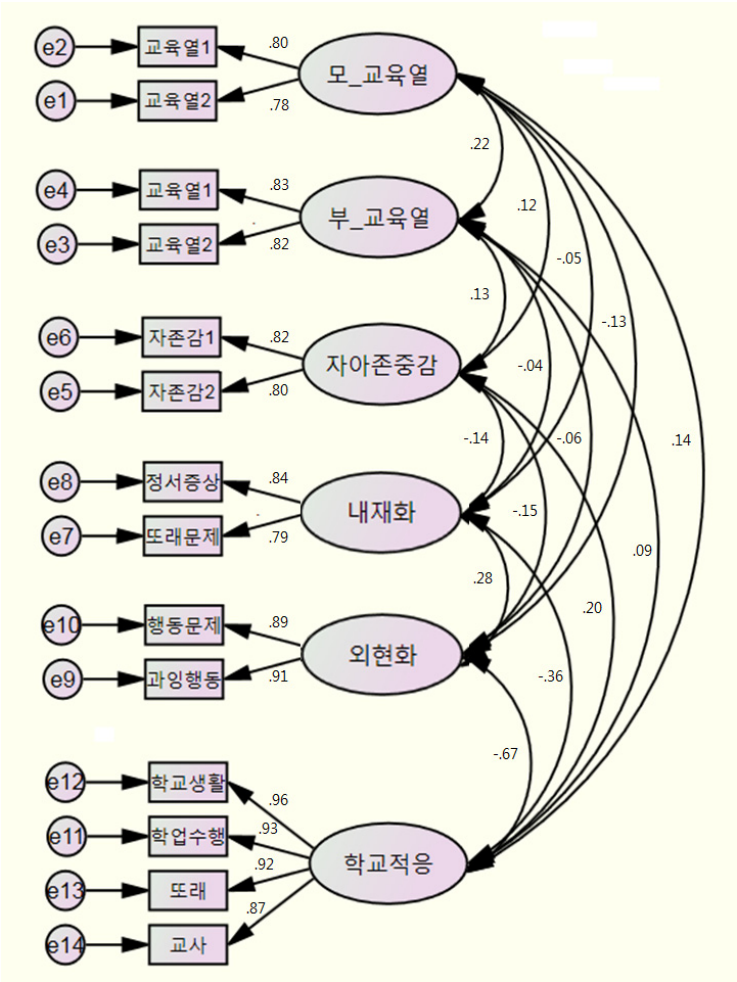
넷째,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920, CFI=.948, RMSEA=.062로 나타나 이

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이면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이상은 되어야 수렴타당도가 존재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2. 아동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60.592	118	.910	.941	.049
모형2: 측정동일성	370.485	126	.915	.941	.048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422.921	134	.905	.930	.051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456.660	140	.902	.924	.052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적재치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므로[χ^2 (*df* =8)= 19.893, $p < .05$],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와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측정동일성을 가한 모델이 형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에 비해 지수가 나빠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델은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으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모형3은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으로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triangle\chi^2$ (*df* =8)=52.436, $p < .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델 또한 성립되었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효과크기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

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므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모형4의 적합도를 모형3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triangle\chi^2$ (df=6)= 33.739, p〈.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요인분산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4의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모델이 성립되어 효과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d) 기준에 따르면 .2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남아와 여아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에 대한 아동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모형	남아	여아	p	효과크기(d)
모_교육열	0	.041	.078	-
부_교육열	0	-.056	.039	-.417
자아존중감	0	.137	.001	1.281
내재화 문제	0	-.027	.157	-
외현화 문제	0	-.344	.001	-1.782
학교적응	0	.632	.001	.916

그 결과, 여아 집단은 남아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Cohen의 효과크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은 중간 수준의 평균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의 차이검증에서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를 제외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χ^2 (df=58) = 139.015, TLI = .963, CFI = .976, RMSEA = .04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수			남아	여아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91(.213)*	.164(.191)*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57(.232)*	-.062(-.156)*
자아존중감	→	외현화	-.141(-.226)*	-.107(-.23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053(-.022)	.019(.009)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216(.092)*	.265(.114)*
외현화	→	학교적응	-3.459(-.826)*	-4.169(-.831)*

*p 〈 .05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며,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델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χ^2(df=6)=25.032, TLI=.937, CFI=.960].

〈표 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χ^2	△df	△χ^2	△TLI	△CFI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76.856	1	.001	.002	.000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93.940	1	17.085*	-.003	-.00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181.753	1	4.901*	-.001	.000
자아존중감	→	외현화	177.534	1	0.679	.001	.000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176.858	1	.003	.002	.000
외현화	→	학교적응	181.115	1	4.260*	.001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01.887	6	25.032*	-.004	-.002

*p 〈 .05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경로[$\chi^2(df=1)=17.085$, $p<.05$]와 아버지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chi^2(df=1)=4.901$, $p<.05$],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chi^2(df=1)=4.260$, $p<.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경로 중 〈표 4〉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경로는 아버지의 교육열에서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와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게 나타나 학교적응도 더 잘 한다는 유복귀희(2003)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며, 아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교육을 시키게 한다는 David와 Ball, Davies, Reay(2003)의 연구결과, 아동의 외현

화 문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Karreman와 Van Tuijl, Van Aken, Deković(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Tremblay(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정서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있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화능력이 향상되어 학교 내에서도 적응을 남아보다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진영과 권혜진(2010)의 연구결과에서 이전 세대 부자간의 관계가 다음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과거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아들 위주의 생활과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아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력과 명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요구는 학력이 일자리 채용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아들에게 더 높은 학력을 가지도록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고, 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조혜미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점과 독립성이 낮은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아에게 보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였을지라도 최근에는 자녀의 수가 많지 않아 성별 구분 없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학업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 간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일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친밀함의 표현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열은 대부분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직접 측정한 것으로 자녀에 대한 자신의 교육열을 적절한 수준으로 체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내재화 문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아동의 발달미숙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성별이라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아동기라는 발달적 특성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특성 상 부모와의 관

계를 중요시 하는 시기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는 아동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열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과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적응과 연관되고, 낮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Ybrandt와 Armelius(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지식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Coopersmith, 1981).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제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 입학한 만 8세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eiley와 Bates, Dodge, Pettit(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으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외현화 문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나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게 되면, 다투기를 잘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박성연(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들의 높은 학업적 성취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아들의 현재 학습상황이나 능력,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의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과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여아의 경우 양연숙과 길경숙(2009)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아버지가 유사한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에 관여를 하였더라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더욱 낮게 지각함으로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들과 딸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는 최경희와 신동희, 이향연(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아에게는 적당한 관심과 기대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남아에게는 지나친 기대와 억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부담감 등이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해 남아의 과잉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문제로 삼는 빈도가 적은 반면, 여아의 경우 여자는 활동성이 낮은 놀이를 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행동통제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허정경(2017)의 연구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이더라도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많이 나타나면서 학교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경우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통해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집단에 따라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영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둘째, 기존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전 아동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다루는데 있어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고조화되어 가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석(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직접 측정하였는데, 권재기와 정미경(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실제 교육적 기대보다 이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이 측정한 부모의 교육열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하나의 전체 값으로 살펴보았는데, 적절한 교육열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마리아(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를 통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교육열과 간접적 교육열이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교육열이 아동의 발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Cooper와 Christie(2005)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높은 교육

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은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와 가정, 학교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열된 교육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으뜸(2017)의 연구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부모님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아동기에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애정과 관심이라고 느꼈더라도 교육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가 성장해가면서 이를 부정적인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는 어머니가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교육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며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정신적·정서적·지적·신체적인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자녀가 위치한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태도와 대화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집단 분석을 통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현화 문제가 적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사회가 점점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역할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Deaux(1994)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평등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외현화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현화 행동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병서·김계수(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권재기·정미경(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 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권지영(2016). 청소년이 지가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36, 375-394.

김마리아(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117-139.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김으뜸(2017). 전환기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 19-34.

김은진(2015). 부모의 학업비교가 청소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등감, 우울,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357-381.

김종운·최미숙(2011). 중,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의 관계. 상담학연구, 12(5), 1645-1661.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 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김진경·김혜연(2013).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1(2), 173-186.

김홍석·심혜숙(2009). 자기조절학습과 부모학습관여형태에 따른 전환기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상담학연구, 10(4), 2321-2333.

나윤경·태희원·정인자(2007). 자녀사교육을 통한 모성구성과정: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문수백(2010). 연구방법의 실제, 학지사.

박경남·김정미(2019). 부모지지와 자아요인, 정서조절,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595-616.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박지은·이주아·정혜민·최나야(2018).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에 따른 양육행동이 취학 전후 남녀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5), 67-79.

박찬호·황명환(2019). 부모의 학업관여, 그린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67-97.

백승영·이승희(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임상위험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208-232.

심미옥(2017). 교육열 이해를 위한 어머니 감정자본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7, 99-134.

염정원·조한익(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양연숙·길경숙(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성취동기와 성차에 관한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 197-220.

우유라·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소정·김진욱(2016).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98.

이기석(2014).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학부모 교육열행동 특성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1(1), 21-42.

이수현·황혜정(2014). 유아의 성과 주변 환경 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학습관여, 교사의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77-203.

이순아·임선아(2019).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21-233.

이유경(2016).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일에 있어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비교검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388.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이태상(2013).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345-360.

이태영·심혜숙(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이희은·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장연심·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 123-136.

제희선·이강훈(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별, 연령, 기질,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4), 31-60.

조경진,·안선희(2015).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29-239.

조혜미·김성실·임혜경·한성현·송미라·손부순(2007).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위생학회지, 22(1), 67-74.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차종천·오병돈(2012). 교육열망과 학습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417-441.

채진영·권혜진(2010).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9-196.

최경일(2012).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보효요인의 매개효과.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14(3), 170-189.

최경희·신동희·이향연(2009). 과학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현황과 해결 방안. 여성학논집, 25, 117-158.

최지영·양현주(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최진아·성지현(2018).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또래배제의 맥락과 놀이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19-138.

통계청(2019).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허정경(2017). 조부모부양가족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 279-287.

현주·이재분·이혜영(2003). 한국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혜선(2012).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on, K. J., & Minke, K. M. (2007).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parents'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0(5), 311-323.

Barger, M. M., Kim, E. M., Kuncel, N. R., & Pomerantz, E. M. (2019).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5(9), 855-890.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Cooper, C. W., & Christie, C. A. (2005). Evaluating Parent Empowerment: A Look at the Potential of Social Justice Evaluation in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107(10), 2248-2274.

Coopersmith, S. (1981). SEI, Self-Esteem Inventories.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David, M. E., Ball, S. J., Davies, J., & Reay, D. (2003). Gender issues in parental involvement in student choices of higher education. Gender and Education, 15(1), 21-36.

Deaux, K. (1994). The Lenses of Gender: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Book). Psychological Inquiry, 5(1), 80-96.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New Jersey.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c, M. (2009). Predicting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Interactions among effortful control, parenting, and child gender. Merrill-Palmer Quarterly, 55(2), 111-134.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Magro, S. W., Utesch, T., Dreiskämper, D., & Wagner, J. (2019). Self-esteem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Support for sociometer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3(2), 118-127.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61-62.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Ybrandt, H., & Armelius, K. (2010). Peer aggress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Self-esteem as a mediator.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2), 146-163.

• 논문접수: 7월 24일 / 수정본 접수 8월 28일 / 게재 승인 9월 18일

• 교신저자: 김춘경,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yung@knu.ac.kr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Parents' Educational Enthusiasm, Children's Self-esteem,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how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affect school adjustment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to children's gender. The data of this study is PSKC's 9th data by 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self-esteem, 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Second,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and externalized problem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In the modern society where infinite competition is required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quickly, it i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s of the parents' high educational enthusiasm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have differe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 The findings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counseling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

Key words: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Internalized/ externalized problem,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73~93 https://doi.org/10.5718/kcep.2019.13.2.73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정[1)]

요 약

본 연구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잠재계층을 구분하고, 교사-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203명의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다중회귀분석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3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44.8%)", "중간 수준 집단(46.3%)", "낮은 수준 집단(8.9%)"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협력, 주장, 자기통제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지도 감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교사-유아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잠재계층분석

Ⅰ. 서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하게 성장한 유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나라의 성장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 중 한 명은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유아가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이로서 부모를 제외하고 유아들과 가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장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성인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양육자, 교수자 및 조력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박은혜, 2011). 이때 교사가 어떻게 유아와 상호작용을 해 주고 개입해 주느냐에 따라서 유아의 인지, 언어, 창의성, 정서 및 행동 등 발달의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박진희·손수연, 2016; 성지현, 2012; 이기숙·박경자·김영옥, 2007; Murray, Murray, & Waas, 2008; Sutherland, Conroy, Algina et al., 2018). 예를 들어, Cadima, Leal과 Burchinal(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아동의 상호작용의 질과 포르투갈 학생 1학년 106명의 학업 및 적응적 행동 결과를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은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 질 높은 교사-아동 상호작용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yva, Weiland, Barata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만 4세 칠레 유아 1,868명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언어, 학업, 수행능력(executive function skills)이 차이가 있었다. 차영숙, 최미미와 서영숙(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 인지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유아 또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림과 박창현(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여러 발달 산물과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기 이후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학교 적응이나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유능감과도 연관성이 있다(길현주·김수영, 2014; 단현국, 2011; 심숙영·임선아, 2018; 이진숙, 2002; 정지나·김경희, 2015; Cugmas, 2003; Mohamed, 2018; O'Connor, Dearing, & Collins, 2011). 이와 관련하여 Ewing과 Taylor(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친밀한 교사-아동 관계와 낮은 수준의 교사-아동의 갈등 관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와 Nurmi(2012)의 연구에서는 118명의 중국 유아를 2년간 종단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사와 유아의 친밀하고 낮은 갈등 관계가 유아의 첫 유치원 시기 말에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가 두 번째 유치원 시기 말에 부모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Lokken, Broekhuizen, Barnes 등(2018)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의 3세 영아를 대상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질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3세 시기의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5세 시기의 자아통제 능력에 적은 수준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미진(2013)의 연구에서도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3명의 유아를 조사한 결과, 교사가 지각하고 있는 교사-유아 관계에서 갈등, 친밀감, 의존 지각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인 정서 조절, 정서성, 또래 관계 기술, 사회적 규범 이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Hu, Fan, Wu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59개의 유치원에서 589명의 중국 유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기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백지숙과 권은주(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의 1,203명의 유아를 분석한 결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유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아직까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여러 발달 산물과의 영향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본 집단에 속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인지, 정서 및 행동, 사회적 유능감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es) 방식이 대부분이었다(Hu, Fan, LoCasale-Crouch et al., 2016). 이는 변수와 변수 간의 평균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기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해당 변수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기에 개개인의 응답 패턴을 고려하지 못하며, 한 개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집단에 속했는지 분석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변수중심적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분석을 한 대상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es) 방식이다.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추정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관심을 두는 방식(Ferguson, & Hull, 2018)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수준이 어떻게 개인 내에서 다양하게 통합되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상 중심적 접근 방식 중에서도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식은 변수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개인 간의 응답 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잠재계층으로 구성된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게 한다(Wang & Hanges,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Hu, Fan, LoCasale-Crouch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치원에 근무하는 18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4개 유형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Hu, Chen and Fan(2018)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164명 교사

를 대상으로 정서적지지, 교실 구조화, 교수적 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외부의 관찰과 교사 자신이 평가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4개 유형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은 교사의 학력, 경력 등 교사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예진과 신유림(2014)이 교사 20여명과 유아 194명을 만 3세에서 4세까지 6개월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교사-유아 관계를 조사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3세 1학기에 '높은 갈등' 집단에 속한 유아와 '낮은 갈등' 집단에 속하는 유아의 대다수가 2학기에는 '높은 친밀·의존' 집단으로, 다시 만 4세 시기에는 '낮은 의존' 집단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후속연구로 이예진과 신유림(2016)은 잠재계층분석으로 구분한 3개의 잠재 집단과 또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와 높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유아들의 경우, 또래와의 놀이에서 방해 행동을 하거나, 놀이를 단절시키는 모습을 유의하게 적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의 연구에서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잠재유형을 구분하였고, 이 잠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아닌 보다 큰 범주에 해당하는 교사-유아 관계를 단기-종단적으로 잠재계층분석하고, 구분된 잠재 유형과 또래 관계 만을 살펴보았을 뿐 적응에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술이나 유능감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만일 유아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살펴보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길러주기 위해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 요인, 가구 요인, 교사 요인이 통제 변수로 사용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2)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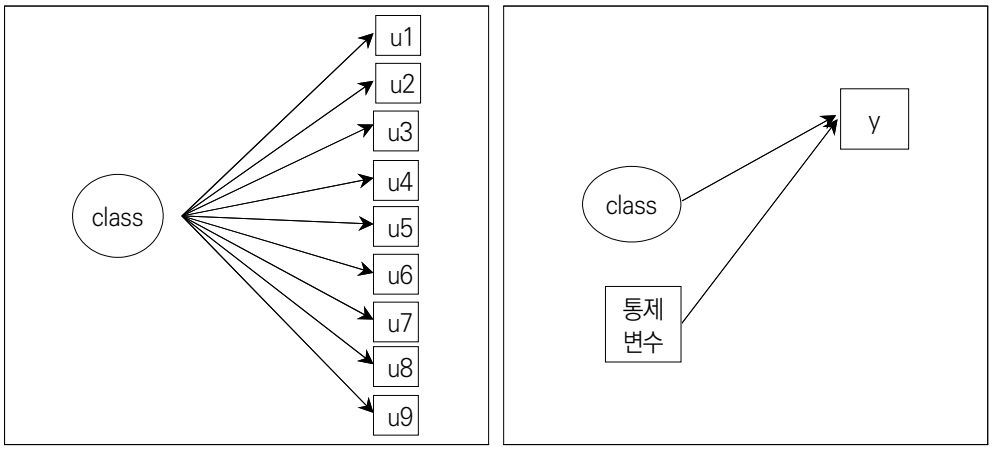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육아지원정책, 학교, 지역사회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078명의 가구를 1차년도에 조사하여 11차년도(2018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현재 10차년도까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아가 취학 전에 해당하는 7차년도(2014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참여 가구는 7차년도 1,620가구였으나 교사 한명이 해당 유아 1명을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결측치를 제외한 각각 1,203명의 교사와 유아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태어나 조사가 진행되는 2014년 7월-11월에 만 6세 나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만 5세반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 5세반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었다.

2. 연구모형



u: 교사-유아 상호작용
1단계 : 잠재계층분석

y: 사회적 유능감
2단계 : 결과 변수 포함

〔그림 1〕 연구 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독립변수: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2015)에서는 Bredekamp(한국아동패널, 2015, 재인용)의 ECOI를 일부 수정한 Holloway and Reichhart-Erickson(한국아동패널, 2015, 재인용)의 문항을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6번 문항("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교사-유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α = .92(만 6세)이었다.

나. 종속변수: 사회적 유능감

한국아동패널(2016)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 and Elliott(한국아동패널, 2016, 재인용)의 도구를 서미옥(한국아동패널, 2016, 재인용)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 및 수정하고,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총 21문항으로 주장성 5문항(예; 친구를 쉽게 사귄다), 협력성 9문항(예;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자기통제 7문항(예; 또래에게 놀림을 당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3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Cronbach's α = .82(주장성), .89(협력성), .85(자기통제)이었다.

다.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백지숙·권은주, 2017; Mohamed, 2018; Zhang & Nurmi, 2012)에 근거하여 통제 변수로 유아, 가구, 교사 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유아 요인은 성별

(남=0, 여=1), 월령, 가구 요인은 부모 학력(전문대졸 미만=0, 전문대졸 이상=1), 부모 자녀 상호작용, 빈곤 유무(아니오=0,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1)가 포함되었다. 이때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총 9문항으로서 4점 Likert 척도(전혀 하지 않음=1점, 매일함=4점)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α = . 83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요인은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전문대졸 미만=0, 전문대졸 이상=1) 등이 포함되었다. 교사 경력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경력만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분을 위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9문항 모두가 연속변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상태를 최적으로 설명하는 잠재적 하위유형을 설명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n Test)값, Entropy 값 등을 근거로 전체 표본 내의 잠재적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집단 수를 확인하였다(김세원·이봉주, 2010). AIC와 BIC는 그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며, LMRT가 유의미한 경우는 k-1개 모형보다 k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k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집단의 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plus는 무작위의 결치의 경우,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문항에 결측치가 없어 이 추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와 통제 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왜도	첨도
			빈도(백분율)					
독립변수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상호작용	4.27	.50	2	5	-.39	-.22
		교사-유아상호작용1	4.33	.67	2	5	-.52	-.66
		교사-유아상호작용2	4.13	.69	2	5	-.39	-.07
		교사-유아상호작용3	4.17	.69	2	5	-.35	-.39
		교사-유아상호작용4	4.24	.67	2	5	-.44	-.31
		교사-유아상호작용5	4.21	.66	2	5	-.35	-.38
		교사-유아상호작용6	4.23	.68	2	5	-.41	-.42
		교사-유아상호작용7	4.43	.63	2	5	-.68	-.31
		교사-유아상호작용8	4.30	.64	2	5	-.45	-.33
		교사-유아상호작용9	4.36	.65	2	5	-.60	-.18
종속변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2.53	.36	1	3	-.84	.26
		협력성	2.66	.39	1	3	-1.23	.95
		주장성	2.47	.44	1	3	-.73	-.04
		자기통제성	2.40	.44	1	3	-.57	-.21
통제변수	유아요인	유아 성별	남 622(51.7)				여 581(48.3)	
		유아 월령	75.10	1.46	72	79	.28	-.20
	가구요인	부모 학력	전문대졸 미만 229(19.1)			전문대졸 이상 972(80.9)		
		부모-자녀 상호작용	2.27	.51	1	4	.61	.83
		가구 빈곤	빈곤 무 1168(97.1)			빈곤 유 35(2.9)		
	교사요인	교사 연령	32.20	7.86	20	55	.87	-.21
		교사 경력	98.69	80.12	1	394	1.54	2.07
		교사 학력	전문대졸 미만 130(10.8)			전문대졸 이상 1,073(89.2)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해당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은 4.33점(*SD*=.50)으로 최대값이 5점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의 전체 평균도 2.53점(*SD*=.36)으로 최대값이 3점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협력성의 평균은 2.66점(*SD*=.36), 주장성은 2.47점(*SD*=.44), 자기통제성은 2.40점(*SD*=.44)이었다. 잠재계층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왜도가 절대값 3 미만, 첨도가 절대값 10 미만으로 정규분포 가정(Kline, 2010)을 만족시켰다.

2.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잠재계층확인 및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 유형 집단의 수를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잡재 집단 모델을 확인하는 탐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AIC와 BIC, Entropy 값, LMRT p값을 근거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일반적으로 AIC, B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좋은 것이며, LMRT 값이 유의미하고 Entropy 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이상적으로 더 나은 것이므로 모형의 잠재계층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Jung & Wickrama, 2008).

〈표 2〉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잠재집단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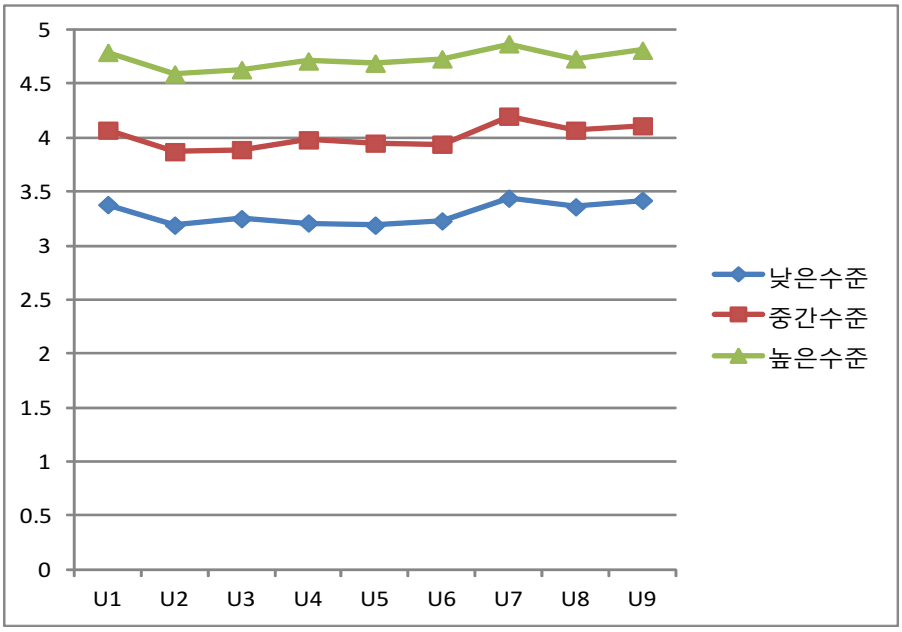
(*N*=1,203)

Class	AIC	BIC	Entropy	LMRT p값
1	21151.136	21288.635	-	-
2	17290.517	17570.608	0.91	p = .000
3	16378.646	16801.330	0.91	p = .000
4	15914.997	16480.273	0.87	p = .000
5	15681.621	16389.489	0.86	p = .751

〈표 2〉에서와 같이 AIC와 BIC의 값은 집단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LMRT의 결과는 2집단에서 4집단까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반면, 5집단 모형은 유의하지 않아 4집단에서 5집단으로 늘렸을 때 모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집단의 수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4집단은 0.87, 3집단은 0.91로 3집단 모형이 1에 더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3집단과 4집단 모형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의 그래프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4집단의 3유형과 4유형의 그래프가 겹쳐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AIC와 BIC값, Entropy 값, LMRT p값의 유의성,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해 3집단 모형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의 분석은 3집단 모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각 집단 크기는 44.8%(539명 = 1유형), 46.3%(557명 = 2유형), 8.9%(107명 = 3유형)으로 나타났다.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3개의 잠재집단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그래프와 평균값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x 축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9문항을 나타내고, y 축은 각 항목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먼저, 1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가장 높아 '높은 수준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집단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1집단에 비해 낮고, 3집단에 비해 약간 높으므로 '중간 수준 집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가장 낮으므로 '낮은 수준 집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주 : U1=애정/신뢰를 가지고 상호작용, U2=민감/능동적으로 반응, U3=다정/자상한 태도로 대화, U4=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 격려, U5=긍정적 지도방법 사용, U6=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환경 마련 U7=아이의 친사회적 행동 격려, U8=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 기대, U9=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 기대

[그림 2]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잠재 유형

〈표 3〉 잠재집단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균 결과

	낮은 수준 집단 (*N*=107)		중간 수준 집단 (*N*=557)		높은 수준 집단 (*N*=53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유아상호작용1	3.38	.61	4.07	.52	4.79	.43
교사-유아상호작용2	3.19	.52	3.87	.48	4.59	.55
교사-유아상호작용3	3.25	.53	3.89	.50	4.63	.53
교사-유아상호작용4	3.21	.58	3.98	.43	4.71	.50
교사-유아상호작용5	3.19	.50	3.95	.42	4.69	.48
교사-유아상호작용6	3.23	.58	3.94	.43	4.73	.48
교사-유아상호작용7	3.44	.59	4.20	.48	4.87	.36
교사-유아상호작용8	3.36	.60	4.07	.44	4.73	.49
교사-유아상호작용9	3.42	.62	4.11	.45	4.81	.45

3.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별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인 협력, 주장, 자기통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낮은 수준 집단 (3집단)	중간 수준 집단 (2집단)	높은 수준 집단 (1집단)	*F*	*Scheffé*
	M(SD)	*M(SD)*	*M(SD)*		
협력	2.50(.35)	2.62(.40)	2.73(.44)	22.42***	1>2*>3*
주장	2.28(.49)	2.45(.46)	2.54(.41)	17.07***	1>2*>3*
자기통제	2.26(.43)	2.35(.45)	2.49(.42)	19.29***	1>2*

*$p < .05$, ***$p < .001$

이를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 "중간 수준 집단", "낮은 수준 집단"을 가변수로 만들고, 통제 변수를 투입한 후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5〉). 투입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 본 *VIF* 계수는 모두 3.4이하(1.00-3.3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협력		주장		자기통제	
	B	*β*	*B*	*β*	*B*	*β*
높은 수준 집단	.25	.32***	.28	.32***	.25	.28***
중간 수준 집단	.13	.17**	.19	.22***	.11	.13*
유아 성별(여=1)	.18	.23***	-.03	-.02	.14	.16***
유아 월령	.01	.05	.01	.04	.01	.02
부모 학력 (전문대졸 이상=1)	.08	.08**	-.06	-.04	-.01	-.01
부모-자녀 상호작용	.02	.03	.04	.05	.05	0.5
가구 빈곤 (빈곤 유=1)	.00	.01	.05	.02	-.04	-.02
교사 연령	-.00	-.07	-.00	-.07	-.01	-.09
교사 경력	.00	.06	.00	.03	.00	.09
교사 학력 (전문대졸 이상=1)	.02	.02	.04	.03	.04	.03
Constant	1.45		1.23		1.74	
F	13.31***		4.95***		8.57***	
Adj.R²	.10		.03		.06	

*p 〈 .05, **p 〈 .01, ***p 〈 .001, 기준변수=낮은 수준 집단.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인 협력을 종속 변수로 보았을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협력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부모 학력이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부모를 가진 유아가 전문대졸 미만 부모를 가진 유아에 비해 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인 주장을 종속 변수로 보았을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주장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자기 주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통제를 종속 변수로 보았을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자기통제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자기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자기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기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을 구분하고, 통제 변수를 투입한 후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 “중간 수준 집단”, “낮은 수준 집단”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높은 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되며, 전체 교사 중에서 44.8%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중간 수준 집단”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은 수준 집단”에 비해 낮고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높은 유형으로, 교사의 46.3%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낮은 수준 집단”은 다른 2개의 유형에 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전체 교사의 8.9%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이는 이예진과 신유림(2016)의 연구가 교사-유아 관계를 친밀, 갈등, 의존 영역을 중심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수준 유지’, ‘중간 수준 유지’, ‘낮은 수준 유지’ 등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의 3개 유형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3개 유형의 그래프가 비교적 일관적이게 나타난 것과 달리, 이예진과 신유림(2016)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다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연구의 조사 문항이 다르며, 이예진과 신유림(2016)의 연구가 6개월간 차이를 두고 3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단적으로 교사-유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인한 차이라 추측 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8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잠재계층 분석을 사용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Hu, Fan, LoCasale-Crouch et al.(2016)의 연구나 16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Hu, Chen and Fan(201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Hu, Fan, LoCasale-Crouch et al.(2016)이나 Hu, Chen and Fan(2018)의 연구가 정서적 지지, 교실 구조화, 교수적 지지를 묻는 The Classroom Scoring Assessment System(The CLASS; Pianta, La Paro & Hamre, 2008)을 사용하여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으며, 특히 Hu, Chen and Fan (2018)의 연구의 경우, 교사 자신이 평가한 유아-교사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외부 관찰자의 평가도 포함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유아의 협력, 주장, 자기통제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성이나 사회적 유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기존 선행 연구 결과(이기숙·박경자·김영옥, 2007; Burchinal, 2018; Pianta & Stuhlman, 2004)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교사와 유아의 친밀하고 낮은 갈등 관계가 첫 유치원 시기 말에 유치원에서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가 두 번째 유치원 시기 말에 가정에서 부모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Zhang and Nurmi(2012)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지각하고 있는 교사-유아 관계에서 갈등, 친밀감, 의존 지각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김미진(201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교사의 수용적, 반응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 요소인 정서조절, 정서성, 또래관계기술, 사회적 규범 이해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길현주와 김수영(201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이 인지적 기술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Hu, Fan, Wu et al.(2017)의 연구결과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백지숙과 권은주(20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Hu, Fan, Wu et al.(2017)의 주장과 같이 중국의 교사들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보다는 인지나 언어 능력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일 수 있으며, 백지숙과 권은주(2017)의 연구의 경우, 함께 분석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이나 또래-유

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변수중심적 연구로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한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처음 대상중심적 접근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집단 내의 상이한 유형을 밝히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과 같이 특정 잠재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군집분석방법으로 692명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집단을 구분한 후 구분된 5개의 집단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장 상위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집단이 유치원 시기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Curby, LoCasale-Crouch, Konold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집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잠재계층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이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협력, 주장, 자기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유아의 협력, 주장,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여 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수준을 달리한 차별적인 내용으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른 집단

에 비해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교사들과 낮은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 그룹 멘토링을 실시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본 연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문항 내용과 같이 애정/신뢰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기, 민감/능동적으로 반응하기, 다정/자상한 태도로 대화하기, 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 격려하기, 긍정적 지도 방법 사용하기,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환경 마련하기,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 격려하기,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 기대하기, 의견을 나눔으로 문제해결하기 등에 관하여 회기별로 구분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각 회기마다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교사 자신이 교실에서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소그룹 토의를 통해 나누게 하고, 반성적인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교사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원장, 원감 등에게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수준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원감 등에게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이들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및 보육 시간에 교사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교사들을 지도하고 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장, 원감 등은 교사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나 교사의 소진 등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교사의 자기 응답식 문항으로 살펴보았기에 교사의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훈련된 관찰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교실에서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나 수업 시간 등 다양한 상황속에서 살펴 보고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중심적 방식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에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요인, 유아 요인, 교사 요인, 기관 요인 등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이는데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감 변수가 7차년도 자료에만 포함되었기에 횡단 연구 설계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 인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 변수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수집한 후 재분석을 하는 등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료해 질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길현주·김수영(2014). 교사의 수용적, 반응적 태도 및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3(2), 39-52.

김미진(2013).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137-163.

김상림·박창현(2017).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 가정환경 및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유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7(1), 111-128.

김세원·이봉주(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전환기동안 아동의 학대경험과 비행 행동에 대한 잠재계층 간 관계. 아동과 권리, 14(3), 327-353.

단현국(2011). 교사-유아 관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유능성. 한국유아교육연구, 13(2), 5-33.

박은혜(2011).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백지숙·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박진희·손수연(2016). 보호요인으로서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6(2), 169-191.

성지현(2012). 유아의 연령과 놀이 영역에 따른 유아-보육교사 상호작용과 유아 언어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229-253.

심숙영·임선아(2018).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1), 319-339.

이기숙·박경자·김영옥(2007). 보육교사의 질적 특성과 유아의 인지·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육아정책연구, 1(1), 143-168.

이예진·신유림(2014). 잠재 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4(5), 187-205.

이예진·신유림(2016). 유아-교사 관계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Family and Enviroment Research, 54*(3), 321-332.

이진숙(2002).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1(2), 123-134.

정지나·김경희(2015).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4(5), 617-625.

차영숙·최미미·서영숙(2015).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교실환경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0(1), 95-117.

한국아동패널(2015). 한국아동패널 도구프로파일: 교사-유아 상호작용.http://panel.kicce.re.kr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한국아동패널(2016). 한국아동패널 도구프로파일: 사회적 유능감.http://panel.kicce.re.kr에서 2019년 4월 6일 인출.

Burchinal, M. (2018). Measuring early care and education qual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1), 3-9.

Cadima, J., Leal, T., & Burchinal, M. (2010). The quality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s: Associations with first graders' academic and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6), 457-482.

Curby, T. W., LoCasale-Crouch, J., Konold, T. R., Pianta, R. C., Howes, C., Burchinal, M., & Barbarin, O. (2009). The relations of observed pre-k classroom quality profiles to children's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2), 346-372.

Cugmas, Z. (2003). Soci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different types of attachment toward their kindergarten teachers. *Studia Psychologica, 45*(4), 323-338.

Ewing, A. R., & Taylor, A. R. (2009). The role of child gender and child ethnicity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 92-105.

Ferguson, S. L., & Hull, D. M. (2018). Personality profi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o model personality typolo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2,* 177-183.

Hu, B. Y., Chen, L., & Fan, X. (2018). Profiles of teacher-child interaction quality

in preschool classrooms and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e features. *Educational Psychology, 38*(3), 264-285.

Hu, B. Y., Fan, X., LoCasale-Crouch, J., Chen, L., & Yang, N. (2016). Profiles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Chinese kindergarten classrooms and the associated teacher and program featur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7*, 58-68.

Hu, B. Y., Fan, X., Wu, Z., LoCasale-Crouch, J. Yang, N., & Jhang, J. (2017). Teac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skills in Chinese preschool classroo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9*, 78-86.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Leyva, D., Weiland, C., Barata, M. C., Yoshikawa, H., Snow, C., Treviño, E., & Rolla, A. (2015).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Chil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rekindergarten outcomes. *Child Development, 86*(3), 781-799.

Lokken, I., Broekhuizen, M., Barnes, J., Moser, T. & Bjørnestad, E. (2018) Interaction quality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Norwegian ECEC.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7*(2), 338-361.

Mohamed, A. H. H. (2018). Gender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in preschool.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8*(12), 1711-1725.

Murray, C., Murray, K. M., & Waas, G. A. (2008). Child and teacher repor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oncordance of perspectives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in urban kindergarten classroo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9-61.

O'Connor, E., Dearing, E., & Collins, B. A. (2011).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8*(1), 120-162.

Pianta, R. C., La Paro, K. M., & Hamre, B. K. (2008). *The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Manual, pre-K.* Baltimore, MD: Brookes.

Pianta, R. C., & Stuhlman, M. W. (2004).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uccess in the first years of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3(3), 444-458.

Sutherland, K. S., Conroy, M. A., Algina, J., Ladwig, C., Jessee, G., & Gyure, M. (2018). Reducing child problem behaviors and improving teacher-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BEST in CLA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2*(1), 31-43.

Wang, M., & Hanges, P. J. (2011). Latent class procedures: Applications to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1), 24-31.

Zhang, X., & Nurmi, J.-E. (201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Chinese preschool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125-135.

•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김수정,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s-jkim98@daum.net

Abstract

The Influence of Teacher-Child Interaction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 A Latent Class Analysis

Kim Soo Jung

The study aimed to identify patterns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o investigate how different patterns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influence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7th year Korean Children Panel Study(KCPS), including 1,203 teachers and children of preschool.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model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child interaction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groups: High Levels Group(44.8%) ; Middle Levels Group(46.3%) ; Low Levels Group (8.9%). Second,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age, 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poverty, teacher age, teaching experience, and teacher education level indicated that teachers in the High Levels Group and Middle Levels Group reported higher social competence(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than teachers in the Low Levels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teacher-child interaction, development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supervision of teacher-child interaction were need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eacher-child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latent class analysis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95~119 https://doi.org/10.5718/kcep.2019.13.2.9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한혜림[1] 이지민[2]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중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API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아내와 남편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을 미친 모든 경로는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은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부 스스로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Ⅰ.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정의, 가치관, 가족형태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가족은 부부

1)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2)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상호작용 등 부부 관계에 대한 질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즉 현대사회의 부부는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가정의 분위기나 정서 등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부들은 결혼 생활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성장해온 배경, 양육 및 가사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함으로써 심한 경우에는 별거나 이혼을 통해 가족 해체를 선택하고 있다(나남숙·이인수, 2017).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점 혼인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혼율도 함께 감소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이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8).

특히 이혼율은 결혼 후 4년~9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발달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자녀 양육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유계숙, 2003). 해당 시기는 학령기 전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하여 부부 간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부가 해당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해당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평등한 역할분배 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만약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부부 간의 갈등, 위기, 이혼 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최초의 시기이자 부부 갈등의 시발점인 시기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결혼만족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나남숙·이인수, 2017; Rehman, Janssen, & Newhouse et al., 2011). 이러한 낮은 결혼만족도는 별거,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부부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Friedman & Martian, 2011). 그러므로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Lavner, Karney & Bradbury,

2016; Rehman et al., 2011).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느끼게 되는 행복감, 만족감, 애정에 대한 주관적인 정도를 의미한다(노성향, 2018).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부부 개인의 심리·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현대 가족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임희수, 2013). 이러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역할을 수정해 나가야하므로 무엇보다 부부 간의 심리·정서적인 교류, 의사소통 등과 같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경미, 2009; 허은경·김영희, 2016; Korja, Piha, & Otava et al., 2016).

부부 상호작용은 부부가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역할을 평등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의 환경,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가족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어려운 일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서로 소통하며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허은경,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이나 가사 일을 부부가 함께 수행하지 않고 부인이 대부분 감당하는 경우, 남편에 비해 아내가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높은 생활 스트레스와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나타냈다(김경미, 2009). 한편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았다. 양육이나 가사 일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자녀 양육이나 가사 문제에 대한 아내와의 소통에 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결혼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향, 2018; 연은모·최효식, 2015). 이렇듯 부부는 어느 대상보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부부 간의 역할 융통성과 서로 간의 응집성, 즉 부부 상호작용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나남숙·이인수, 2017). 즉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상호작용이 낮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 불안,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결혼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 중 한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를 이어주는 변인이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변인인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회윤·조유현, 2015; 허은경·김영희, 2016). 매개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가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부부가 함께 논의하며 수행하므로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불안이나 좌절 등은 낮아지는 반면, 양육에 관한 효능감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있어서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로모서의 자신감,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만족감도 높여주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미, 2009; Korja et al., 2016). 즉 부부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 중에서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 일에 대해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부부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는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진·장은미, 2018; 허은경·김영희, 2016). 반면에 부부들 중 전반적인 가정의 일에 대한 역할에 유연성이 없고 부부 간의 응집성이 낮은 부부들은 양육에 있어서 낮은 자신감과 우울감, 불안감 등을 보이며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낮은 양육효능감은 부부 관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효능감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내 또는 남편의 개별적인 효과에 초점을 둠으로써 아내와 남편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부는 타인과 맺는 관계들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아내 혹은 남편은 상대방의 전반적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중요한 영향을 내왕하는 특성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에는 특정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 각각의 영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상대방의 영향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특히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므로 부부 각각의 인식보다는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서로 어떤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부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 영향이 결혼만족도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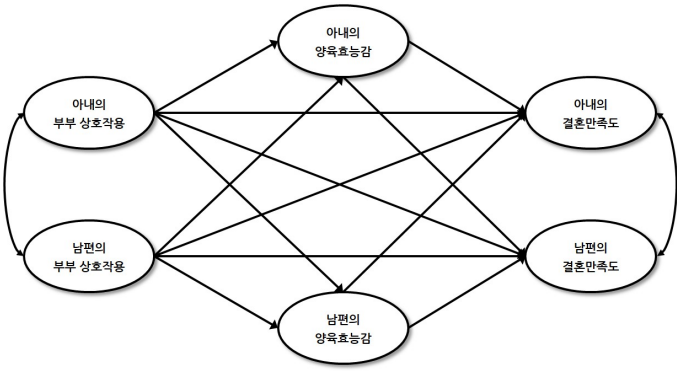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해 부부 각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아내와 남편 간에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부 교육, 부부 상담, 가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중 7차년도(2014)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시기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만6세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시기는 학동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유아기로, 자

녀 양육에 대한 혼란을 겪으며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때이므로, 해당 시기의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인 7차년도 패널을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활용하기 위해 완전제거 방식(listwise)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총 1468쌍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결혼만족도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 Chung(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의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으로는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이 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내 α=.933, 남편 α=.930으로 나타났다.

나. 부부 상호작용

아내와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Rivero, Martinez-Pampliega 그리고 Olson(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의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Ⅳ(FACES Ⅳ)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은 응집성과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집성은 총 7개 문항으로, 부부 간의 감정적 결합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우리 부부는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등이 있다. 유연성은 총 7개 문항으로, 부부 간의 역할 관계와 역할들 속의 변화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부는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부부 상호작용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아내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응집성 α=.933, 유연성 α=.923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응집성 α=.930, 유연성 α=.931으로 나타났다.

다. 양육효능감

아내와 남편의 양육효능감 검증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이 개발한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DSCS)을 신숙재(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가 번안하고 오미연(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해당 측정도구를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문항 중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문항들은 역 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은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유능감은 총 9개 문항으로,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 또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자신의 기대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게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이 있다. 부모 불안감은 총 4문항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관한 불안과 긴장을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가 현재 보이는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난다' 등이 있다. 또한 기타는 총 3문항으로, 부모 유능감과 부모 불안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문항을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등이 있다. 양육효능감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아내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부모 유능감 α=.850, 부모 불안감 α=.852, 기타 α=.857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부모 유능감 α=.854, 부모 불안감 α=.867, 기타 α=.855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각 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2와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되었다(허준, 2014).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37**	-										
3	-.27**	-.56**	-									
4	.08**	.11**	-.20**	-								
5	.62**	.44**	-.29**	.06**	-							
6	.60**	.44**	-.29**	.07**	.08**	-						
7	.49**	.29**	-.23**	.11**	.42**	.37**	-					
8	.20**	.15**	-.14**	.08**	.30**	.23**	.17**	-				
9	-.19**	-.26**	.33**	-.11**	-.21**	-.19**	-.27**	-.19**	-			
10	.08**	.07**	-.25**	.08**	.55**	.50**	.58**	.34**	.35**	-		
11	.49**	.29**	-.25**	.12**	.30**	.52**	.36**	.08**	.17**	.07**	-	
12	.43**	.27**	-.25**	.09**	.50**	.52**	.50**	.40**	.31**	.06**	.08**	-
M	3.20	3.47	2.73	3.31	3.96	3.59	3.54	3.06	2.52	3.43	3.98	3.67
SD	.67	.50	.73	.45	.55	.57	.56	.34	.67	.45	.53	.56
SK	-.83	-.15	.07	-.26	-.97	-.56	-.87	-.33	.03	-.11	-.70	-.43
KU	.93	.33	-.16	.60	2.87	1.18	.83	1.57	-.35	.47	2.48	1.30

1. 아내의 결혼만족도, 2. 아내의 부모 유능감(양육효능감), 3. 아내의 부모 불안감(양육효능감), 4. 아내의 기타(양육효능감), 5. 아내의 응집성(부부 의사소통), 6. 아내의 유연성(부부 의사소통), 7. 남편의 결혼만족도, 8. 남편의 부모 유능감(양육효능감), 9. 남편의 부모 불안감(양육효능감), 10. 남편의 기타(양육효능감), 11. 남편의 응집성(부부 의사소통), 12. 남편의 유연성(부부 의사소통)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에 해당하는 TLI와 CFI, RMSEA 값을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한다(허준, 2014). 본 연구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x^2	*df*	CFI	TLI	RMSEA
1078.473	335	.969	.965	.039

3.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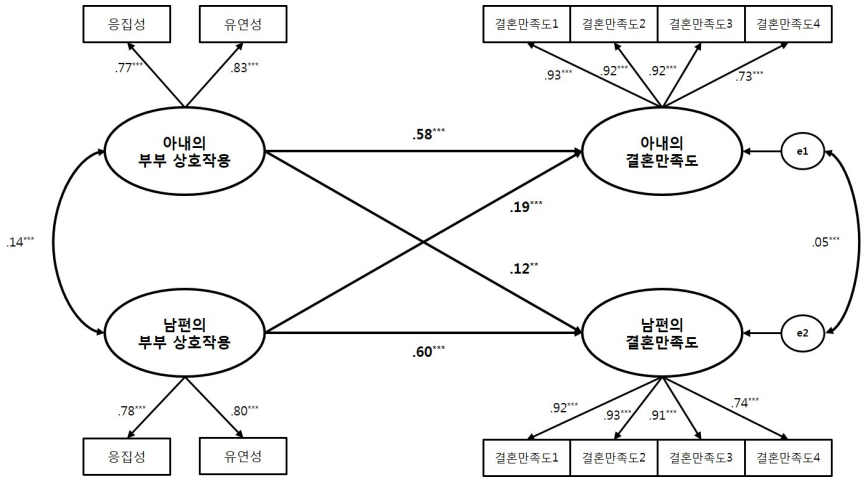
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 = 541.781$(df=130), CFI = .978, TLI = .975, RMSEA = .046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도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beta = .58$, $p < .001$)와 남편의 자기효과($\beta = .60$, $p < .0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beta = .12$, $p < .01$)와 남편의 상대방효과($\beta = .19$, $p < .0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58,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19, p < .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60,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12, p < .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p < .001

〔그림 2〕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표 3〉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x^2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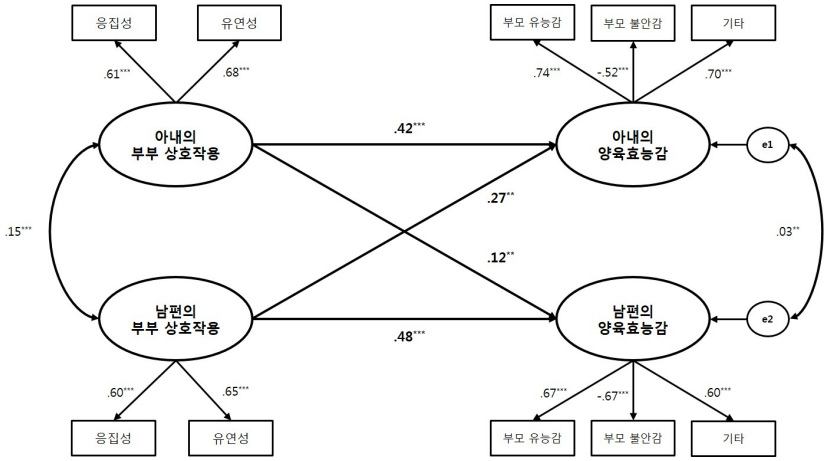
Model	x^2	*df*	CFI	TLI	RMSEA	x^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181.21	50	.921	.945	.043	x^2 (1)=9.32, p <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179.30	50	.923	.945	.042	x^2 (1)=8.15, p < .01
아내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188.30	50	.923	.944	.042	x^2 (1)=15.52, p < .01
남편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179.21	50	.922	.944	.041	x^2 (1)=14.79, p < .01

나.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 = 707.800(df=164), CFI = .954, TLI = .946, RMSEA = .047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β=.42, p < .001)와 남편의 자기효과(β = .48, p < .0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β = .12, p < .01)와 남편의 상대방효과(β = .27, p < .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41,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27, p < .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48,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12, p < .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p 〈 .001

〔그림 3〕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x^2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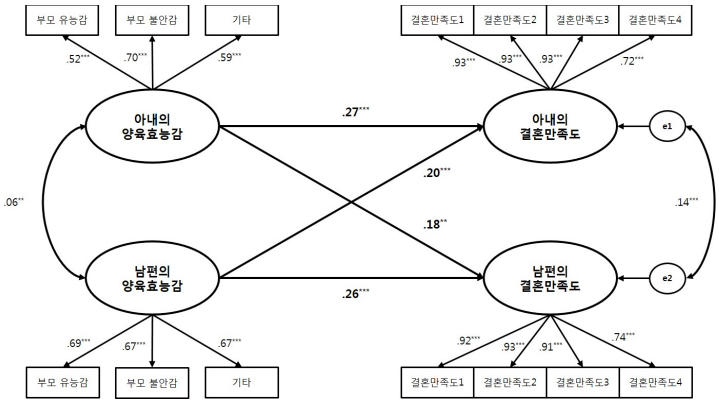
Model	x^2	*df*	CFI	TLI	RMSEA	x^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248.20	88	.945	.967	.049	x^2 (1)=7.33, p 〈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249.10	88	.946	.965	.048	x^2 (1)=5.27, p 〈 .01
아내의 양육효능감 등가제약	250.27	88	.945	.966	.048	x^2 (1)=10.96, p 〈 .01
남편의 양육효능감 등가제약	249.91	88	.945	.967	.048	x^2 (1)=12.14, p 〈 .01

다.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 = 475.400(*df* = 129), CFI = .978, TLI = .974, RMSEA = .043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양육효능감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β = .27, p < .001)와 남편의 자기효과(β = .26, p < .0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β = .20, p < .01)와 남편의 상대방효과(β = .18, p < .001)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27,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20, p < .0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β = .27, p < .001)와 상대방효과(β = .18, p < .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p$ < .001

〔그림 4〕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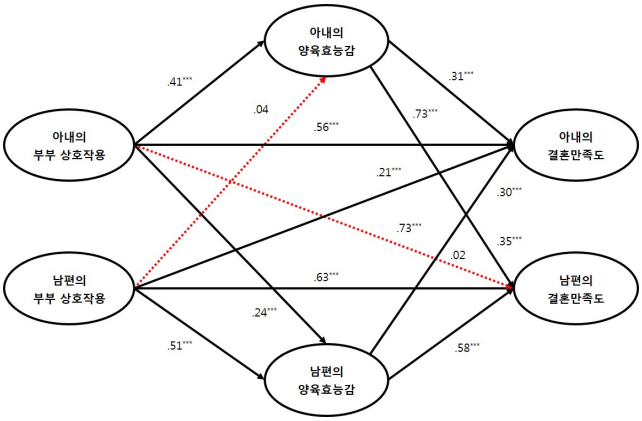
〈표 5〉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x^2 차이검증 결과

Model	x^2	*df*	CFI	TLI	RMSEA	x^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211.30	72	.967	.972	.041	x^2 (1)=5.92, p<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212.19	72	.965	.973	.041	x^2 (1)=8.07, p< .01
아내의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214.01	72	.966	.973	.042	x^2 (1)=13.91, p< .01
남편의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210.27	72	.966	.972	.041	x^2 (1)=11.37, p< .01

4.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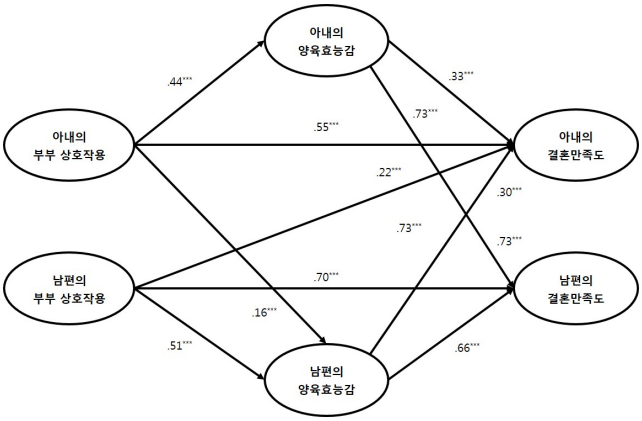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형들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 = 1176.648(*df* = 337), CFI = .965, TLI = .961, RMSEA = .041). 구체적으로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에서 남편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와 남편의 상호작용에서 아내의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각각의 연구변인들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와는 몇몇 상이한 부분이 있다. 먼저, 앞선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추가되었을 때,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앞선 결과에서는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라는 결과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두 개의 경로를 제거한 [그림 6]과 같은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적합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x^2 = 1187.555 (*df* = 339), CFI = .965, TLI = .961, RMSEA = .04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합도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허준 2014),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p 〈 .001

〔그림 5〕 연구모형 검증 결과



***p 〈 .001

〔그림 6〕 수정된 연구모형 검증 결과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내와 남편 모두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모형의 총 6개 간접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상호작용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 혹은 남편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을 거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 혹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

을 거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 간접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경로				B(β)	Z
직접 효과	자기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21(15)	-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30(20)	-
간접 효과	자기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10(.03)	5.84***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19(.05)	3.99**
	상대방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05(.02)	2.34**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06(.03)	3.82***
		남편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07(.04)	2.84**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03(.02)	2.91**
총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32(.23)	-
			남편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42(.39)	-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29(.19)	-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20(.18)	-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보다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경우 상대방보다는 자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낸 Chen과 Li(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 한다. 이를 통해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대방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타인의 감정, 인정 등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감정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해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내와 남편 스스로가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부부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내가 결혼에 만족한다고 느끼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보다 상대방의 부부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익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실시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양육효능감은 상대방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보다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 및 탄력성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상대방보다 자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낸 손수경·장유나·노주성 외(2016), 연은모·최효식(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연은모·최효식(2017)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 혹은 남편 스스로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자신감,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양육효능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내 혹은 남편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효능감보다 상대방의 부부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양육에 관한 방향 및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들을 대상으로 부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양육효능감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낸 Chen과 Li(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환경과 결혼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내와 남편 스스로가 양육에 대해 자신감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양육효능감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내가 결혼에 만족감을

느끼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보다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강의,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의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 혹은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작용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임희수, 2013; Kwan, Kwok, & Ling, 2015). 부부 상호작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 가사 일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부부가 함께 유아기 자녀 양육을 감당하게 되므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이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 부모 및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각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부라는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그 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주장들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교류분석 심리학자들 등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크게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 인식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아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타인 인식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인의 행동과 감정, 정서 등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의미한다(박은미, 2014). 이와 같이 개인이 특정

상황이나 관계, 환경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즉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과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각자의 상호작용 방법과 양육에 관한 불안, 신념, 자신감 등을 다루는 방안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양육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하며 배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과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 것에 반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에만 영향을 받아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과 아내가 부부 간에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모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해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 부부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 내용적인 부분과 특성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부 상호작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내가 지각하기에 부부 간에 자녀 양육이나 가사 일 등에 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정미라·조혜영·이순행, 2018)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남편은 부부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김낙흥·박영숙, 2016)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상호작용 방법, 양육효능감 특성 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한국아동패널의 자료 내에서만 추출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에 관한 응답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법 등을 실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 중에서도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고, 양육효능

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기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연령대를 더 폭넓게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내 또는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과업인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 부부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내와 남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부 각자를 위한 방안과 더불어 부부 모두, 즉 상대방효과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경로 모두 아내, 남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방효과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보다 배우자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편들에 대한 양육 교육, 부부 상호작용을 위한 부부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에서 해당 교육들을 연계해서 진행한다거나 지자체에서

는 공무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부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남편들을 위한 교육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받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에만 영향을 받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직접 참여하여 서로가 지각하는 이상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효능감 향상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부교육이나 부부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혼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개발하여 제도화 시킨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의 결혼 및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면, 이는 해당 부부와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영향은 낮은 혼인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경미(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김낙흥·박영숙(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5(4), 243-264.

나남숙·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 25(1), 115-135.

노성향(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10(2), 1-15.

박은미(2014). "자기실현"의 행복을 위한 철학상담.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9, 67-99.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은모·최효식(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0, 79-108.

연은모·최효식(2017).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 행복감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14), 197-216.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유계숙(2003). 가족학이론(관점과 쟁점). 서울 : 하우.

윤기봉·지연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24(3), 133-153.

이영진·장은미(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과 아버지 행복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학회, 10(3), 101-122.

이희윤·조유현(2015). 부부의 관계신념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7(4), 62-88.

임희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성 간의 구조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미라·조혜영·이순행(2018). 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다집단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14(2), 39-58.

통계청(2018). 혼인율 및 이혼율. http://kostat.go.kr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허은경(2014).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허은경·김영희(2016).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21(3), 417-441.

허준(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 한나래.

Chen, L. H., & Li, T. (2012). Role bala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aiwanese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1), 187-199.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Friedman, H., & Martian, L. R. (2011). *The Longevity Project*. In S. Choi (Ed), Seoul: Samnparkers.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ja, R., Piha, J., Otava, R., Lavanchy-scaiola, C., Ahlqvist-Bjrkroth, S., Aromaa, M., & Rih, H. (2016).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mother-father-child triadic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7*(4), 305-312.

Kwan, R. W., Kwok, S. Y., & Ling, C. C. (2015). The moderating role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arenting alliance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2), 3506-3515.

Lavner, J. A., Karney, B. R., & Bradbury, T. N. (2016). Does couples' communication predict marital satisfaction, or does marital satisfaction predict commun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8*(3), 680-694.

Rehman, U., Janssen, E., Newhouse, S., Heiman, J., Holtzworth-Munroe, A., Fallis, E., & Rafaeli, E. (2011).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sexual and nonsexual conflict discussions in newlywed couples: a pilot stud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7*(2), 94-103.

Rivero, N., Martinez-Pampliega, A., & Olson, D. (2010). Spanish adaptation of the FACES IV questionnair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The Family Journal, 18*(3), 288-296.

• 논문접수: 7월 30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이지민,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ljimin@yu.ac.kr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with Young Children : Focusing 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yerim Han and Jimin Lee

This study examined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marital interaction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is study,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analysis method was applied using 7th year data amo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o follows. First, the marital interaction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marital interaction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Third, the parenting efficacy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parenting efficacy for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mediated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with young children. The findings present interpersonal aspects as well as intrapersonal aspects of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inter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Keyword: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interaction, parenting efficacy, actor effect, partner effect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121~144 https://doi.org/10.5718/kcep.2019.13.2.121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인과구조에 관한 연구

염혜경[1] 김재신[2] 임은의[3]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영향요인 및 결과산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변화궤적 유형은 하위유지형, 완화형, 중간유지형, 상승형, 상위유지형, 혼합형로 나타났다. 완화형에 대비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의 차별적인 발달궤적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부부갈등, 양육행동이었고, 하위유지형에 대비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의 차별적인 발달궤적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부부갈등, 아동기질,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특히 어머니의 연령과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발달궤적 유형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인과구조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긍정적 정서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경력단절여성,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발달산물, 부부갈등

Ⅰ. 서론

출산이후 여성은 직장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양육부담이 커 일과 가정 간 선택의 기로에서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경력단절의 전업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5~54세 기혼여성 900만 5천명 가운데 전업주부(full-time mothers)는 345만 7천명인 38.4%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주부의 절반 정도는 경력단절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18). 이진경과 옥선화(2009)에 의하면 20~30대 취업여성의 경우 결혼 후 2년 반 이내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2) 경기연구원 연구원
3)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에 절반 정도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며,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부터 생후 9개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단연구를 실시한 McRae (2003)의 분석에서도 첫째 아이가 11살 될 때까지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은 어린 자녀의 양육 때문에 대개 직장을 그만두지만, 성공리에 자녀 양육을 수행한 후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강민지, 2014). 그러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높은 우울로 재취업 의지가 꺾여 경력단절상태에 머무를 가망이 있다. 자발성 여부를 떠나 퇴직이후 전업주부의 삶에 진입한 순간부터 정체성 간 갈등과 정체성 내 위기를 경험하면서 양가감정을 느끼고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 양육스트레스를 겪는다(성기정·권수영, 2016).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함이나 부담감을 의미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등(Abidin, 1992) 부적절한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최정신, 2009), 이후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은 취업에 대한 희망과 시도를 포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나 가족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서주현·김진경, 2012).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태적 요인 등 복합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bidin, 1992). 먼저 아동 발달에 1차적 책임을 지니는 어머니는 개인적 속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한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 개인 요인은 인구학적 속성에서부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어머니 연령, 학력수준,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어머니 연령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오재연·유구종, 2007), 반대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는 등(권미경, 2011) 비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도 양육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지만(문혁준,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 연령과 학력수준은 독립변인의 순수 효과보다는 가구소득과 결합되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Ostberg & Hagekull, 2000).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와줄 대체인력

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문자·이미리, 2000). 그러나 가구소득이 많을 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할 가능성은 낮아져 여성 고학력시대에 가구의 높은 소득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일가정 양립시대에 점차 자녀 양육은 부부의 공동 과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이다. 이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리라 예상된다(유호용, 2001).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이전과 다른 부부관계 양상이 전개되는데, 남편의 경우 직장 일에 더욱 전념하고, 부인의 경우 가사일 전부를 떠맡는 이른 바 '독박육아'에 처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였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참여 감소와 아내에 대한 대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부부갈등을 초래하며, 육아 초보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게 한다(유상미, 201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에서 비취업모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커 취업 전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줄어들어 부부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질은 정서와 활동, 사회 차원에서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다(Buss & Plomin, 1984). 아동의 정서와 활동은 부모 양육과 관련이 있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관계 형성을 초래한다(Dumas & Lafreniere, 1993). 과활동아의 부모도 정상아의 부모보다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겪는다(Mash & Johnson, 1983). 한편 아동 기질보다는 모자녀간 기질적 조화/부조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를 이룰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적다고 한다(한세연·박성연,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투영된 양육 가치관의 경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간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적을수록, 어머니가 현대적 양육가치관을 가질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권미경, 2011).

사회적 지지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가족문화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지역의 자원보다는 가족의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은 부모의 원활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책임을 가진다. 사회 및 국가의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과 어린이집 충분성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주와 진미정(2013)은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취업

모는 어린이집 충분성에 의해, 비취업모의 경우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에 의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4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첫해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Deater-Dckard, Pinkerton & Scarr, 1996). 다른 종단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Hauser-Cram, Warfield, ME. & Shonkoff, JP. et al., 2001). 이렇듯 외생변수로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곽금주·김수경, 2004), 양육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말경·박혜원, 2008).

우울은 여러 가지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태(Lazarus & Folkman, 1987)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리감을 두어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비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자아존중감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발달 산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으로서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보는 관점이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권미경, 2011).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공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체계로(Bandura, 1977),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문제 상황을 쉽게 극복하고 또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은 향상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후속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간 국내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그리고 한국아동패널 구축이후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 후 2~3년 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이정민·이보람, 2013; 이희정, 2013; 최효식·연은모·권수진 외,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2015)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0세에서 4세에 이르는 5년 동안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였으며, 변화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Mulsow et al.(2002)는 출산 후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다가 자녀의 연령이 2세에서 3세에, Williford, Calkins & Keane(2007)는 2세에서 5세 사이에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지만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차 곡선의 형태를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이렇듯 양육스트레스 변화 추이는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혹은 이전 직장경험과 무관한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즉 정태적 측면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여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동태적 측면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어떤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지, 변화 유형별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발달 산물을 초래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력단절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양상에 따라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취업 지원정책, 재취업 결정요인, 임금손실 등 노동시장 재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김난주·김영숙·강민정 외, 2016; 손정민, 2017)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 원인과 결과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변화 유형별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을 조명하여 기혼여성들이 육아와 고용의 이중 과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즉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전적으로 육아를 전담하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의지가 소멸되어 가는가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효과적인 일-가정양립 정책과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추이 및 변화 유형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 및 산물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있는 유형과 완화하고 있는 유형의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의 차이를 규명하여 향후 이들의 양육환경에 대한 조기 적응과 적극적인 대처에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려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PSKC)의 1차년도(2008년)~3차년도(2010년) 자료는 아동(영아) 양육 시기의 발달 변화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심리적·정서적 변화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요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적절하다.

본 연구대상은 경력단절여성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경우에는 혼인, 임신, 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포함하나,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육아로 인해 직장생활 혹은 학업을 그만두어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1차~3차년도 어머니 응답자 가운데 '이전에 임신 및 출산 전후로 취업이나 학업을 그만 두고 현재 0세~2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총 272명이 해당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개인특성	연령	20세~29세	78	29
		30세~39세	191	70
		40세 이상	3	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	34.9
		전문대학 졸업	82	30.1
		대학교 졸업 이상	95	34.9
가구 특성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89	32.7
		201만 원~300만 원	116	42.6
		301만 원 이상	67	24.6

2.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기현과 강희경(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발췌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전체 문항이다. 양육스트레스 11번 문항은 3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됨에 따라 1차와 2차는 1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고, 3차년도는 11번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1차년도 .851, 2차년도 .834, 2차년도 .878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연수로 응답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세부터 41세 사이의 어머니들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1.46세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기능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전문대졸업 2, 대학교졸업 이상 3'으로 재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수 만원단위로 응답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 분포는 80만원부터 900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분석 시에는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배우자 양육부담 변수는 한국아동패널에서 홍성례(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남편의 양육 참여'로 명명하고,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등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769이다.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y, Blimberg의 1994년 연구와 2001년 연구를 번안한 정현숙(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연구를 수정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부갈등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총 8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905로 나타났다.

아동기질은 Buss & Plomin(1984)의 연구와 Mathiesen & Tambs(1999)의 연구(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를 번안 및 수정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모용 아동기질 척도 중 정서성 관련 1,6,8,10번 4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745이다.

양육행동은 Bornstein와 동료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사회적 양육행동 6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 반응적으로 양육했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척도 신뢰도는 .811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변수와 어린이집 충분성 변수는 서문희와 조애저, 김유경 외(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연구의 척도를 수정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지역사회특성 관련 하위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주는 각각 5점 Likert 척도 1개의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하며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 총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응답범주는 4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3,5,8,9,10번 문항을 역코딩 한 후 10문항을 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854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Pearlin와 동료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등 총 4문항이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783이다.

어머니의 우울은 한구아동패널에서 수정·번안한 Kessler의 우울 척도를 활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불안하셨습니까?', '무기력하셨습니까?' 등의 총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902이다.

〈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속성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상위유지형=1, 중위유지형=2, 하위유지형=3, 완화형=4, 상승형=5, 혼합형=6
독립변수	개인특성	연령	자연수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1 전문대학졸업=2 대학교졸업 이상=3
		가구소득	자연수(회귀분석 시 로그변환), 단위: 만원
	부부특성	배우자 양육분담	아버지 양육분담관련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부부갈등	부부갈등관련 8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40점
	양육특성	아동기질	아동기질관련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양육행동	양육행동관련 6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30점
	환경특성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5점척도 1문항: 매우 좋지 않음(1점)~매우 좋음(5점)
		어린이집 충분성	5점척도 1문항: 매우 불충분함(1점)~매우 충분함(5점)
결과산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0문항 합산(3,5,8,9,10번 문항 역코딩)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범위: 0~40점
		부정적 자기효능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우울	우울 6문항 합산 전혀 안 느낌(1점)~항상 느낌(5점), 범위: 30점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살펴보고, 그 인과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크게 6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model)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적합하다. 넷째, 각 유형에 따라 결과 산물

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MANOVA는 종속변수의 조합에 대한 효과의 동시검정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 때, ANOVA에서 밝힐 수 없는 결합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주요변인들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 .166~1.65, 첨도 .038~6.22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인 .3과 .7 이하의 정규분포조건(Curran, West & Finch, 1996)을 충족하였다〈표 3〉. 3년간의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에는 점차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추이와 유사하다(이희정, 2014; 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김세리·조혜림·이강이, 2017). 연구대상의 2008년 시점 연령은 평균 31.46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2분위(중위소득 50%)에서 3분위(중위소득의 70%) 사이의 값인 271.63만원이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배우자 양육분담을 평균 13.99점인 보통수준 이상으로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다. 환경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은 3.27점, 어린이집 충분성은 3.4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측정변인	연차	*M*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2008(1차)	17.75	4.72	7	32	.17	-.04
	2009(2차)	17.81	4.51	7	32	.09	.06
	2010(3차)	18.46	4.74	7	33	.25	.47
가구소득	2008(1차)	271.63	102.32	80	900	1.65	6.22
연령	2008(1차)	31.46	3.39	20	41	.068	.23
부부갈등	2008(1차)	15.74	5.94	8	40	.94	1.32
아동기질	2008(1차)	10.89	2.66	4	20	.28	.13
양육행동	2008(1차)	24.53	2.83	13	30	-.41	.58
배우자 양육분담	2008(1차)	13.99	3.29	4	20	-.30	-.06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2008(1차)	3.27	.87	1	5	-.21	-.46
어린이집 충분성	2008(1차)	3.46	.99	1	5	-.38	-.37

또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을 점검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계수(r)의 값이 -.49에서 .60까지의 상관을 나타내 모두 .6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표 4〉. 이러한 결과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측정 모형에서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1									
연령	−.15*	1								
학력	−.03	.09	1							
가구소득	−.06	.21**	.25**	1						
배우자 양육분담	−.06	.01	−.03	−.06	1					
부부갈등	−.05	−.05	−.03	−.02	−.49**	1				
아동기질	−.02	−.10	.02	−.07	−.04	.13*	1			
양육행동	.11	.03	.09	.17**	.23**	−.28**	−.09	1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06	.08	.17**	.25**	−.11	−.05	−.16**	.01	1	
어린이집 충분성	.02	.08	.11	.10	−.07	−.13*	−.17**	.06	.60**	1

*p 〈 .05, **p 〈 .01, ***p 〈 .001

2.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에 걸친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유형화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차년도 양육스트레스 측정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상위 25%, 중간 50%, 하위 25%로 나누어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총 3년에 걸친 응답 중, 한 해라도 무응답일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유형화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유형	코딩과정 설명	빈도(명)	백분율(%)
상위유지형	1~3차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 25%를 유지한 경우	31	11.4
중위유지형	1~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간 50%를 유지한 경우	37	13.6
하위유지형	1~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위 25%를 유지한 경우	35	12.9
완화형	1차년도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계속 떨어졌거나 떨어진 상태를 유지한 경우	53	19.5
상승형	1차년도 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지속적으로 올랐거나 오른 상태를 유지한 경우	65	23.9
혼합형	1~3차년도에 걸쳐 조사기간 동안에 상·중·하위를 넘나든 경우, 즉 완화형과 상승형이 중첩된 유형을 경험한 경우	51	18.8

〈표 6〉을 통해 경력단절 기혼여성 양육스트레스의 3년 간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3년 간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균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상승형과 완화형이다. 상승형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완화형은 3차년도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차이

유형	1차년도 평균점수(*SD*)	2차년도 평균점수(*SD*)	3차년도 평균점수(*SD*)
상위유지형	24.65 (2.63)	23.97 (2.66)	25.16 (3.78)
중위유지형	17.78 (1.29)	17.62 (1.40)	18.87 (1.18)
하위유지형	12.00 (2.34)	11.63 (2.44)	12.11 (2.54)
완화형	19.83 (2.96)	18.04 (3.92)	15.38 (2.98)
상승형	15.28 (3.39)	17.95 (3.79)	20.65 (3.31)
혼합형	18.45 (4.70)	18.00 (3.97)	18.86 (3.45)
전체	17.75 (4.72)	17.81 (4.51)	18.46 (4.74)

양육스트레스 발달궤적 유형별 주요 변수의 특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발달궤적 유형별 변수 특성(1차 2008)

구분			상위유지형	중위유지형	하위유지형	완화형	상승협	혼합형
연령		빈도	31	37	35	53	65	51
학력	고졸 이하	%	45.2	16.2	42.9	22.6	41.5	41.2
	전문대졸		29.0	35.1	34.3	34.0	27.7	23.5
	대졸 이상		25.8	48.6	22.9	43.4	30.8	35.3
가구소득		평균	270.67	292.86	256.36	263.02	265.44	285.44
배우자 양육분담			13.45	13.89	15.74	13.96	14.08	13.10
부부갈등			19.45	15.22	12.09	15.94	15.66	16.25
아동기질			11.52	10.89	10.34	11.09	10.37	11.33
양육행동			23.26	24.32	25.77	23.79	25.17	24.53
지역사회양육적절성			3.16	3.30	3.20	3.15	3.38	3.33
어린이집충분성			3.19	3.75	3.34	3.42	3.57	3.39

3.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의 예측요인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하위유지형과 상승형, 상위유지형과 완화형을 예측요인별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 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기준집단: 완화형)

1차년도(2008) 예측요인	완화형 대 상위유지형			완화형 대 상승형		
	B	*S.E.*	*exp(B)*	*B*	*S.E.*	*exp(B)*
연령	.01	.08	1.01	-.19***	.07	.82
가구소득	1.19	1.47	3.30	.29	1.27	1.34
학력(기준: 대학교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이하	1.50**	.63	4.47	1.08**	.55	2.95
전문대학교졸업	.422	.63	1.53	.07	.52	1.07
배우자 양육분담	-.01	.09	.99	-.01	.08	.99
부부갈등	.09**	.05	1.10	.02	.04	1.03
아동기질	.13	.12	1.14	-.14	.09	.87
양육행동	-.02	.09	.98	.27***	.09	1.31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21	.36	1.24	.47	.31	1.59
어린이집 충분성	-.10	.31	.90	-.07	.27	.93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8〉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완화형 집단 기준으로 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을 비교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완화형과 비교하여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4.47배,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1.1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양육스트레스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함께 느낌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학력 여성에 비해 저학력 여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의 장벽을 더 높게 느끼기 때문에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에게는 배우자가 일상에서 가장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와 같은 갈등을 겪게 되면 양육스트레스가 상위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완화형과 비교하여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82배 낮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일 때 2.95배,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1.3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애정과 우호의 감정을 갖고 돌보지만, 이러한 양육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라는 양가감정 느낌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하위유지형 집단 기준으로 상위유지형과 상승형 집단을 비교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하위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위유지형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1.28배, 부정적 아동기질이 나타나는 경우 1.27배,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7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의 심한 갈등, 자녀의 부정적인 기질 표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이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상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인들의 결과 값이 상승함에 따라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유지형과 비교하여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82배 낮으며, 부부갈등이 있을 때,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이 양육스트레스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기준집단: 하위유지형)

1차년도(2008) 예측요인		하위유지형 대 상위유지형			하위유지형 대 상승형		
		B	*S.E.*	*exp(B)*	*B*	*S.E.*	*exp(B)*
연령		−.05	.09	.95	−.20**	.08	.82
가구소득		2.58	1.77	13.14	1.21	1.30	3.36
(기준: 대졸이상)	고졸 이하	.20	.77	1.22	−.46	.61	.63
	전문대졸업	.09	.86	1.10	−.82	.67	.44
배우자 양육분담		−.05	.11	.95	−.10	.09	.90
부부갈등		.25***	.07	1.28	.13**	.06	1.14
아동기질		.24+	.12	1.27	−.01	.09	.99
양육행동		−.32**	.13	.73	−.04	.11	.96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16	.44	.86	.15	.35	1.16
어린이집 충분성		.18	.38	1.19	.15	.28	1.16

$^{+}p < .10$, $^{*}p < .05$, $^{**}p < .01$, $^{***}p < .001$

4.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의 결과 산물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결과 산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활용하였다. 중간유지형, 혼합형을 제외한 유형들을 가지고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을 살펴보았다〈표 10〉.

한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간 차이는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하위유지형이 가장 높고, 완화형, 상승형, 상위유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낮고 큰 변화를 겪지 않는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본인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하며 이것은 곧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으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지속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상위유지형이 부정적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소득활동 중단이라는 경제활동사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중첩되어 자신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만성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갖는 상위유지형이 가장 고위험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위험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미시적지원(부부관

계, 가족관계)이 보다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의 모(母) 결과 산물 차이

결과 산물	평균(표준편차)		*F*	Duncan 사후분석
	전체	유형		
자아존중감	30.59 (4.21)	상위유지형 26.20(6.38)	5.39**	하위〉완화〉상승〉상위
		하위유지형 33.25(3.25)		
		완화형 31.77(3.17)		
		상승형 29.56(3.88)		
부정적 자기효능감	9.11 (2.83)	상위유지형 13.00(3.32)	4.90**	상위〉상승〉하위〉완화
		하위유지형 8.42(2.97)		
		완화형 8.12(2.55)		
		상승형 9.31(2.35)		
우울	11.75 (4.18)	상위유지형 16.20(4.71)	4.19**	상위〉상승〉완화〉하위
		하위유지형 10.00(4.16)		
		완화형 10.29(3.62)		
		상승형 12.55(3.80)		

*p 〈 .05, **p 〈 .01, ***p 〈 .001 NA=not applicable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비교하여 해당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와 이에 관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은 상위유지형, 중위유지형, 하위유지형, 완화형, 상승형, 혼합형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이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권미경(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직업경력,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의 복귀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한 사람의 꿈이 경력으로 모색되고 굳건해지는 데는 시간의 법칙이 통용된다. 직장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자신의 직업 경력의 윤곽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경력세계를 구축해 간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은 강화작용이 되기도 하고 보상이 되기도 한다. 한번 구축된 경력은 잠시 육아 휴직이나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허약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때 복원이 용이하고 가능하다. 어머니의 나이가 어려 육아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성 이전에 어머니의 인생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비전과 경력이 아직 불투명한데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자칫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불안감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설계를 관조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머니 개인으로서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의 상충이 어머니의 나이가 어릴수록 크게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육아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이 완화형보다 상위유지형이나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기혼여성에 비하여 출산 후 재취업의 장벽을 높게 체감함으로써 고학력 여성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데다가, 고학력, 고스펙을 기대하는 사회와 기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은 재취업의 높은 장벽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기혼여성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양육스트레스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부갈등이 심화될수록 하위유지형과 완화형에 비해 상위유지형과 상위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민하영·이영미, 2009; 옥경희·천희영, 2012)와 일치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더 보편화 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부부관계 및 부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양육행동의 경우 완화형보다 상승형에, 하위유지형보다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겪는 어려움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신의 시간 보다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편의 보다는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게 된다. 자녀를 보다 온정적·반응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양가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섯째, 아동기질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은 하위유지형에 비해 상위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정적인 기질을 많이 표현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승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수미·민하영, 2007)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동의 기질과 관련하여 자녀가 과활동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Mash & Johnson, 1983),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보일 경우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는 결과(Dumas & Lafreniere, 1993)와도 연관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자녀와 온종일 함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아동의 선천적인 기질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영아 자녀의 기질은 어머니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인식 변화,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1~3차년도의 단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다방면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한국아동패널를 이용한 분석대상이 272명으로 나타나 전체 경력단절여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다중집단으로 비교하는 연구와,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위의 결론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직업경력 및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체감하게 된다. 자신의 비전과 경력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에 자녀 양육이라는 일생의 사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직장을 그만둘 경우라도, 이전에 구축한 경력을 인정하는 시스템 및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력단절 기혼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과 별도로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되어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이나 학력, 경력단절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 내 보육시간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더불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보편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의 양육행동과 아동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본인의 행동과,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금지원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이 보다 현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보완과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양육 상담 및 지원이 보다 다양한 경로로 공유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성 부모교육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13주 프로그램으로 3개월 이상의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 양육방법은 단발성으로 체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부모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자녀행복추구권 양자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이 예방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언급되면서 부모교육 의무화도 제시되고 있다. 부모교육 이수와 연계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다. 즉, 중장기적인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재취업 지원정책, 재취업 결정 요인, 임금손실 등 노동시장 재진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 혹은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손정민, 2017)와는 달리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 완화 대책을 통해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민지(201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곽금주·김수경(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1), 1-18.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난주·김영숙·강민정·박건표·박미연(2016).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말경·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1), 243-255.

김세리·조혜림·이강이(2017).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추정. 열린부모교육연구, 9(4), 57-74.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민하영·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애정 -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박성연·도현심·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성기정·권수영(2016). 경력단절 육아전업주부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

회지, 27(1), 163-195.

손정민(2017). 융복합시대 에코부모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궤적과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405-409.

옥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오재연·유구종(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유상미(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유호용(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미·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9-225.

이윤주·진미정(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이정민·이보람(2013).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67-387.

이진경·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이희정(201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51-271.

이희정(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정문자·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 115-126.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최정신(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 종단적 관계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한국아동패널(2008). 한국아동패널 2008(1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2014). 한국아동패널 EAS 기질척도_부모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한세연·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oplan, R. J., Bowker, A. & Cooper.(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eater-Dckard, K., Pinkerton, R. & Scarr, S.(1996).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behabioral adjustment: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937-948.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Hauser-Cram P, Warfield ME, Shonkoff JP & Krauss MW.(2001).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and parent well-being.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 1-131.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Lazarus, R. S. & Folkman, S.(1987).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ash, E. J. & Johns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Mathiesen, K. S. & Tambs, K.(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3), 431-439.

McRae, S.(2003). Constraints and choices in mothers' employment careers: A consider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 317-338.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Huston, A. C.(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 .

Ostberg, M. & Hagekull, B.(2000). A structural model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615-625.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Rosenberg, M.(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cersity Press.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 논문접수: 8월 1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임은의, 극동대학교 부교수, socialb@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nd Causal Structure of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Hyekyung Yeom, Jaesin Kim and Euneui Yim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stres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also explored the factors and outcom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by using the 1st-3rd grad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Panel. We identified six types of the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such as constant-high, constant-moderate, constant-low, downward, upward, and mixed group. The differ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in constant-high, upward and downward group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ere the mother's age, education level, marital trouble and parenting behavior. And the differ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in constant-high, upward and constant-low groups were the mother's age, marital conflict,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These group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negativ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methods of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labor market reentry of career-interrupted women.

Keyword: career-interrupted woman, parenting stress, developmental trajectories, marital conflict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2019. 9.) 145~169 https://doi.org/10.5718/kcep.2019.13.2.145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최지은[1] 김현경[2]

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참여한 1,365가족(맞벌이 612, 외벌이 753)의 아버지, 어머니, 7세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버지 직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임으로써 맞벌이가족 아버지의 행복감이 증진되고, 어머니의 행복감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증진되었다. 둘째,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의 양육참여가 높아짐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은 맞벌이 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구성원 개인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남성 대상 가족친화제도의 가치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버지 직장, 남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아버지 양육참여, 행복감

Ⅰ. 서론

가족친화제도는 기혼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휴직제도(leave benefit), 보육시설 등 돌봄 지원제도(care benefit),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제도(financial benefit),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의 업무관리제도

* 본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8.11.23.)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며, 201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장학금 지원에 의한 것임.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work policy)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안병철·이숙현·장은미 외, 2005). 한국 정부는 기혼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어려움이 커지자, 2007년에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 위기가 지속되고 현 정부 국정과제(71번)로 일·생활 균형이 중점 추진되면서 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가족친화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는 가족 내 남성의 역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유급노동, 무급노동 모두에서의 성별 분업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는 가족 내 남성의 역할, 특히 돌봄 역할 확대를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의 정착이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에서 성평등 달성의 핵심으로 지적되고(Ray, Gornick, & Schmitt, 2010), 과거와 달리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Sleebos, 2003).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족친화제도는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고, 남성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상호·장지연·박종서 외, 2017).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접근이 어려운 것은 가족 내 무급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고 가족친화제도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개인의 생활보다 직장을 우선시하기를 요구하는 조직문화 등과 관련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어머니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와 아버지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한 모든 가족친화제도를 남녀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모성보호", "여성정책" 등 여성 중심의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개별 기업체에서 남녀 근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남성들이 자신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성의 가족 내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0년에 불과 2%였으나 2018년에는 17.8%로 크게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4.). 하지만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나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가족 전체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제도 활성화에 꼭 필요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일-가족 관계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가족 상호작용(work-family interface)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의 제한으로 인해 일과 가족 간 충돌하는 요구들이 갈등을 야기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Bosma, Stansfeld, & Marmot, 1998; Brotheridge & Lee, 2005; Mullen, Kelley, & Kelloway, 2008).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서 나아가 일-가족 관계가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었고, work-family facilitation, enrichment, enhancement, positive spillover 등 다양한 개념들이 일-가족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논의되고 있다(예: Grzywacz & Marks, 2000).

Bronfenbrenner(1979)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은 일과 가족생활 간의 관계가 개인과 가족의 발달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를 적용하면, 기혼근로자의 두 미시체계(microsystem)인 직장과 가족생활의 관계는 중간체계(mesosystem)에 해당하며, 기혼근로자의 직장은 그의 배우자에게 외체계(exosystem)로써 배우자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준다. 또한,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직장은 아동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체계로써 기능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장의 가족친화 수준은 아버지에게는 중간체계로,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외체계로 각자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Mullen et al., 2008). 특히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삶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그의 역할수행은 다른 가족들의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준다(Bronfenbrenner, 1995). 또한,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95) 후기 이론을 적용하면, 개인의 직장에서의 경험이 가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과거 한국사회에서 기혼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적 수준이 그나 그의 가족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경제상황의 변화와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의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도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혹은 이용과 아버지의 가족생활, 그리고 가족들의 웰빙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우선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북유럽 국가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영국 아버지들보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 시간이 길었고,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Sullivan, Coltrane, McAnnally et al., 2009).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를 위한 가족친화제도 수준과 근무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비교연구에서는, 임금보전수준이 높고, 부모 간 양도 불가한 아버지 육아휴직이 제공되고, 어머니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며, 가족수당이 큰 국가의 남성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무자녀 남성에 비해 근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Bünning & Pollmann-Schult, 2016).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사용하였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이후에도 양육참여 수준이 높았다(Huerta, Adema, Baxter et al., 2014; Nepomnyaschy & Waldfogel, 2007).

국내의 경우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그의 양육참여 수준에 대한 양적인 실증연구는 없지만, 아버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혹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욱·강상준, 2018; 이숙현·권영인, 2009; 조희금, 2016; 최지은·이숙현, 2015).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친화제도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해서는 몇몇 질적연구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논하였는데,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양육참여가 증가함으써 양육에 대한 젠더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갈등하게 되고 완전히 젠더화되지 않은 실천(practice)을 이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강혜경, 2013; 조윤경·민웅기, 2012).

한편,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임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국내외 연구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동,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영향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으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산후우울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정·이지현, 2005; 손영빈·윤기영, 2011; Sejourne, Vaslot, Beaumé et al.,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활발할 경우, 자녀의 사회, 행동, 심리, 인지 등 모든 분야의 발달결과가 좋다는 것 역시 일관된 연구결과이다(이에 대한 리뷰는 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et al.,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자신의 웰빙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 역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자녀양육에 활발히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우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Eggebeen & Knoester, 2001), 다른 사회적 관계 참여도 활발하였으며(Eggebeen, Dew, & Knoester, 2010), 이후 심리적 웰빙이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indler, 2010).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후 4-6개월 동안 아버지 뇌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아버지의 우울 감소의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Kim, Rigo, Mayes, et al., 2014).

또한, 아버지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나 아버지가 인식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혹은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 Haas & Hwang, 2008) 역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의 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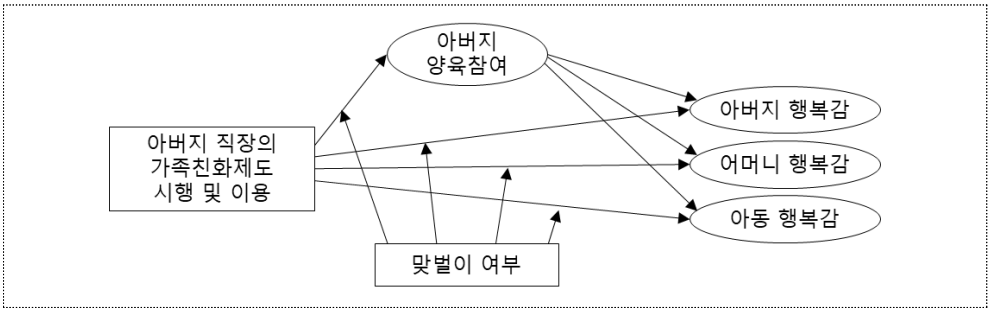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국내외에서 모두 매우 드물다.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일-가족 관계와 양육참여 맥락이 다르다고 보고되기 때문에(권순범·김혜중·소효종, 2018; 김재희·이희선·김산하, 2018)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의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직접적으로, 혹은 그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에 대한 국가 수준의 자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중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질문한 8차년도 데이터(패널아동 7세)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친화제도는 돌봄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로[1], 구체적으로 아버지 직장 내 6가지 제도의 시행 여부(남성육아휴직, 여성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와 아버지의 5가지 제도 이용 여부(남성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과 함께하는 활동들의 빈도로 측정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정서적 웰빙을 추론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써 주관적인 행복감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1-1. 맞벌이 여부는 위 직접 영향 혹은 간접 영향에서 조절효과(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가?
2.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2-1. 맞벌이 여부는 위 직접 영향 혹은 간접 영향에서 조절효과(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가?

---

1) 돌봄 지원은 근로자가 일에 더욱 몰입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고, 재정적 지원은 직장 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도와주는 다른 제도들과는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보육 중심 제도는 Friedman & Johnson(1997)이 분류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최성일·유계숙, 2006에서 재인용).



〔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에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응답자 중 아버지가 취업 중인 1,365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수집하고 있는 패널자료이다(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출산한 2,078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 1차년도 조사 이후 현재 패널아동이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된 2017년 10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었고, 이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년도 대비 표본 유지율은 2차~8차 각각 91.6%, 94.6%, 97.3%, 97.1%, 97.6%, 97.5%, 98.6%이고, 1차년도 대비 8차년도의 표본 유지율은 74.3%이다(도남희·이정원·김지현, 2018). 각 차수에 아동, 어머니, 아버지, 유아교육기관 혹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들을 조사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에게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질문한 8차년도(아동 7세) 참여자 가운데 아버지가 취업 중이고, 맞벌이 여부 파악을 위한 어머니 취업여부 질문에 응답한 1,365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 맞벌이가족(612가족)으로, 취업과 학업 모두 하지 않는 경우 외벌이가족(753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변수

가.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아버지용 설문 중,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사내 시행 여부와 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시행 여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의 총 6가지 제도의 시행 여부로 파악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9조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의미한다. 가족돌봄휴직이란 위 법 제22조의2에 의해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며,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대체인력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에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직장 내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각 제도를 아버지들의 회사에서 시행할 경우 1, 시행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한 결과를 합산하였다(점수범위 0~6). 이용 여부는 “여성 육아휴직”을 제외한 5가지 제도(남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각각을 아버지들이 이용했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시행 중이지만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대상이 아님”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0으로 코딩한 뒤 5가지 제도의 값을 합산하였다(점수범위 0~5).

나.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변수인 아버지 양육참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아버지용 설문에서 사용한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와 자녀의 공동활동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아버지에게 자녀와 함께 10가지 행동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전혀 하지 않음(1), 1~2번(2), 3~6번(3), 매일함(4) 으로 코딩한 후 10문항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아버지가 자녀와 여러 활동을 자주하여 양육참여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8이었다.

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

종속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사용한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subjective happines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7점 리커트척도, 아동에게는 4점 리커트척도로 각자 자신의 행복감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부모용 예: 전반적으로 나는 (1)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7)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아동용 예: 보통 나는 (1)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 (4)매우 행복해요). 아동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 와 같은 표정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 각자에게 행복감을 질문한 4문항을 이용하여 각각의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 .88, 어머니 .89, 아동 .70으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가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아버지 행복감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고, 어머니 행복감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으며, 아동 행복감에는 아동의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다. 매개변수인 아버지 양육참여에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8차년도의 총 자녀 수를 통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무학(1) ~ 대학원 졸업(7)으로, 아동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코딩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백만원 단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변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는 SPSS 25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1, 2에 해당하는 연구모델 분석에는 MPlus 8(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한 다음, 전체 연구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과 Wald test를 실시하였다. Wald test는 직접경로 혹은 간접경로 추정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으로, X^2 분포를 따르는 Wald 통계값이 유의할 경우 해당 경로가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르다고 본다(Liao, 2004).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s)을 높이기 위하여 5,000회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결측값 처리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분석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케이스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은 완전제거법이나 평균대체법에 비해 덜 편향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어 추천되는 결측값 처리방법이다(Enders & Bandalos, 2001; Little, 2013). 본 연구에서 변수별 결측 비율은 0~2.5%였고, Little의 완전무작위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검증 결과 완전무작위결측 가정이 지지되었다(X^2 = 263.21, df = 239, p 〉 .05).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0.06 이하,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s Index(TLI) 0.95 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들은 6개 가족친화제도 중 현재 자신의 직장에서 평균 1.76개의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시행 중인 가족친화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38.8%, 1개인 경우가 18.9%, 2개인 경우가 11.9%이었고, 3~6개가 시행 중인 경우는 각각 10% 미만이었다. 제도별 시행률은 남성육아휴직 36.2%, 여성육아휴직 57.7%, 가족돌봄휴직 21.0%, 유연근무제 24.3%, 대체인력풀 18.8%,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8.3%이었다.

아버지들이 이용한 가족친화제도는 5개 중 평균 0.18개에 불과하였고, 90.1%인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용한 가족친화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제도별 이용률은 남성육아휴직 4.5%, 가족돌봄휴직 2.7%, 유연근무제 4.7%, 대체인력풀 2.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3.7%이었다. 아버지 직장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 수와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의 평균값은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1~4점 범위 중 평균 1.86점으로, 아버지들이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빈도가 1주일에 1~2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가족보다 맞벌이가족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지만,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감은 1~7점 범위 중 평균 5점 정도로 나타났고, 아동의 행복감은 1~4점 범위 중 평균 3.21점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2-3년제 졸업과 4년제 대학 졸업의 중간 수준이었다. 맞벌이가족이 외벌이가족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 비율이 유사하였고, 평균 자녀 수는 약 2.19명으로, 맞벌이가족이 외벌이가족에 비해 유의하게 자녀 수가 적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466만원이며, 맞벌이가족이 외벌이가족에 비해 유의하게 소득수준이 높았다.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변수	전체	맞벌이가족 (n = 612)	외벌이가족 (n = 753)	$P^{1)}$
	M (SD)	M (SD)	M (SD)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개수 (0-6)[2)]	1.76 (1.97)	1.75 (2.00)	1.78 (1.95)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개수 (0-5)	0.18 (0.66)	0.18 (0.68)	0.18 (0.65)	
부 양육참여 (1-4)	1.86 (0.48)	1.89 (0.5)	1.83 (0.47)	*
부 행복감 (1-7)	5.28 (1.00)	5.27 (1.03)	5.30 (0.97)	
모 행복감 (1-7)	5.27 (1.04)	5.31 (1.03)	5.24 (1.04)	
아동 행복감 (1-4)	3.21 (0.54)	3.22 (0.54)	3.20 (0.54)	
부 연령	40.29 (3.94)	40.38 (4.08)	40.21 (3.83)	
부 교육수준 (1-7)	5.38 (0.99)	5.41 (0.97)	5.35 (1.00)	
모 교육수준 (1-7)	5.21 (0.92)	5.33 (0.93)	5.11 (0.90)	***
아동 성별 (1=남, 0=여)	0.51 (0.50)	0.5 (0.50)	0.52 (0.50)	
자녀 수	2.19 (0.67)	2.15 (0.64)	2.22 (0.69)	*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원)	4.66 (1.98)	5.26 (1.97)	4.18 (1.86)	***

*p 〈 .05, ***p 〈 .001

주 1)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임.
2) 괄호 속 숫자는 점수 범위와 코딩 단위를 의미함.

〈표 2〉에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각각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아버지 직장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모두에게서 아버지가 이용한 가족친화제도 개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 개수는 맞벌이가족만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아버지가 이용한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외벌이가족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맞벌이가족에게서는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공통되게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과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아버지 자신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38**	.14**	.16**	.06	.03	-.02	.23**	.23**	-.01	.02	.16**
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33**		.07	.09*	.05	-.02	.01	.05	.06	.03	.00	.07
3. 부 양육참여	.02	.08*		.32**	.16**	.14**	-.04	.05	.04	-.05	.01	.02
4. 부 행복감	.05	.03	.32**		.39**	.04	-.03	.15**	.14**	-.03	-.03	.15**
5. 모 행복감	.01	.03	.22**	.45**		.06	.03	.11**	.13**	.02	-.04	.17**
6. 아동 행복감	.00	.02	.13**	.08*	.11**		-.05	.02	.04	-.17**	.03	.01
7. 부 연령	-.01	-.03	.01	-.02	-.01	.01		.00	.01	-.02	.18**	.02
8. 부 교육수준	.08*	-.05	.10**	.16**	.12**	.06	.16**		.65**	-.04	-.13**	.31**
9. 모 교육수준	.08*	-.05	.09*	.15**	.13**	.07	.08*	.58**		-.07	-.11**	.38**
10 아동 성별(1=남,0=여)	.04	-.01	.05	.07	.04	-.18**	.01	.03	.05		.00	-.06
11. 자녀 수	.05	.03	-.04	.02	-.02	-.09*	.07	-.02	-.02	-.04		-.06
12. 월평균 가구소득	.05	-.02	-.01	.06	.08*	.01	.08*	.26**	.25**	-.03	.01	

*p 〈 .05, **p 〈 .01

주: 대각선 상단은 맞벌이가족(n = 612), 대각선 하단은 외벌이가족(n = 753) 결과임.

2.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X2$ = 612.837(df = 203, p 〈 .05), RMSEA 0.038(90% confidence interval[CI] 0.035-0.042), CFI 0.971, TLI 0.967로 양호하였고, 잠재변수 아버지 양육

참여(β = 0.535~0.728, p〈.05), 아버지 행복감(β = 0.616~0.939, p〈.05), 어머니 행복감(β = 0.682~0.937, p〈.05), 아동 행복감(β = 0.508~0.676, p〈.05)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들이 잠재변수로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연구문제 1 검증을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으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모형적합도는 $X2$ = 918.766(df = 354, p 〈 .05), RMSEA 0.034 (90% CI 0.031-0.037), CFI 0.961, TLI 0.957으로 양호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아버지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았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아버지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행복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더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의 영향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지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1-1) 모형적합도는 $X2$ = 1402.607(df = 744, p〈.05), RMSEA 0.036 (90% CI 0.033-0.039), CFI 0.955, TLI 0.953로 양호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는 영향은 맞벌이가족에서만 유의하였고(b = 0.030, 95% CI 0.011-0.051), Wald test 결과 이 경로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X2$ = 5.689, df = 1, p〈.05). 또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 미침으로써 아버지의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맞벌이가족에서만 유의하였고(b = 0.024, 95% CI 0.009-0.043), 이러한 간접경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2$ = 5.666, df = 1, p〈.05). 하지만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 직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맞벌이가족 아버지의 행복감을 높이고,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어머니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95% CI	
				하한	상한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부 행복감	0.026	0.000	0.051
부 양육참여	→		**0.770**	**0.645**	**0.899**
부 교육수준	→		**0.113**	**0.062**	**0.166**
가구소득	→		**0.047**	**0.023**	**0.075**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모 행복감	0.005	−0.023	0.032
부 양육참여	→		**0.502**	**0.359**	**0.661**
모 교육수준	→		**0.088**	**0.025**	**0.148**
가구소득	→		**0.062**	**0.034**	**0.092**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아동 행복감	0.000	−0.016	0.015
부 양육참여	→		**0.198**	**0.117**	**0.285**
아동 성별	→		**−0.203**	**−0.269**	**−0.142**
가구소득	→		0.000	−0.014	0.015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부 양육참여	**0.014**	**0.001**	**0.027**
부 연령	→		−0.001	−0.008	0.005
부 교육수준	→		**0.030**	**0.006**	**0.054**
자녀 수	→		−0.015	−0.052	0.022
간접효과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부 양육참여	→	부 행복감	**0.010**	**0.001**	**0.020**
	→	모 행복감	**0.007**	**0.001**	**0.014**
	→	아동 행복감	0.003	0.000	0.006

주: 수치는 비표준화계수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진하게 표시함.

3.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연구문제 2 검증을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으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X2 = 878.301(df = 354,\ p < .05)$, RMSEA 0.033 (90% CI 0.030-0.036), CFI 0.964, TLI 0.960으로 양호하였다.

〈표 4〉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95% CI	
				하한	상한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부 행복감	0.039	−0.043	0.116
부 양육참여	→		**0.773**	**0.647**	**0.902**
부 교육수준	→		**0.120**	**0.071**	**0.173**
가구소득	→		**0.048**	**0.024**	**0.076**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모 행복감	0.042	−0.038	0.120
부 양육참여	→		**0.498**	**0.356**	**0.659**
모 교육수준	→		**0.089**	**0.026**	**0.148**
가구소득	→		**0.062**	**0.034**	**0.09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아동 행복감	−0.011	−0.050	0.029
부 양육참여	→		**0.199**	**0.119**	**0.286**
아동 성별	→		**−0.203**	**−0.268**	**−0.141**
가구소득	→		0.000	−0.014	0.015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부 양육참여	**0.047**	**0.007**	**0.091**
부 연령	→		−0.001	−0.008	0.005
부 교육수준	→		**0.034**	**0.011**	**0.059**
자녀 수	→		−0.014	−0.050	0.023
간접효과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부 양육참여	→	부 행복감	**0.037**	**0.006**	**0.072**
	→	모 행복감	**0.024**	**0.004**	**0.049**
	→	아동 행복감	**0.009**	**0.002**	**0.021**

주: 수치는 비표준화계수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진하게 표시함.

분석 결과,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행복감을 각각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경로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버지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 아동 행복감을 모두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연구문제 1과 동일하였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의 영향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지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연구문제 2-1) 모형적합도는 $X2$ = 1355.680(df = 744, p 〈 .05), RMSEA 0.035(90% CI 0.032-0.038), CFI 0.958, TLI 0.956으로 양호하였다. Wald test 결과,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모두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아버지가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최근 한국의 저출산 심화와 일-생활 균형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주목받고, 특히 남성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4.).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실증적인 증거는 국내에서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7세 아동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와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버지 직장에서는 제시된 6개의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평균 1.76개를 시행하고 있었고, 5개의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아버지들은 평균 0.18개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 아버지의 38.8%가 제시된 가족친화제도 중 현재 직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90.1%는 지금까지 이용한 제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들이 다니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와 아버지들의 이용 정도 모두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없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와 이들의 이용 정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전체의 평균과 분산이 작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요구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근로자들이 그와 무관하게 직장을 선택(혹은 유지)하

고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가족친화적인 직장은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보고(김효선·이수연, 2017)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맞벌이가족 아버지의 행복감을 높이고,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어머니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분석 결과, 아버지가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의 간접효과는 맞벌이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이나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그의 양육참여 수준 간의 관련성(예: 김진욱·강상준, 2018; Huerta et al., 2014),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웰빙 간의 관련성(예: Sarkadi et al., 2008; Schindler, 2010; Sejourne et al., 2012)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위 두 경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과,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델에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가족을 전체적인 체계로써 접근하였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상황이라는 가족의 맥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유의미하게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직접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제도가 잘 갖추어진 가족친화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가족의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 중인 직장은 퇴근시간이 규칙적이거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평소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가족화제도 시행은 이용한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인지된 지원(perceived support)으로써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의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영향은 맞벌이 아버지에게만 나타나고,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어머니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영향과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영향은 맞벌이 관계없이 나타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맞벌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양육참여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2] 가족친화제도의 직접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제도의 시행, 즉 회사 분위기나 인지된 지원에 의해서도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는 본인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주양육자인 경

2) 본 연구에서 실제로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에 비해 양육에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하였다.

우가 많고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남편의 회사 상황과 그의 양육참여 수준에 의한 영향도 자신이 근로 여부와 관련 없이 받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가족 전체의 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 모두의 행복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 전체의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전반적인 가족친화 수준이나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연구(조희금, 2016)와 같이 여러 제도의 시행여부와 이용여부를 합산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도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한으로 재정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들은 본 연구에 포함된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돕는 제도들과 다르게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활용한 사전-사후 종단설계가 이상적이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버지에게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질문한 차수는 8차년도가 유일하고, 제도 이용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횡단설계를 적용하였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통제하였지만 결과변수의 적절한 초기값은 측정되지 않아 통제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이를 포함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행여부’ 응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응답자에 따라 법정 제도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시행한다고 응답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사용한 전례가 있거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시행한다고 응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예를 보면 36.2%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한 경우는 4.5%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자로 생각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다[3].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시행 상황을 비롯한 직장의 가족친화 수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넷째,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그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도 알려져

3) 육아휴직은 12세 미만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다. 본 연구대상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알 수 없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의 71.6%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8. 기준) 남성 육아휴직이 시행 중이라는 응답 36.2%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질문하지 않아 통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률 및 이용률이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고,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맥락에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남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가족친화제도는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때로는 여성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는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의 정서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가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인식(Use it or lose it)을 확산시키는 등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혹은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로 이용하므로) 여성을 유급노동에서 더욱 떠나게 만들거나 낮은 보상을 받게 하는 등 성차별적 효과를 지닌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Moss와 Deven(1999)는 이미 성평등이 달성되지 않은 사회라면 육아휴직제도는 제도가 의도한 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고, 유연 노동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성차별적 효과가 지적되기도 하였다(홍찬숙, 2011). 하지만 한 국가비교 연구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휴가는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심화시키지만,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제도는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원숙연·이동선, 2012),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위 논의들은 가족친화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남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조윤경·민웅기, 2012).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에게 편중되어 이용되는 상황일수록 남성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성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 및 전달 과정이 요구된다.

한편, 가족친화제도가 개인 수준의 적응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더욱 많아져야 한다. 과거에는 가족친화제도의 목적을 저출산 해결이나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 사회적 차원의 것으로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도 존재하였고, 특히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제한된 논의는 주로 성평등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예: 원숙연·이동선, 2012; 홍찬숙, 2011).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나 기혼근로자의 정서적 웰빙을 높인다는 실증증거들이 국내에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다(강민재·최수찬·조영은, 2017; 김진욱·강상준, 2018).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가족친화제도가 개인의 적응과 웰빙에도 이롭다는 결과가 축적되고 이러한 사실이 더욱 홍보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육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보다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부모에게 가족시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모의 일-가족 양립과 아동의 웰빙 모두를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Gornick & Meyers, 2003). 특히,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높이는 영향관계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강력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남성들이 가족역할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 정착을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들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모두의 웰빙을 위하여 어린 자녀를 둔 남성들의 육아 시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영계의 부정적인 시각이다(예: 황인철, 2006).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기업의 유지와 발전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김혜원(2011)에 의하면 기업들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다양한 기업성과 지표들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와 단시간근무제도는 노동생산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전체 가족친화제도가 늘수록 이직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김혜원, 2011).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과 사회에 홍보하고, 가족친화제도를 근로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만이 아닌,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제도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

육참여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남성에 초점을 둔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중요한 실증적, 과학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의 사용이 보장되는 직장문화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은 기혼여성 근로자만이 아닌, 남성 근로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특정 상황의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에서 나아가 모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도모된다면, 가족 및 모든 개인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재·최수찬·조영은(2017). 기혼 근로자의 일-가정 전이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친화제도 유용성 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2, 119-145.

강수경·김해미·정미라(2018). 임신기 아버지의 가족친화적 직장조직문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과 부부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1), 1-20.

강혜경(2013).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실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0(2), 133-167.

권순범·김혜중·소효종(2018).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영아자녀 돌봄 맥락: 시간적, 장소적,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31-4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01.24.)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김상호·장지연·박종서·이지혜·이소영·변수정(2017).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희·이희선·김산하(2018).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장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미치는 전이(sipllover) 효과: 맞벌이 여부에 의한 차이. 인간발달연구, 25(2), 181-201.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김진욱·강상준(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사회보장연구, 34(1), 25-54.

김혜원(2011).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 노동정책연구, 11(3), 1-24.

김효선·이수연(2017). 조직 내 여성비율과 가족친화제도가 남녀근로자의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41(4), 87-1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안병철·이숙현·장은미·정기선·최은정·김수영·임인숙(2005). 가족과 기업: 미국·영국·일본·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 신정.

원숙연·이동선(2012).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325-360.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조윤경·민웅기(201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29-56.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구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49-68.

최성일·유계숙(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최지은·이숙현(2015). 남성의 아버지 지위 중요도가 자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계부양자 역할 의식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91-116.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에서 2019년 07월 31일 인출함.

한국아동패널. 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에서 2018년 9월 22일 인출함.

홍찬숙(2011). 시간제 고용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적합한 방법인가? - 구동서독 지역 여성노동시장 비교를 통한 접근. 경제와사회, 6, 363-386.

황인철(2006).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노동리뷰, 69-73.

Bosma, H., Stansfeld, S. A., & Marmot, M. G. (1998). Job contro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heart diseas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4), 402-409.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95). Developmental ecology through space and time: A future perspective. In P. Moen, G. H. Elde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599-6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rotheridge, C. M., & Lee, R. T. (2005). Impact of work-family interference on gener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2*(3), 203-221.

Bünning, M., & Pollmann-Schult, M. (2016). Family policies and fathers' working hour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paternal labour suppl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0*(2), 256-274.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Program. 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2013년 4월 1일 인출함.

Eggebeen, D. J., & Knoester, C. (2001). Does fatherhood matter for 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381-393.

Eggebeen, D. J., Dew, J., & Knoester, C. (2010). Fatherhood and men's lives at middle age. *Journal of Family Issues, 31*(1), 113-130.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Gornick, J. C.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Haas, L., & Hwang, C. P. (2008). The impact of taking parental leave o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relationships with children: Lessons from Sweden. *Community, Work and Family, 11*(1), 85-104.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uerta, M. C., Adema, W., Baxter, J., Han, W. 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4). Fathers' leave and fathers' involvement: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6*(4), 308-346.

Kim, P., Rigo, P., Mayes, L. C., Feldman, R., Leckman, J. F., & Swain, J. E. (2014). Neural plasticity in fathers of human infants. *Social Neuroscience, 9*(5),

522-535.

Liao, T. F. (2004). Comparing social groups: Wald statistics for testing equality among multiple logit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5*(1-2), 3-16.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Moss P. & Deven, F. (1999).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Research and Policy Issues in Europe*. Brussel: NIDI/CBGS Publications.

Mullen, F., Kelley, E., & Kelloway, E. K. (2008). Health and well-being outcomes of the work-family interface. In K. Korabik, D. S. Lero, & D. L. Whitehead (Eds), *Handbook of Work-family Integration* (pp. 191- 214). MA: Academic Press.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Nepomnyaschy, L., & Waldfogel, J. (2007). Paternity leave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young children: Evidence from the American Ecls-B. *Community, Work and Family, 10*(4), 427-453.

Ray, R., Gornick, J. C., & Schmitt, J. (2010). Who cares? Assessing generosity and gender equality in parental leave policy designs in 21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3), 196-216.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Schindler, H. S. (2010).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s in promoting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318-332.

Sejourne, N., Vaslot, V., Beaumé, M., Goutaudier, N., & Chabrol, H. (2012). The impact of paternity leave an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on

m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0*(2), 135-144.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5*. Paris: OECD Publishing.

Sullivan, O., Coltrane, S., McAnnally, L., & Altintas, E. (2009). Father-friendly policies and time-use data in a cross-national context: Potential and prospects for futur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234-254.

• 논문접수: 8월 2일 / 수정본 접수 8월 31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hyounkim@yonsei.ac.kr

Abstract

Family-Friendly Policies in Fathers' Workplaces and Subjective Happiness of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Jieun Choi and Hyoun K. Kim

The present study aime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beneficial effects of family-friendly policies (FFPs) in fathers' workplaces on families' wellbeing by examining whether the presence of diverse FFPs and fathers' use of such policies would affect perceived happiness of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enhanced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Fathers, mothers, and their 7-year-old children from 1,365 families from the 8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nalyses and subsequent Wald tes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s of dual- versus single-earner families. Findings showed that the number of FFPs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and subsequently led to increased subjective happiness of fathers in dual-earner families. The indirect effects from the number of FFPs to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were significant across the whole sample. Fathers' use of FFPs enhanced subjective happiness of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via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of dual- or single-earner familie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 utilization of FFPs in fathers' workplaces enhanc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members. Implications of and strategies for facilitating FFPs for men were discussed.

Keyword: fathers' workplace, family-friendly policies for men,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subjective happiness

「육아정책연구」 규정

제정 2007. 1. 12.
개정 2009. 1. 19.
2011. 4. 12.
2012. 4. 10.
2014. 12. 15.
2016. 4. 26.
2016. 8. 17.
2017. 8. 22.
2018. 4. 27
2018. 8.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육아정책연구의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3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소 내·외부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중 소장이 지명한다.(2016. 4. 26. 개정)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에 있어 유아교육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으로 하며, 영문편집위원 1명을 포함한다.(2016. 4. 26. 개정)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7. 8. 22. 개정)

제8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연구소 출판편집 운영세칙 또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심의
2. 논문 심사
3. 게재 확정 논문 최종 검토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장 논문 접수 및 심사

제10조(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발간 목적에 맞아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고논문의 「육아정책연구」 학술지 성격 부합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서 제외한다. (2016. 8. 17. 신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의견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2014. 12. 15. 개정)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8.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한다.
9.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2018. 4. 27. 개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심사 판정에 대한 기타 추가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10.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로 통과된 논문제출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018. 8. 17. 신설)

제12조(논문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2014. 12. 15. 개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구성의 논리성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타당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논문작성의 성실성
8.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9. 논문초록의 적합성
10.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4장 출판

제13조(저작권) 「육아정책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별첨 3)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17. 8. 22. 개정)

제14조(학술지 공개) 출판된 학술지 전문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투고자 윤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6조(투고자 윤리) 육아정책연구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와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 철회 및 투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9. 12.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6. 8.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일체에 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윤리

1. 투고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진실성을 왜곡시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서약을 의무화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
2.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요구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표기, 2차 문헌 표절,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직접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2016. 8. 17. 개정)

④ 중복게재: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⑤ 부당한 저자표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제6조 연구 윤리위반 행위 제보(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위반의 조사(2016. 8. 17. 신설)

1. 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육아정책연구 윤리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결과에 따른 통지(2016. 8. 17. 신설)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본 학술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과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이 확정된 연구자의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으며,

관련기관 통보 및 향후 최소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2016. 8. 17.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

제정 2007. 1. 12.
개정 2010. 4. 7.
2011. 10. 10.
2012. 4. 10.
2012. 10. 15.
2014. 8. 1.
2016. 4. 26.
2016. 8. 17.
2017. 8. 22
2018. 4. 27
2018. 8. 17

1. 논문 주제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2. 논문 형태

논문 형태는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발간횟수 및 시기

「육아정책연구」의 발간횟수는 연간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1호는 6월 30일, 2호는 9월 30일, 3호는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4. 논문 투고 방법 및 유의점

1)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한 논문 제출과 함께 〈별첨 2〉의 연구윤리 준수 양식과 〈별첨 3〉의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를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한다.(2016. 8. 17. 신설, 2017. 8. 22. 개정)
2)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에서 연구윤리 서약을 한 후에 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은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은 1호 3월 31일, 2호 7월 31일, 3호 10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4) 논문 투고는 한 호당 1저자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게재 논문의 저자가 중복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11. 10. 10. 신설, 2012. 10. 15. 개정)

5. 논문 작성

1) 논문 작성은 〈별첨 1〉의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한다.(2012. 4. 10.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

□ 논문 작성

○ 투고 논문은 논문제목, 성명,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 저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 저자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논문투고신청서 〈참고사항〉에 그 사항을 명기한다.
○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주 처리한다.(2018. 8. 17. 개정)
○ 국문초록은 400자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으로 적는다.(2018. 4. 27. 개정)
○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 5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적는다.
○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거나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한다.
○ 논문 분량: 논문 편집 기준으로 25쪽 이내로 제한한다(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포함).

□ 편집양식(2018. 4. 27. 개정)

○ 작성도구: 한글 2004 이상

여백주기		바탕글				각주모양		머리말 짝수쪽만 설정	
		문단모양		글자모양					
위쪽	40.0㎜	왼쪽여백	0	한글·영문:		번호모양	1)	글자모양	
아래쪽	40.0㎜	오른여백	0	KoPub바탕체		구분선길이	5 ㎝	한글·영문:	
왼쪽	40.0㎜	들여쓰기	0	Light		구분선위	3 ㎜	KoPub바탕체 Light	
오른쪽	40.0㎜	줄간격	160			구분선아래	2 ㎜	글자크기	9
머리말	15.0㎜	문단위	0	장평	95	각주사이	1 ㎜	장평	100
꼬리말	15.0㎜	문단아래	0	자간	-4			자간	-3
제본	0 ㎜	낱말간격	0	크기	10.5			오른여백	0
		정렬방식	혼합					정렬방식	왼쪽

※ 용지종류 A4, 용지방향 보통으로 할 것

분 류 \ 값		글자 크기	글 꼴	줄간격	문단 위	문단 아래	정렬방식
본문	학술지 본문	10.5	KoPub바탕체 Light	160	-	-	양쪽
	Ⅰ. (장)	15	KoPub바탕체 Bold	160	30pts	15pts	양쪽
	1. (절)	13	KoPub돋움체 Bold	160	15pts	12pts	양쪽
	가. (항)	12	KoPub돋움체 Medium	160	12pts	10pts	양쪽
	1)	12	KoPub돋움체 Light	160	10pts	5pts	양쪽
	가)	11	KoPub돋움체 Light	160	10pts	10pts	양쪽
	(1)	10.5	KoPub돋움체 Light	160	-	-	양쪽
	면담인용문	9.5	KoPub돋움체 Light	130	10	10	가운데
표 (그림)	표 그림 제목	10.5	KoPub돋움체 Light	130	15pts	-	가운데
	단 위	10	KoPub돋움체 Light	130	-	-	오른쪽
	내 용	9.5	KoPub돋움체 Light	130 이하	-	-	(앞부분은 양쪽정렬)
	주/자료	9	KoPub돋움체 Light	130	2pts	-	양쪽
각주	내 용	9.5	KoPub바탕체 Light	130	-	-	양쪽
참고문헌	제 목	15	KoPub바탕체 Light	130	30	15pts	양쪽
	내 용	10	KoPub바탕체 Light	140	-	4pts	양쪽
교신저자	내 용	10	KoPub돋움체 Light	140	-	4pts	양쪽
영문요약	영문제목	15	KoPub바탕체 Bold	160	-	40pts	가운데
	영문저자명	12.5	KoPub바탕체 Light	-	-	-	가운데
	영문내용	10.5	KoPub바탕체 Light	160	-	-	혼합

○ 표와 그림(2018. 4. 27. 개정)

- 그림과 표에 사용되는 양 괄호는 Ctrl+F10 → 문자코드 3014와 3015인 〔, 〕 및 3008와 3009인 〈, 〉를 사용하고, 서술형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자판기의 〈 〉, [ ]를 사용함.
-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표의 선 모양은 맨 윗줄은 이중선, 맨 아랫줄은 가는 실선(0.12mm)으로 하고 좌우 테두리 세로선은 없앤다. 가로 구분선은 최소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가는 실선이나 가는 점선을 사용한다.

□ 인용과 참고문헌

〈인용〉

○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줄씩 비우고 좌우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에 대해 홍길동은(2006)...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6; Anderson, 2005)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세번째 저자까지 표시하고 OOO 외(국내저자), 또는 et al.(국외저자)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 논문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OOO
- 정기간행물의 논문
  홍길동·김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25(4), 1-28.
- 학위논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OO대학교 대학원.
- 인터넷 자료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ce.re.kr
- 신문기사
  OO일보 2006. 1. 1. 육아지원 방안 연구

※ 영문

-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논문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할 것. 단, 정기 간행물의 도서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별첨 2〉 편집위원회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

「육아정책연구」 연구윤리 준수 양식

OOOO년 O월 OO일

<table>
<tr><td>권/호수</td><td colspan="4">(　　) 권　(　　) 호</td></tr>
<tr><td rowspan="2">논문 제목</td><td>국문</td><td colspan="3"></td></tr>
<tr><td>영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저자</td><td>번호</td><td>성명</td><td colspan="2">소속 및 직위</td></tr>
<tr><td>1</td><td></td><td colspan="2"></td></tr>
<tr><td>2</td><td></td><td colspan="2"></td></tr>
<tr><td>3</td><td></td><td colspan="2"></td></tr>
<tr><td>4</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교신저자</td><td colspan="2">성명</td><td></td><td rowspan="2">연락처</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e-mail</td><td></td></tr>
<tr><td rowspan="5">학위논문 여부</td><td colspan="2">학위</td><td colspan="2">박사학위 (　) / 석사학위 (　)</td><td rowspan="5">학위논문 아님
(　　)</td></tr>
<tr><td colspan="2">학위수여일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학위수여학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도교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심사위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학술대회 발표</td><td colspan="2">학술대회명</td><td colspan="2"></td><td rowspan="3">미발표 논문(　)</td></tr>
<tr><td colspan="2">발표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발표형식</td><td colspan="2">구두(　) / 포스터(　)</td></tr>
<tr><td rowspan="2">연구비 지원</td><td colspan="2">지원기관</td><td colspan="2"></td><td rowspan="2">지원받지 않음(　)</td></tr>
<tr><td colspan="2">지원년도</td><td colspan="2">_____ 년도</td></tr>
<tr><td rowspan="3">연구윤리 관련</td><td rowspan="2">KCI 유사도 검사(필수)</td><td colspan="4">_____ % (20% 이상 시 아래 '사유란'에 사유를 기재)</td></tr>
<tr><td colspan="4">사유:</td></tr>
<tr><td>IRB 승인(권장)</td><td colspan="4">승인번호: _____</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5">※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td></tr>
</table>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귀중

〈별첨 3〉 편집위원회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

구분	육아정책연구 제 권 제 호
논문제목	

저자(들)는 본 원고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육아정책연구』에 게재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연구원 보고서 제외),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5. 『육아정책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육아정책연구소로 양도합니다.
6. 저자(들)는 본 논문이 『육아정책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전송권), 출판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육아정책연구소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육아정책연구소장 귀하

제목

○○○[1] ○○○[2]

요 약

국문요약입니다. 국문요약입니다. 국문요약입니다.

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2. ○○○○

가. ○○○○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나. ○○○○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Ⅲ. 연구결과

1. ○○○○

가. ○○○○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나. ○○○○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다. ○○○○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표 1〉 ○○○

○○○		○○○	○○○
○○○	○○○		○○○
	○○○		
	○○○		
	○○○		
○○○	○○○		○○○
	○○○		
	○○○		
○○○			○○○

Ⅳ. 논의 및 결론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

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 요령입니다.

참고문헌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조혜주(201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논문접수:

• 교신저자: 이름, 소속 및 직위, 이메일

Abstrac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Gildong Hong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eywor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혜진 (나사렛대 아동학과 교수)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정미라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한종화 (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김혜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인 쇄 2019년 9월 30일
발 행 2019년 9월 30일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ISSN 1976-6793